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 온돌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월 1일(음력11월 21일) 토요일 (주간) 제507호

"부다피아가 불교정보의 세계화 문연다"

세계적인 포털 지향 대폭 개편

1월 5일부터 새로운 서비스 체계…2월 영문서비스 시작

현대불교 10년 기사 주제어 검색 가능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불교는 2005년 1월5일부터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전면 개편, 새 얼굴로 선보인다.

지난 95년 8월, 불교계 최초의 웹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는 10년만에 영문 및 동영상, 사진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포탈사이트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현대불교는 부다피아 개편을 계기로 향후 종합미디어센터(HBMC) 체제로 바꿔 불교의 세계화, 현대화, 생활화를 구현하는 불교계 대표언론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부다피아는 실시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온라인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함께 통합회원제를 운영,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과 깊이있는 정보로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새로워진 부다피아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도 깊이있는 정보검색 시스템을 갖췄다. 색인을 매긴 10년치 현대불교 기사를 비롯한 각종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 방대한 DB를 기반으로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족집게처럼 찾아준다. 특히 키워드에 부합되는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사진과 선지식들의 동영상 및 오디오 파일을 클릭 한번으로 동시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다피아는 불교계의 대표 월간지였던 <대중불교>와 <불일회보>를 비롯 1953년 이전 절판된 불교잡지 등 총 21종 1만 1221개 기사의 잡지기사를 PDF파일로 안방에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또한 70여 종의 희귀 불교고서를 정밀 스캔해 PDF파일로 제공하며, 다운로드 및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병행해 '영구보존 프로젝트(Archive Project)'도 추진한다.

부다피아는 수행 및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각 분야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찰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불자 커뮤니티(동호회), 블로그(개인 공부 및 취미방), 웹페이지 빌더(사찰 및 단체 홈페이지)를 무료로 오픈한다. 유명 예술가와 동호인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 갤러리'도 상설 운영한다. 80권의 전자 불서(e-book)를 비롯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의 3만여종, 8만여권 불서, 3천여 종 불교문화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스템은 독자위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1월 5일부터 선보이는 세계적인 포털 부다피아 초기화면의 일부.

이러한 국내 최대의 DB를 바탕으로 부다피아는 불교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인 인터넷 해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1차로 오는 2월부터 한국 현대 고승 47인의 법문, 조계종 25교구본사 안내, 경전 및 한국불교미술 소개, 영문 불교사전, 미국 UMI 불교논문 정보 등을 영문으로 서비스 한다. 관련기사 15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특집 2005 신년특집 48면 발행

특집 1 '우리도 부처님같이'

도법 스님 특별기고 25면
개인의 삶, 인류역사의 핵 26면
'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27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28~29면
불교에서 경영 배운다 30~31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32~33면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풀기 34면
부처님 삶을 사는 사람들
-정토회·서양의 불교수행공동체 37~38면

특집 2

종교는 본래 화합이다 -성직자 좌담 6~7면

특집 3

종립학교생 종교의식 조사 8~10면

새 아침에 독자와 함께 만난 큰스님-보성 스님 12~13면
닭과 불교·을유년 불교사 46면
2005년 불교계 핫이슈 3면
제10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42~43면

동남아시아 재앙 복구 불교계 나섰다 5면

새해 큰뜻 이루소서!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지진·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동남아시아에 자비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 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종교화합 실천적 지침 만들자"

본지 기획 성직자 좌담서 지적…'대화의 장' 적극 나서야

'종교화합'이 올 한 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정장식 포항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종교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전국민의 70%가 종교인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대립은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3일 마련한 '종교화합을 위한 성직자 좌담회'에서 이동연 목사(인천 한누리교회)는 "일부 종교인들만의 대화만으로는 도저히 종교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제 종교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찬진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총무) 역시 "종교인들간에 서로 대화하고 공동선(共同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에 참가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공동선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종교인들간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종교간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봉사활동이나 인권, 환경, 통일 등의 사회문제에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히 종교간 대화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인근 교회, 성당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공동바자회'를 열고 있는 서울 화계사나 부산지역의 불교와 가톨릭, 원불교 재가 여성 신도 30여 명이 만든 봉사단체 '재가 삼소회'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종교학)는 "종교인들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종교 본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김원우·남동우·여수령 기자



그림·조태호

보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등을 밝히겠습니다

종 정 道林 法傳
원로의장 종 산
총무원장 법 장

중앙종회의장 법 등 호계원장 월 서
교 육 원 장 청 화 포교원장 도 영

大韓佛教曹溪宗

승가교육제도·노후복지·국제포교 역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신년회견서 '화합종단' 강조**

"달라이라마 방한 환영…여건 성숙 필요"

조계종은 새해 △승가교육제도 개선 △승려노후복지기반 확보 △1사찰 1가정 자매결연사업 강화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포교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은 신년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무애(無碍)한 보현행(普賢行)의 원력을 세우고 인류가 공생(共生)하고 세계가 화평(和平)하도록 모든 종도들이 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를 맞아 종도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위의 이웃을 한번씩 살펴봤으면 합니다.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무원장 스님의 하반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장 취임 후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원융화합 종단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덕과 무지의 소치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예산종회에서 짧은 시일 내 대부분의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종단이 원융과 화합의 문안으로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해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입니다. '승려노후복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지난해 시작한 '1사찰 1가정 자매결연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포교'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행자교육을 집체교육형태로 할 것입니다. 또 일정기간 교육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종무행정 교육을 시행하고, 사찰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단기 종무행정 연수원 설립을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해외포교 방안은?

-국내 간화선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행자들을 길러서 배출하고,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들과 종단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각종 경전을 번역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작성하는 위원들이 답을 만들고 이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답변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올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달라이라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면 스님도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찰분담금이 동결돼 종단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재정 확충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종단재정확대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무형 자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종도 동의 과정을 거친 다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복안은 있으신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나 자치단체법 등 관련 법령에 종교 평화와 종교편향 행위 금지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종교간 이해와 평화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상호존중과 공존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희망과 지혜의 빛 드리우길"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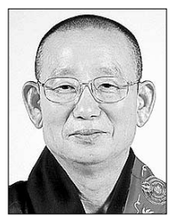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사진)이 지난해 12월 27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종산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불일(佛日)이 증휘(增輝)하여 고통과 시름에 겨운 만백성들에게 희망과 지혜의 빛을 드리우기를 기원한다"며 "모두 다 자기 생각의 근원에 실체 없음을 깨달아 아집의 굴레를 벗어날 때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우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재추대

원로의장 덕산 · 종의회의장 정산 스님



천태종 제13대 총무원장에 운덕 스님(사진)이 재추대 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73차 임시종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 제13대 종의회 의장에 정산 스님을 선출하고, 감사원장에는 도정 스님을 추대했다. 종의회 부의장에는 도산 스님(강릉 삼개사 주지)과 박노승 <천태종보> 편집위원이 선출됐다.

한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종의회 직후 前 종의회 의장 덕산 스님을 원로원장으로 임명했다.

제13대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1940년 생으로, 63년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66년 구인사에서 종조인 상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1년부터 천태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상무이사, 천태종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새해 예산 162억원 확정

임시종의회에서

진각종 2005년 예산이 162억9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는 지난해 12월 21일 총인원에서 열린 제340회 임시종의회에서 지난해 보다 7억4천만원 줄어든 162억9천2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또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인 의현 정사의 후임 이사후보로 증광 정사(경산심인당 주교), 원명 정사(관음심인당 주교)를 복수 추천하는 한편 티베트어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의식 및 교리 등의 체계적인 수학을 위해 종비장학생 2명을 유학시키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출가자 배출 양보다 '질' 우선" 90.6%

조계종 본말사 주지 설문결과

조계종 본말사 주지 대다수가 '강원의 교과과정 개선'과 '승려노후복지대책 수립'을 종단의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7~8월 본말사 주지연수 참가자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방 주지스님들은 현 승가교육과 관련해 '출가자의 배출이 양보다 질 우선으로 변해야 한다(90.6%)'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 '강원의 교과과정도 현대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80.6%)'고 밝혀 현 승가교육제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은 승납과 세납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

특히 94.2%의 스님들이 '기초·기본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통일성 확보를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조계종이 추진중인 '승가교육제도개선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단의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승려노후복지대책마련(30.0%)'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승가교육의 진흥과 수행정신의 회복(18.2%)' '수행체계 정립(15.0%)' '재가신도의 교육 및 조직화(9.8%)' 순이었다.

한편, 주지 임명과 관련한 '인사고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28.1%), 찬성(41.1%) 등으로 69.2%가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조용수 기자

부천 석왕사등 전통사찰로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양 덕암사, 하남 선법사, 부천 석왕사, 부여 화암사, 구례 죽림정사, 구례 백련사, 영암 법흥사, 강진 옴천사, 서울 은평 용암사, 서울 도봉 만월암, 서울 강서 법안사, 산청 내원사, 남양주 천보사, 여주 대성사, 홍성 구절암 등 총 15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찰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다시는 이런일 없을것"

전태홍 목포시장 '편향발언' 사과

정장식 포항시장에 이어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태홍 목포시장이 불교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남(목포, 무안, 신안)통합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훈)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04 목포 복음화 대성회에서 행한 연설이 종교적으로 오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 시장은 지난 11월 26일 목포 KBS홀에서 열린 '2004 목포 복음화 대성회'에서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 달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유철주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재개 지역 불교계 강력 반발

환경훼손과 수행환경 침해 논란으로 중단됐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사실상 재개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케이블카 부지에 옮겼으며, 올 2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영환경운동연합과 미래사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불기 2549년 을유년 한 해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은사 미륵대불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 청정공덕(신도)회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5 FAX 02)544-2141

2005 불교계 핫이슈

문화·복지 기반 확대 '포교' 활짝

태고종 불교위성방송(BSB) 개국

영상시대에 발맞춰 태고종이 불교위성방송(BSB(Buddhist Satellite Broadcasting))을 개국한다.

태고종은 지난해 8월 방송위원회로부터 위성방송 채널을 인가 받은 이후 기자재 매입, 전문인력 확보 등 방송국 개국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올 8월 개국을 목표로 방송국 청사 마련, 재정 확보 등에 나선다. 종단 내에서도 지난해 구성된 불교위성방송국 개국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완공,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 종도교육 강화 등도 태고종의 올해 주요 사안이다. 이들 사업은 태고종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2종단으로서의 역할 찾기라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간화선 수행지침서 · 교안 발간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작업이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불었던 간화선 수행 열기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간화선 지침서 편찬위원회(위원장 혜국)'는 지난해 11월 3~5일 충주 석종사에서 확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제방선원 중진수좌, 선원장, 학계원로 등의 자문을 얻어 추진중인 수행지침서 편집안을 확정하고 현재 윤문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과 비슷한 시기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에서도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발간한다. 재가불자들에게 좀더 쉽고 체계화된 간화선 수행법을 알려주고자 마련하는 <교안>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와 같은 교리뿐만 아니라 화두를 들고 실참(實參)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가 선수행 지도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진각종 불상봉안 · 출가승 제도 부활하나

진각종이 불상 봉안과 출가수행승 제도를 부활할 것인가도 올해 주요 관심사다. 오랜 기간 준비했으면서도 종단내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올해에는 반드시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심인당에는 불상을 봉안하지 않는 대신 총본산 또는 수행본산, 영묘원 등지에 불상을 봉안하도록 허용하고, 창종 초기 존재했던 출가수행승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이 종헌종법 개정안의 골자다.

진각종은 또 4월 제27대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효암 현 원장과 혜정 교육원장, 회정 밀각심인당 주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누가 통리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종단의 종책기조의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원 · 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복지사업에 한층 주력한다.

승가교육제도개선 어떤 결론을 맺을까

조계종이 종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승가교육제도개선이 올해 어떤 결말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의 사표가 될 스님을 양성하는 교육관련 사안은 승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승개추의 추진과정을 바라보는 종단 구성원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승개추는 일단 2월중 위원단 전체회의를 통해 이미 제시된 2가지 안을 최종 검토한 후 교육원회의와 지도위원단 보고를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3~4월경 두 차례로 예정된 공청회는 최종안 확정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승개추 내 법제분과위에서 입법화를 위한 종법개정안 마련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승가교육 강화의 총론에는 동의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각론에선 수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승개추 개정안이 얼마나 승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5년에는 어떤 사안들이 불교계를 뜨겁게 달굴 것인가? 조계종의 경우 <간화선 수행지침서> 및 교안 발간, 승가교육제도개선, 교구별 스님노후복지시설 건립,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군승교구 특별법 제정이 올해 주요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고종은 불교위성방송(BSB) 개국, 사회복지법인 설립,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완공,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완료, 진각종은 통리원장선거와 종헌종법 개정 등이 주요 사안이다. 이 외에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과 달라이 라마 방한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두사안은 해를 넘긴 '숙제' 들이어서 올해 내 모두 성사될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강지연 · 박봉영 · 남동우 · 강유신 · 조용수 · 박익순 기자



올 상반기 개원 예정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첨단 전시 · 보존 · 수장 시설을 갖춘 불교중앙박물관이 10월 개관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지하 3 · 4층에 전시실 290평, 수장고 130평 규모로 마련된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를 관리하는 종단 차원의 첫 시설로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불자들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조대장경 판본 및 필사본, 소형 금동반가사유상 등을 포함해 152건 283점을 확보(11월 4일 기준)했으며, 18개 사찰의 동의를 얻어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동국대박물관 소장 유물 1094점 회수를 요청, 협의 중에 있다. 이 가운데는 국보 2점과 보물 9점, 지방문화재 3점이 포함돼 있다. 70% 가량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수한 유물 가운데 성보박물관이 있는 교구 내 사찰 유물은 해당 성보박물관으로 돌려준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개관 즈음해서는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Ⅰ-佛'도 열 예정이다.

천태종 영통사 복원 완료

천태종은 지난해 심혈을 기울였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올해 완료한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성 영통사 복원과정에서 북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천태종은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 봄께 영통사에서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세미나와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2011년 창종조 상월 대조사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행사 준비도 천태종의 올해 화두 중에 하나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총본산 구인사 유물전시관 불사와 함께 상월 조사를 기리는 각종 사업의 큰 틀짜기와 기념사업회 구성이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난 12월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재추대된 운덕 스님의 새로운 총무원 집행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정 속의 변화'를 택했던 12대 집행부와는 달리 13대 집행부는 '힘찬 도약'을 타이틀로 짜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승교구특별법 재논의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 7월 '군승특별교구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승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 교구 종무소를 두고 군승과 군사찰, 군신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군승교구 주지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가운데 군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승은 일반 스님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지만 복무기간 중 혼인이 가능하며 선거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군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하고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지난 11월 이 법안이 정기중앙종회에 상정됐지만 복무기간 중 혼인이 가능한 점 등이 쟁점이 돼 결국 다음 임시종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늦춰지면 군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어떤 형태으로든지 올해 안에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스님노후복지시설 건립 본격화

올해에는 조계종 교구별 스님노후복지시설 건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주사, 신흥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금산사 10개 교구본사는 스님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만 확정되면 이 사업의 물적 토대가 보다 튼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정기종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스님노후복지시설 사업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은 연차적으로 24교구 본사 모두 스님노후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9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조계종 원로스님들의 노후복지 뿐만 아니라 종교계 복지문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될까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과연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인들에게 전한다면 불교계는 이를 통해 위상 제고와 포교 확대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달라이라마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한국 불자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도 이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다. 달라이라마 방한의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정부도 지난 8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상황이 되면 고려할 사항"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한국정부가 중국과 외교문제를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 1월 중 시민 · 불교단체가 연대해 방한추진위가 구성되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올 상반기 중 달라이 라마의 방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2006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동국대는 올해 일산불교병원 개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동국대 이사회는 병원 개원을 올해 상반기로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4차 이사회에서 병원 개원에 필요한 예산과 의료장비도입을 승인하는 등 개원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임 이석현 의무원장(병원장)이 주도하는 의료진 영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묵 교수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신생 병원개원에 필수적인 순환기와 소화기관련 거물급 의료인을 잇달아 초빙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의 채용도 이미 끝나, 3월 1일자로 발령 받을 교수급 의료진을 포함 1월 중순경이면 병원 핵심인력의 정상 출근이 시작된다. 이석현 원장도 " 늦어도 6월 이전 개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반기 개원을 낙관하고 있다.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주 성타 주지 종상

학장 덕민
부주지 관우
강주 응각
총무장 주행
사서 신원
기획 청천
교무 종문
재무 정탄
사회 성명
교육 보형
문화 기형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룸비니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보신문

대중일동

시비가 원융을 이룹니다

법전(조계종 종정)



우주법계가 이로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성인과 범부의 근본이 되는
신령스런 광명이 여러분 목전에 떠오르니
황금 닭이 공겁이전(空劫以前) 소식을 알리고
금오(金烏)와 옥토(玉兎)는 대지묘용(大地妙用)을 빚어냅니다.

산정(山頂)에는 물결이 넘쳐 하늘에 닿고
바다 밑에 먼지가 일어 황금을 이룹니다.
집집마다 무쇠나무 향기가 가득하고
불어오는 훈풍(薰風)에 천지가 윤택합니다.
불속에 목우(木牛)는 무생가(無生歌)를 노래하고
구름 위 철마(鐵馬)는 백척간두에서 나아갑니다.

사람마다 역순(逆順)의 기틀로 무가보(無價寶)를 얻어
곧은 것은 들고 굽은 것은 놓아 버리니
시방의 종지(宗旨)가 한곳으로 모이고
정과 사의 시비가 원융을 이룹니다.

오늘 아침 산승이 본분 철추(鐵鎚)를 한번 치니
천지가 뒤집히고 삼악도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이 송구영신의 방일득이(放一得二)의 도리입니까?
을유년의 출신지기(出身之機)입니까?

대중(大衆)은 회마(會麽)(알겠는가)!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제불이 환희공찬하길

혜초(태고종 종정)



금오(金烏)와 옥토(玉兎)가 불정상전(不停常轉)하니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난세지본(亂世之本)은 대립과 갈등이요, 투쟁지원(鬪爭之原)은 탐욕과 독선에 기인하나니,
명현자(明賢者)는 법과 도를 숭상하나
둔근자(鈍根者)는 잡기(雜技)와 소리(小利)에 집착하여
인본의 대의를 그르치니 어찌 통석(痛惜)치 않으리오.
인간은 저마다 우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이니
세정(世情)이 혼탁함은 주인의 책임이요,
만유가 청미(淸美)함 또한 주인이 소작(所作)한 바니
금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정지덕(自淨之德)을 발휘하여
만인이 공수함락(拱手含樂)하고 제불이 환희공찬(歡喜共讚)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도(懇禱) 축원합니다.

주객이 하나되어 태평가를

도용(천태종 종정)



靈波假涌泛栴檀(영파가용범전단)
照日紅光杳靄間(조일홍광묘애간)
苦海頓成寂光土(고해돈성적광토)
慈航不住普陀山(자항부주보타산)

신령한 물결 용솟음쳐 거룩한 관세음 떠오르니
햇빛보다 밝은 광명 아득한 노을 새로 비추네
고해는 갑자기 불국세계 되었거니
자비의 배는 보타산에 머물지 않네

금 닭이 크게 우니 천지가 금빛으로 열리는구나.
탐욕을 덜어내니 연꽃이 피어오르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모두가 다정한 벗이로다.
그 중에 아름다운 모습은 남북이 하나 되고,
주객이 하나 되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자비로 진정한 밀엄정토 이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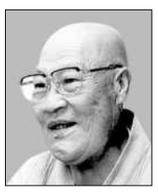
혜일(진각종 총인)



청정하면서도 고적(孤寂)한 불일(佛日)의 새아침 성서러웁게 동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일 때,
하늘의 청빈(淸彬)한 법기(法氣)를 머금은 계명(鷄鳴)의 소리는 땅의 수순하는 마음으로 겁운(劫雲)을 몰아내고 삼라만상은 모두 자비의 빛을 받아 화합(和合)의 열매를 맺는 불사(佛事)의 모습을 짓는도다.
중생은 부처가 아닌고로 누구나 허물도 많고 실수(失手)도 있는 법이라. 이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깨달아 고쳐 나간다면 이 세상이 불보살의 세계와 다른 바가 없는 것이라.
저 조용하고 숭고하게 떠오르는 새 아침의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자비(慈悲)를 베풀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밀엄정토(密嚴淨土)를 이루는 청정(淸淨)한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애경하는 마음이 부처

죽산(관음종 종정)



法界盡是 毘盧師(법계진시 비로사) 誰道賢愚 貴與賤(수도현우 귀여천) 利己害人 卽自決(이기해인 즉자결) 爲他損身 是活路(위타손신 시활로)
常常嚴飾 寂光殿(상상엄식 적광전)
愛敬老幼 皆如佛(애경노유 개여불)
온 세상이 모두 다 청정한 법신이거늘
잘잘못 시비함은 중생의 분별이라.
나 살려고 남 해침은 죽는 길이요
남을 위해 손해봄이 사는 길이로다.
언제나 적광전을 장엄하여
애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일세.

대승으로 거듭나는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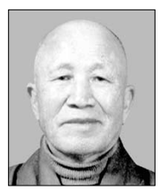
효강(총지종 종령)



우리 불교인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승직자들은 청빈한 생활과 청정한 수행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불자들 또한 부처님 앞에서 오직 내가 잘되고 내 가족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이고 소승적인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먼저 정화함으로써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부처님 전에 서원합시다.

돌 쌓아 만리성 이루듯

동광(총화종 종정)



送申迎酉 新改革(송신영유 신개혁) 送舊甲申 覺回顧(송구갑신 각회고) 乙酉宗務 企劃成(을유종무 기획성) 前途宗團 有發展(전도종단 유발전) 一石積築 萬里城(일석적축 만리성) 宗徒一同 大同結(종도일동 대동결)
갑신년을 보내고 희망의 을유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해의 일들을 돌아보며 깨치고 개혁하여서 을유년 종무행정을 기획하면 종단 앞날에 발전이 있으리라. 돌 하나하나를 쌓아 만리성을 이루는데, 종도 여러분은 마음을 단결하여 매사에 대처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생명에 자비심 넘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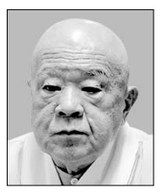
혜안(보문종 종정)



우주와 생명의 실상에 대한 통찰력과 개개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자비심에 뿌리를 두지 않은 모든 이념과 신념체계는 이분적 양 극단의 독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변(二邊)의 양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공성(空性)의 연기를 설파한 붓다와 용수보살의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절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존재와의 공존 공영을 설하신 붓다의 연기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닦아감으로서 우주의 생명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마음 밝혀 깨우치자

일공
(원융종 종정)



을유년 새해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니 천지가 열리어 불타의 지혜의 빛과 자비의 향기가 삼천대천계에 가득하여 진중(塵中)에 생연(生蓮)하듯 만상발생기(萬象發生氣) 하도다.
간혹은 아프고 힘든 삶이라.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리석어 어두우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라 했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밝혀 깨우침을 일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동체대비로 경제 회생

지명
(조동종 종정)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신년이 밝아오도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편견과 아만, 정쟁을 멈추고
움추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 아래 국민이 화합하고
동체대비심으로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하여
화합하고 양보하며
온 국민이 희망 넘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강은 잠에서 깨어나

해곡
(열반종 종정)



을유년 동녘이 밝아오고 있다.
오천년의 한강은 잠에서 깨어나
백두산의 소나무는 눈을 털고 일어나고
대나무와 어울려서
고추달고 숯달고 쌈줄을 치고
새 생명 미륵을 생산하나
5억7천년의 윤회에 수레는
본래 여여한데
오고감이 어디 있나
춘란(春蘭)에 이슬 맺혔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일세.

바람이 그물망 스치듯

연화
(미륵종 종정)



보낼 것도 맞이할 것도 없는 것이 평상심이라네.

오늘에 속아 살고
내일을 기약한들
얻을 것이 무엇인고.

걸림 없는 바람이
그물망을 스치듯이
어느새 광음이 서산에 저무니
새아침
양운(陽運)을 바라노라.

본래면목 찾아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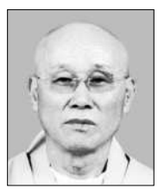
경조
(불입종 종정)



세상은 허공에 핀 꽃입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넘쳐난 것이 없습니다. 생명붙이는 모두가 원만한 부처님이지만 갖가지 업력으로 서로 다른 탈을 쓰고 차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부처님 닮은 마음을 꺼내쓰는 한 해가 되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살기좋은 세계가 되도록 모두가 스스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로 화목을

혜봉
(해동종 종정)



何是新年本分事(하시신년 본분사)
木鷄一聲花自紅(목계일성 화자홍)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나무닭 한소리에 꽃이 스스로 붉구나.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집과 편견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의 어두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화해와 용서로써 화목하여 풍요와 진실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봅시다.

대중공양이 제불공양

혜안
(무량종 종정대행)



아름다운 자연에 고맙고 만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허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용서와 참회로 얼룩진 갑신년 한 해를 말끔히 씻고, 티없는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맑고 생기있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지난 세월 빚진 자연에 감사하고 부모형제 이웃 사회에 감사함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불공이 아니겠는가. '대중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으니.

창 종 공 고

世界佛教 海東 元曉宗

설립취지문

현대 한국불교사회 특성은 다양한 종파분립형태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화되어, 다양한 종교와 종파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긍정적 견지에서 보면 불교의 참여하는 교단의 발전과 함께 불교의 대승적 보살 사상을 다양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제시이기도 하다.
불타의 근본적 현대사상은 현대사회, 국가, 세계인류가 지향하는 인류문화의 역사발전과 평화로운 문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 정치체계, 민족 간의 갈등을 초극한 인간성 곧, 불성중심의 화해 평등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의 21세기에 요구되고 있는 그와 같은 종교사상은 불타의 근본사상을 회통한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一心의 本覺(깨달음)으로 종도들은 함께 뜻을 모아 종교, 교단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 전쟁 없는 無諍, 인류의 和解와 平和, 平等和合의 和諍의 역사를 창조하여 한민족의 平和統一을 발원하며 世界人類의 평화와 佛國淨土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에, 世界佛教 海東元曉宗을 創宗 선포하노라.

●宗 旨

1. 見成成佛 (견성성불) 2. 轉法教化 (전법교화)
3. 和諍平和 (화쟁평화)

●宗正教示

1. 定慧行願 (정혜행원) 2. 和合和諍 (화합화쟁)
3. 衆善奉行 (중선봉행)

입종공고

종조인 원효성사의 화쟁회통사상을 종단의 근본종지로 삼고, 현대불교의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본 종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찰. 스님. 포교사. 법사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등록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종자격 : 승려. 포교사 (법사)
2. 구비서류 : 이력서. 승려도첩. 종단신상명세서작성
3. 자세한 내용은 총무원으로 연락요망

세계 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 총본산 보광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번지
■ 전 화 : (042)283-5896
■ 휴대폰 : 011-769-0300 (동화스님)
■ 팩 스 : (042)285-0108

종정 벽운 해광 대종사 신년법어

甲申年 多事多難한 해가 去하니
雲霽淸天 如杲日
貪嗔煩惱 不起處
一切衆生 寂靜心
世界人類 大和諍
乙酉新年 全國民
太平安政 大發願.

갑신년 다사다난한 해가 가니
어두운 구름이 맑게 개고
맑은 하늘에 해가 솟으니
. 탐내고 어리석고 번뇌망상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 일체중생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로다.
. 따라서 세계인류가 갈등과 투쟁하지 않고
큰 화합과 평화를 이룬다.
바라건데 을유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태평안정한 가정과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노라.

임원 및 발기인 명단

종 정 : 벽운 해광

종 회 의 장 : 창해 종수 / 원 로 원 장 : 근봉 성학 / 총무원장 : 법공 정산
규 정 원 장 : 동운 혜원 / 교 육 원 장 : 청화 보명 / 교무부장 : 갈성
종책기획실장 : 동화 영락 / 총 무 부 장 : 상운

서울 동작구 종무원장 : 근봉 / 강원 종무원장 : 법성 / 충남 종무원장 : 혜종
울 산 종 무 원 장 : 지혜 / 경남 종무원장 : 상운 / 경북 종무원장 : 남운

갈성. 경운. 광운. 금봉. 남운. 대영. 도응. 도일. 득원. 법경. 법성. 법은. 보문. 보경. 상운. 선예. 성관. 성문. 성일. 성해. 운영. 운일. 연화. 원공. 원오. 원욱. 월산. 은덕. 일봉. 일륜. 정효. 재연. 지밀. 지상. 지혜. 진공. 진광. 청산. 청화. 태운. 해초. 현덕. 현응. 혜광. 혜득. 혜정. 해원. 해일. 김점순. 김현모. 박해원. 보리심. 이대우. 이수봉. 황순례. 황선국. (가나다순)

부설 : 1. 원효사상 사회교육원 2. 사회복지 문화원 3. 국제불교 포교원

※ 종단 주요 원장, 부장, 종회의원, 전국 교구 종무원장 으로 직무를 수행코자 하는 스님들 께서는 총무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구현되도록 나눔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해에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은 법보시 운동과 나눔 성금 모금을 통한 자비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나눔단체'라는 코너를 마련해 나눔활동을 펼치는 단체의 활동을 취재해 소개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 성금' 보내주신 분

동방암신도회 – 551,600 길상사-128,910 울산지원 -258,940 광명선원-2,122,590 이제권-50,000 이현이-50,000 반여3어린이집-700,000 박해석-818,940

총 4,680,980원

총 누적금액: 34,346,120원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종단·시민단체 성금 모금·현지 구호활동

12월 26일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 및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해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이번 지진 · 해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9개국에서 모두 6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계종은 피해를 당한 국가 및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국민적 지원을 호소하는 총무원장 담화문을 12월 27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도 피해국의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열린 종무회의를 통해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성금모금을 결의하고 피해국가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내는 한편, 1월중 피해국가 대사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성금모금 동참 협조공문을 전국 교구본사에 발송했으며, 전국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타종 행사시 재난구호 성금모금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모금활동을 통해 접수된 성금과 구호물품은 추후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9일 종무회의를 열고, 전국 사찰에서 남아시아돕기 성금을 모금키로 결의했으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남아시아 돕기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예정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2월 31일 종립 위덕대에 유학중인 스리랑카 실라 스님을 현지로 파견해 피해복구성금 시얌종에 전달했다. 또 12월 27일부터 1월 27일까지 스리랑카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 심인당별로 전개하기로 했다.

구호를 위한 불교계 NGO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국JTS(대표 유수)는 27일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 28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주재 대사관을 방문해 각각을 방문해 2,000달러를 전달했다. 또한 28일에는 스리랑카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운영하는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본부에 5,000달러를 기증했다. 인도JTS도 기술학교 학생들과 마을 리더 15명이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 28일 남인도 타밀나두주로 출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은행계좌 및 휴대폰 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해 모금활동을 벌인 뒤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를 통해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사동참 본사는 29일 조계종 사회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문의 02)2278-3417 재가연대

한편 본사는 12월 29일 조계종 사회부에 동남아시아 지진피해성금 133만원을 기탁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작은보시로 많은 장병들이 불법을 만납니다"

나눔단체 **향지모임 11년째 군포교**



태풍부대 군법당에 성금 전달하는 모습.

"군법당에 나오는 불자의 98%가 처음 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학생회 활동한 사람은 2%밖에 안됩니다"

경기도 최북방 연천지역 향지모임(회장 박미영) 회원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도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1년간 경기도 북부지역 군 법당에 나오는 장병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향지모임 70여명의 회원들은 회비전액과 수산물판매, 일일찻집 등으로 모은 기금으로 현재 5사단과 28사단 20여곳의 군 법당을 찾아다니며 불자 장병들에게 떡국, 초코파이, 커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군 법당 건립, 부처님 개금불사는 물론 음식물을 후원한다. 지역 내 백혈병 어린이 지원, 무의탁노인 돌보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불교고아원 김장보시 등의 활동도 열심이다.

연천군 전곡읍에 향지모임의 싹이 돋은 것은 1993년. '군사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살행을 하자'고 부처님 전에 발원한 회장인 박미영 총무 명공주 보살은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대법당을 찾아가 법당을 청소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터다. 98년 결성된 향지모임은 현재 후방의 장병가족과 군포교에 뜻있는 불자들을 상대로 후원자를 찾고 있다.

후원회원은 매달 초, 향, 차등의 법당 사용물품이나 보시금을 보내주면 된다. 문의 031) 832-0719.

김원우 기자

태풍부대 신병교육대 법당 건립 도와주세요

"70년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법당이 비만 오면 물로 흥건했습니다. 천장은 곰팡이가 슬고..., 안되겠다 싶어 아무런 대책없이 공병대에 부탁해 건물을 부숴버렸습니다"

태풍부대 군법사인 원융 스님은 지난해 10월부터 강당 한 켠을 빌려 만든 임시법당에서 담담하게 신병교육대에 법당이 없는 사연을 들려줬다.

매주 인근 포병부대 불자장병을 합해 300여명이 찾는 태풍부대 신병교육대 '문수법당'은 50평 규모이다 보니 함께 법회를 보기도 힘들었다.

100평 규모로 5월경 완공예정인 태풍부대 신교대 법당은 현재 도선사와 군승단의 8000만원 후원으로 기초작업에 이어 철골조가 올라간 상태다. 019-615-8114.



꽉 채운 '나눔의 손길'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한 불자들이 보내준 나눔 저금통이 수북하다. 사진은 동전으로 꽉 채운 원숭이 저금통을 본사 나눔의 손잡기 담당자들이 털고 있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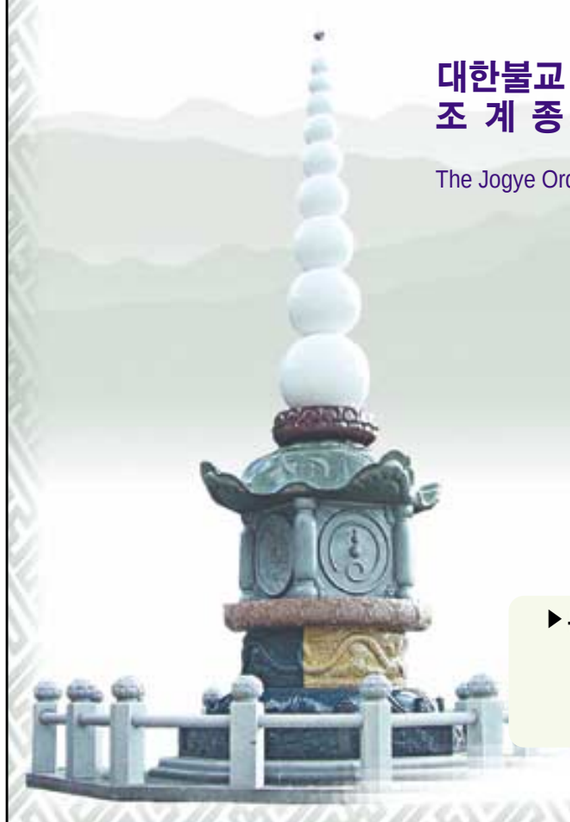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Vancouver (벤쿠버 지원)
14069 104 Avenue Surrey, B.C.V3T1X4 CANADA
TEL : 1-604-582-8234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종교는 본래 화합이다

지구촌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종교 갈등'이라는 도화선을 늘 안고 있다. 특히 2004년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과 정장식 포항시장의 홀리클럽 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종교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의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상생의 가르침으로 하나 될때



좌담에 참가한 이동연 목사 · 지원 스님 · 홍창진 신부 · 윤원철 교수(사진 오른쪽부터)는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참 가 자

- **지원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 **홍창진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총무)
- **이동연 목사**(인천 한누리교회 담임목사)
- **사회: 윤원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단체 · 시설 · 인구 팽창… 사회적 '권위' 약화
다른 종교 인정 않는데서 각종 갈등 반목 생겨

●윤원철 교수(이하 윤): 오늘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의 성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가지는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서 종교 사이의 갈등이나 위기감도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간혹 심심찮게 종교간 불화의 씨앗이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근래에 일어났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과 정장식 포항시장의 '성시화' 발언 등으로 불거진 종교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종교가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재의의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동연 목사(이하 이): 1990년대 후반부터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라나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국교(國敎)로서 나라의 지원으로 발전했고 개신교는 이승만 정권 시에, 가톨릭은 장면 정권과 함께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종교가 혼자 오롯이 나아가야 할 때다. 각 종교들이 권력의 외피에 힘입지 않고 창시자들이 추구했던 최초의 이상(理想)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창시자들을 브랜드로 내세워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불교가 없었다면, 한국인이라는 지금의 정체성이 있었을 것인가. 개신교 없이 근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며, 가톨릭의 노력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종교후기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교가 감응을 주지 못하고, 지치면 잠시 찾아와 쉬고 상담을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너무 가벼워진 것이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 개인과 사회의 구원의 문제, 인간 존재를 확인해주는 중대한 책무 말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벤트 위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때 반짝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지원 스님(이하 지원): 전적으로 동감한다. 종교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한 회향정신, 나눔정신 등과 관련짓는다.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 즉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강자는 약자에게, 가진 자는 못가진자에게 나눔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 나눔은 물질적인 것도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부분 역시 중요한 것이다. 고통 받고 신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불교의 자비정신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 과거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현 젊은 세대일수록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불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종교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부족했다고 본다. 이는 각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 요즘에는 순수신앙으로서의 종교의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능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된다. 일체치하에서는 종교인들이 중심에 되어 민족의 문제에 적극 나섰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주독립이 있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인권, 환경, 통일, 복지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가 중심이 되어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각 종교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종교의 역할을 대사회적으로 회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실천에 있어 자신의 종교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들이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잘 이뤄진다면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홍창진 신부(이하 홍): 종교가 존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과 세계의 구원이다. 우리나라는 굴곡 많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고 그 속에서도 계속 파생이 되어 '종교백화점'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종교가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은 패권을 차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서만 알뿐 서로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같은 종교간 대화를 위한 단체도 만들어져있다. 하지만 신도들의 의식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이웃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 학부모회 같은 데서 종교문제로 싸우는 일도 있다고 한다. 종교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도 사실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최근 들어 교회나 성당, 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종교란 신도가 있어야 유지되므로, 설교를 할 때 다른 종교를 좋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국민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신도로 육성하려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홍: 모든 종교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행동원리가 있다. 그래서 서로 교인을 끌어오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개신교에서 보자면 교인을 끌어오려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신자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지원: 불교는 교리체제 등에서 관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백화점과 같은 현실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나마 잘 지내고 있다. 중동 이슬람교만 봐도 내부 교파 때문에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있다. 불교가 한국의 종교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교세를 펴 나가려고 한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용해시킬까를 고민하기도 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다가섰을 때 불교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일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했던 분들이라 운을 떼니까 말이 봇물처럼 흘러나온다. 단숨에 종교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 등을 짚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날에도 종교적 이상이 갖는 의미는 퇴색하지 않았고, 종교가 개개인과 전체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하지만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에 종교도 그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종교도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이익집단이나 심지어 '장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었다.

아마 세계에서 한국처럼 다종교인 곳도 없을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이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의 자기신앙 표출, 운동선수들의 종교적 세레모니를 비롯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문제, 기업의 종교 강요, 기업 내 종교의례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개방적 종교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까지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각자 종교 내부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종교후기사회를 정확하게 묘사한 말인 것 같다. 종교후기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내려는 행태가 보인다. 축구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했을 때 타종교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신의 종교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골방에 틀어박혀 혼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 진정한 모습일까?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 신심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종교가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결국은 '상담자'나 '치유자'로서만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홍: 이제는 종교가 공적인 위치나 권리를 놓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종교인들이 대화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70퍼센트가 종교인이다. 하지만 지금은 종교 일반과 종교인이 존중받고 있는가? 권위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때 종교인들간의 대화가 급선무다. 성직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공동선(共同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윤: 그동안의 종교화합이라는 것이 지도층이나 학자들의 고준담론에 불과했다. 어쩌면 일부러 더 깊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7면으로 계속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불기 2549(2005)년 乙酉年
"수행과 참회로 불국정토 세우길 서원합니다."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이 사 장 도형
총무이사 정관
재무이사 대운
교무이사 자민
기획이사 법진
이 사 보운 우록 영주 상원 성우 정수 정덕 보관
감 사 철오 덕인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사무국 |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주지 성광
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인의 종교인식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사회에서도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6.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종교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봄으로써 '상생'의 시대를 열어보자는 의미로 각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 '종교화합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은 2004년 12월 23일 본사 사랑방에서 진행됐다.

종교는 본래 화합이다

개인·사회 구원의 역할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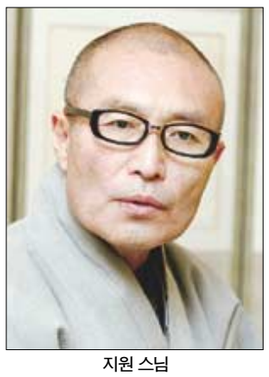
☞6면에서 계속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종교의 침체는 같이 사느냐 같이 죽느냐의 문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홍: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나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다. 종교인들이 대화를 통해 공동 모색을 시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종교간의 대화가 급선무일 것 같다. 천주교의 경우 현재 이웃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등의 문제도 논의해 왔다. 종교 신념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늉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동안 그러한 자리가 적잖게 있어왔지만, 지도층들의 친목모임이나 학자들의 고준담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종교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개개의 발언 수준에 머무르며 무시당하고 있다.

윤: 프랑스는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하고 다니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을 만큼 종교의 공적인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반면 아직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 우리도 서



지원 스님

지원 스님 불화의 피해자는 결국 종교인들

홍창진 신부 지도자들이 공동선 모색 나서자

둘러 종교의 공적 표현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개방할 것인가를 합의하고 설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교리에 대한 내용에만 치중해 있었다. '개신교나 불교가 추구하는 바가 같다'거나, '극락이나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반 종교인들의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 정도 수준을 종교대화라고 한다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고등종교에서는 생명을 신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신의 영역에서 구원, 해탈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생명이 인간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 생명복제이니 생명창조니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종교가 인간을 섬기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직자들일수록 현장 속에서 인간을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종교화합을 위한 행사나 기자회견 등의 연출로는 일반인들에게 종교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다.

지원: 서울시 봉헌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시장의 행동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들을 이끌어줘야 할 성직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 국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종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을 역시 종교인의 한 사람이므로 종교에서의 자비와 관용의 정신으로 이끌어준다면 이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홍: 무엇보다 종교 간의 대화가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을 통해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탁상공론을 벌인 것이 끝이다. 연출된 액션들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예술제 정도만 함께 개최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논의해야 한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일치문제'로 그 간극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 집안 식구들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일치 기도회를 한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가톨릭에서 함께 할 개신교 관련 단체를 구하고 있다.

가톨릭과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현수막 등을 통해 서로 축하를 나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중앙의 대화채널이 전국에 확대돼야 한다. 이 같은 대화가 거듭 이뤄지



홍창진 신부

면 이 사회에서 종교가 인정받을 수 있고 종교 가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도 단위에서 종교간 지역 채널을 만들어서 동네 성직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함께 모여 중앙에서 나눈 얘기들 함께 나누고 '공동선'을 만들고 있다는 모습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안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윤: 지역까지 그런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화 이전에 당장 우리사회에서 종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활동 실행계획이 없는 것 같다. 언론에서 선행에 대한 보도가 자주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이 종교인들이다. 이러한 일이 한 두 개 특정 종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홍: 바로 그러한 조직을 갖추자는 것이다. 조직이나 환경, 인권, 통일, 복지 등의 이슈가 없이는 대화도 없다.

윤: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종교들은 단체에서 꼭 종교 의식을 행한다. 기도나 찬송, 예불 등이 종교인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다.

이: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는 각 종교의 특색은 제외해 둬야 한다. 봉사를 할 때는



이동연 목사

사회봉사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봉사가 선교나 포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우이웃에게 쌀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조건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공적인 영역을 구별한다면 종교간의 화합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지원: 복지관 운영 등 교계 차원에서의 복지 활동은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끝내야지 종교인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최고 덕목은 무주상보시다. 내가 도와줬다는 것 그 자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평생을 콩나물, 두부 장사해서 모은 돈을 학교에 기증한 이가 있었다. 무종교인이었지만, 회향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 등을 교육계에 환원하는 것이 예수, 부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더라.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보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오늘날 '종교의 위기'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제자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종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인류, 개개인에게 모두 불행한 것이다. 종교의 의의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도 불행이다. 종교가 제 역할을 본령에 충실하고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알맞은 종교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갈등 에피소드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맞고 있는 위



윤원철 교수

이동연 목사 인간 섬기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윤원철 교수 역사·사명의식 확립 선행조건

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인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종교간 대화가 풀뿌리 사회로까지 이어지기 위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간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당장 종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원: 사립학교 중에서 개신교 학교가 많다. 그로 인해 종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미션스쿨이라도 개신교 교리만을 얘기하지 말고 타종교 교리도 가르쳤으면 한다. 종교 갈등은 우리 세대에서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이: 세속사회는 탈중심, 탈권위 사회이고 중심과 변방의 순환이 매우 빠르다. 예전에는 속칭 종교 지도자, 사회 명망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거기에 속한 단체들이 그 뜻에 따랐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의 권위도 추락했다는 말이 오간다. 모든 가치가 붕괴되고 분열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은 종교가 자본주의에 의해 실종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자본이 아닌 인간성 그 자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 종교들도 그 역할을 가치교육으로 전환한다면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

홍: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다. 한국 종교가 대부분 자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 구원과 개인구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인구원 쪽으로 맞춰가다 보니 성장주의로 기울고 있다. 이웃종교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에 대한 대안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국소적인 주제의 대화를 넘어 환경이나 지역사회 문제 등의 공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웃종교를 의식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센스를 키울 수 있다. 공동선을 모색하는 지역채널을 만들어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지원: 2004년에는 서울시장, 포항시장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라면 한시적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공적인 자리에서의 종교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성숙한 해결책은 종교 내부에서 종교인들끼리 그런 문제 사전에 스스로 합의에 의해 방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다.

지원: 종교 갈등이 빈번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 법률이라는 외적강제에 의해 종교의 영역을 침해당하기 전에 종교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야 한다.

홍: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리=여수령·강신재 기자

능인선원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 불사 봉행

인재육성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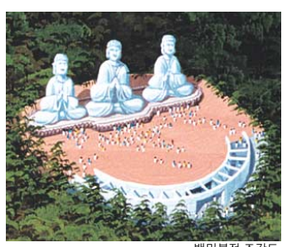
1600여년을 자랑하는 우리 불교역사! 1천만이 넘는다는 불교 신자들! 그러나 우리나라 27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타종교 계통 대학은 203개, 정통불교를 표방하는 조계종 산하 대학은 스님들 양성소인 승가대를 제외하고는 단 한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또한 포교와 전법을 위한 인력의 부족은 한국불교의 앞날을 불안하게 합니다.

능인선원은 그동안 쌓고 모아온 힘으로 단일사찰로는 초유의 대학건립 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대학은 수행자의 양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내외로 펼칠 수 있는 동량을 육성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대학건립이란 크나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먼저 백만불 봉안 불사를 시작합니다.

백만불전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건립은 물론 불법 동량의 육성을 위한 각종 기금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되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대학건립 백만불 불사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공덕주가 되어보십시오.
위대한 복덕의 금자탑을 세우십시오.



백만불전 조감도



미국 능인선원 불교명상대학 전경

● 백만불 불사 동참비 : 1인 1부처님 30만원
● 문의 : 능인선원 불사본부 577-5800 교 281



화성 불교대학 조감도

Nungin Sunwon 능인선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02)577-5800 Fax:577-0052 www.gotobuddha.org

능인 장학생을 모십니다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능인선원 장학금은 학인스님, 해외유학생, 기타 학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훌륭한 스님을 키우기 위한 불사로 수많은 장학생을 양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지급한 액수만해도 2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인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업뿐만 아니라 포교 등 불교 각 분야에 능력있는 스님과 불교를 전공한 일반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뜻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하셔서 한국불교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의 자격
① 불교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평점평균B+ 이상) 품행이 방정한 사람
② 한국불교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사람
③ 불교 신도의 자제로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사람
④ 기타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법인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양식1)/연구비 지원 신청서(양식2)
② 추천서(양식3)

■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1학기 단위로 하되, 학부이상의 학생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에 연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따로 연구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문의 : 능인불교선양원 577-5800 교 210

종립 초·중·고생 종교의식 조사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종교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본지가 종립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2월 1일~20일 전국의 28개 초 · 중 · 고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지는 총 2,800부를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24개 학교 2,254명이 응답했다.

마음 평안 얻기위해 종교 믿어요 68.9%

불교 신자 29.8%, 호감도 22.3%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불교를 믿는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 사진은 명성여중에서 열린 교학발표 수업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68.9%) 종교를 갖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된다(47.4%)고 여기고 있다. 불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 33.2%인 가운데 호감이 22.3%로 반감 12.1%보다 높았고, 청소년들은 친구(29.1%)와 가족(13.2%)의 권유로 개종을 고려했다.

또한 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의식(14.1%)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13.3%)는 불교가 시급히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22.6%)이 불만족(16.3%)보다 다소 높았고 재미있고(22.5%) 불교를 알 수 있어서(16.3%)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전국의 초 · 중 · 고 24개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립학교 청소년 종교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2,254명 가운데 불교신자는 29.8%(671명), 개신교 20.6%(465명), 가톨릭 10.0%(226명), 기타종교 4.1%(93명) 등 종교신자가 64.5%, 무교가 34.9%(786명)로 나타났다.

■ 가족과 종교일치 (60.4%)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가족 종교 일치도를 살펴보면 가족 모두 믿는 경우(60.4%)가 가족 일부(30.9%)와 본인 혼자 믿는 경우(8.5%)보다 훨씬 많았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이 호감을 표시한 종교는 가톨릭(13.1%)이 불교(11.7%) 개신교(9.5%)보다 높게 나왔다. 무교인 청소년들은 불교(10.2%)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7.7%) 가톨릭(5.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 믿음 실생활 도움준다 (47.4%)

종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도움(17.2%), 다소 도움(30.2%)이 별로 도움되지 않음(13.4%)과 전혀 도움되지 않음(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68.9%가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종교를 믿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환경 따라 종교 드러내 (47.3%)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편(24.1%)보다 드러내는 편(27.3%)이 약간 높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종교를 알리는 경향(47.3%)이 높아 장소와 환경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신앙의 표시인 염주, 십자가 등을 몸에 지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 권유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거나(10.3%), 상대방의 반응보아 권유(29.1%)하는 청소년보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권유하지 않는(54.4%)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보였다.

■ 개종의사 전혀 없다 (82.4%)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비교적 확고한 편이었다. 개종의사를 묻는 질문에 82.4%가 개종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15.6%만이 개종을 생각해봤음을 드러냈다.

개종을 생각했거나 개종한 이유로는 친구의 권유가 29.1%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권유(13.2%),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한 실망(11.4%), 성직자의 권유(5.3%), 교리 때문에(5.3%) 등을 들었다.

■ 종교에 대한 무관심 (46.4%)

무교인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46.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종교에 대한 불신(5.6%), 교리 이해가 어려워서(1.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1.3%) 등도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한번도 종교를 가져보지 않은 청소년은 41.0%로 종교를 가진 적이 있는 청소년(35.2%)보다 약간 높았다. 종교가 있었던 청소년 가운데 개신교 신자였던 비율은 49.5%로 가톨릭(16.7%) 불교(16.3%)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30.9%)와 무응답(44.3%)이 75.2%로 여전히 무관심을 드러냈고 관심을 표명한 청소년들은 불교(10.2%) 개신교(7.7%) 가톨릭(5.6%)의 순으로 호감을 나타냈다.

■ 학교 불만족 (20.4%)

종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보통(31.5%)과 무응답(33.2%)이 64.7%나 차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또한 만족하는 청소년(14.9%)이 불만족(20.4%)하는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해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 이유로는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22.8%), 법회를 볼 수 있어서(15.7%), 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서(12.2%), 사찰에 갈 기회가 많아서(8.4%) 등이, 불만족 이유로는 종교를 강요받는 것 같아서(36.8%), 불교 분위기가 싫어서(17.7%), 종교가 다르거나(5.3%), 불교가 어려워서(0.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종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30.3%)과 무응답(30.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종립학교 재학 만족도가 저조했던 것에 비해 수업에서는 만족도(22.6%)가 불만족도(16.3%)보다 높았다.

종교수업이 재미있고(22.5%), 평소 궁금했던 불교를 알려주는데다가(16.3%), 선생님이 좋고(7.1%), 불교도 좋아서(4.2%) 만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불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29.4%로 가장 높았고 수업이 지루해서(22.3%), 교과과정과 관련이 없어서(22.0%) 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강의가 어려워서 불만족한 경우(1.9%)는 저조했다.

■ 불교하면 '부처님 · 스님' 연상

'불교'하면 부처님(39.0%)과 스님(22.2%)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절(11.9%), 사찰(4.1%), 염주(3.5%), 염불(2.9%), 부처님오신날(2.5%), 참선(2.2%) 등을 연상했다.

불교에 대해 호감(22.3%)을 나타낸 청소년들은 마음 ·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35.9%) 참여할 활동이 많은(10.1%) 점을, 반감(12.1%)을 나타낸 청소년들은 거부감이 느껴지거나(35.6%) 학업 ·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12.8%) 미신 같은(11.3%)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소년들이 바라본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살려나가야 할 점은 불교문화재 보존(20%)과 전통문화 보존(12.3%)을 꼽았으며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는 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의식(14.1%)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13.3%)를 지적했다.

긍정적인 측면에는 무소유 정신(8.9%), 조용한 분위기(8.2%), 수행 가풍(3.3%) 등과 믿음, 참선, 자연과의 조화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기타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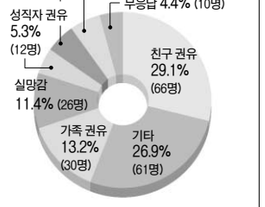
부정적인 측면에는 대사회 참여 부족-복지 봉사 구호활동 등(8.8%), 기복신앙(6.7%), 불편한 사찰 구조(6.1%) 등의 의견을 보였다. 기타 의견에는 사이비 승려 척결, 불교 수행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행위, 화려한 불사 · 돈 밝히는 스님 퇴출, 스님들의 부정부패 등을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꼽고 있어 종단의 청정함을 청소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고전적인 사찰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비해 다가서기 힘들다는 불평의 소리도 나왔다.

김원우 · 강지연 · 박봉영 · 김강진 · 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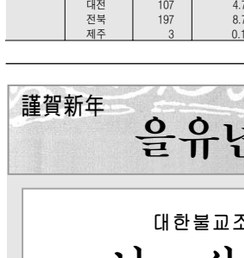
설문 참여학교 24개

광동중 · 고, 금산중 · 고, 금정중, 능인중 · 고, 동대부중 · 고, 동해중, 명성여중 · 고, 보문고, 영석고, 은석초등학교, 정광중 · 고, 진선여중 · 고, 청담중 · 정보고, 해동중 · 고, 홍제중 (가나다순)

종교 분포도



종교가 생활에 도움이 되나



개종했거나 개종 고민한 이유

종교수업 만족도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비율
	전체	2254	100.0(%)
성별	남자	1383	61.4
	여자	870	38.6
학교별	초등학교	97	4.3
	중학교	1124	49.9
	고등학교	1033	45.8
거주지별	서울	665	29.5
	부산 경남	459	20.4
	대구	163	7.3
	광주	199	8.8
	인천 경기	461	20.6
	대전	107	4.7
	전북	197	8.7
	제주	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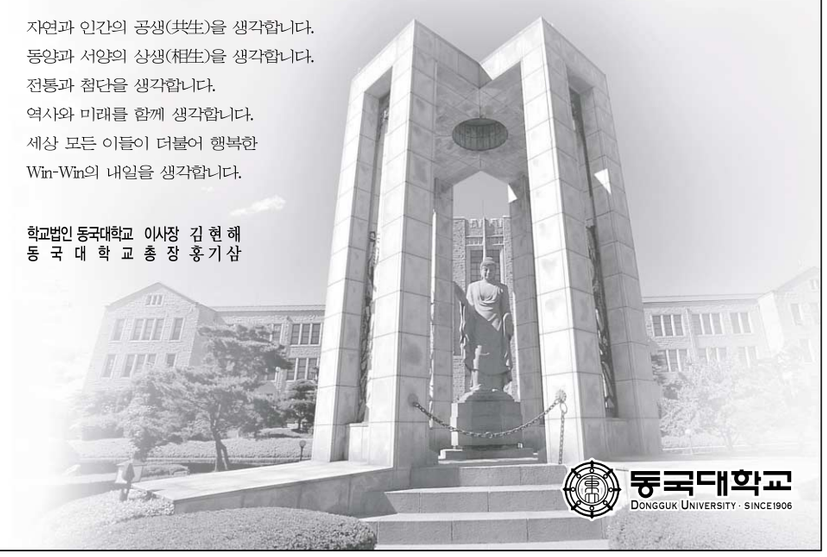
謹賀新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033)672-2447~8
FAX 033)671-1445

자비의 통일신발 후원을 위한
일일찻집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혜 총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573-1 반도프라자 101호
전화 051)322-7902 팩스 051)324-7902
이메일:02ok@korea.com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 해
대중일동
호국 및 약사여래영험기도 방생 도량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681-3644
FAX 033)682-1707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제6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교육일시 : 매주월요일 오후7-9시
• 원서접수 : 2005년1월10-3월14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불교신도회사무국
■ 전화 051)853-2021

謹賀新年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 현 해
동 국 대 학 교 총 장 홍 기 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1906

청소년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에 비해 불교에서 도움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 중에서는 개종의사가 없음이 80% 이상에 육박해 첫 종교가 그대로 굳어지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종립 초·중·고생 종교의식 조사

처음 믿음이 중요… 학교포교 중요성 확인

“개종의사 없다” 83%… 상급생 무종교 많아
중·고교생 ‘학업 도움 안돼’ 호감도 낮아

■ 상급학교 갈수록 불자 감소

청소년들의 종교의식은 초 · 중 · 고교 각급 학교별 또는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불교의 각급 학교별 분포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인원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들은 56.7%가 불교를 믿고 있었지만, 중학생은 29.9%로 급격히 감소했고 고교생은 초등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2%에 그쳤다. 이는 초등생 11.3%, 고교생 17.9%로 조사된 개신교와 대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또 무종교의 비율은 초등생 18.6%, 중학생 31.8%, 고교생 39.8%로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가족간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 초교생은 66.7%가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학생은 60.7%, 고교생은 58.8%로 고학년이 될수록 점차 종교를 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 · 고교를 다니는 시기에 가족간 공동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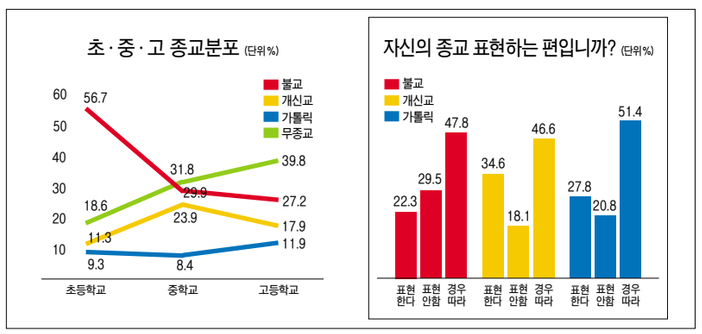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과 개성이 뚜렷해지는 현상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급학교로 갈수록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답변이 늘고, 경우에 따라서만 드러낸다는 응답은 점차 줄었다. ‘드러낸다’는 응답은 초교생 20%, 중학생 26.1%, 고교생 29.7%였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초교생 10.7%에서 중등생 23.9%, 고교생 26.5%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경우에 따라 드러낸다’는 응답은 초교생 68%, 중등생 49%, 고교생 43.8%로 점차 감소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특징은 개종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초등생 84%, 중등생 82%, 고교생 83.6%가 ‘개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처음 믿는 종교가 자신의 종교로 굳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범위를 좁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만, 반감도도 상당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결과다. 불교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에서 초등생은 34.4%는 호감을 느낀다, 8.3%는 반감을 갖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중 · 고교생은 호감도가 낮아지고 반감이 높아졌다. 중학생의 17.8%, 고교생의 25.2%가 호감을 느낀다고 꼽았지만, 중학생의 11.1%, 고교생의 13.5%는 반감을 느낀다고 했다.

호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생(70%)과 중학생(23.5%), 고교생(39.4%) 모두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반감을 느끼는 것은, 초등생은 ‘미신 같아서(35.5%)’ ‘거부감이 느껴져서(37.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중등생과 고교생은 ‘거부감이 느껴져서(34.7% 36.4%)’와 ‘학업에 도움이 안되서(11.3% 12.1%)’를 1, 2위로 꼽았다.



■ 청소년 불자 ‘역시’ 소극적

‘불자는 소극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확인됐다.

‘자신의 종교를 무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권유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 불자들은 2.9%만이 ‘적극 권장한다’고 응답했고, 74%는 ‘권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개신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21.7%가 ‘적극 권장한다’고 꼽아 청소년불자들의 7배를 웃돌았다. 가톨릭을 믿는 청소년들은 8.8%가 ‘적극 권장한다’고 응답했다.

친구에 종교권유, 불교 2.9% 개신교 21.7%
불자들 가톨릭에 호감, 법회 참석 만족
“학교만족”, 불교 29% 개신교 7% 가톨릭 11%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느냐’는 다른 문항에서도 개신교 청소년들의 적극성이 드러났다. 청소년불자들은 22.3%가 ‘드러낸다’고 답했지만, 개신교는 36.6%, 가톨릭은 27.8%가 ‘드러낸다’고 선택했다.

청소년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에 비해 불교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종교가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불교를 믿는 청소년들의 34.9%만이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1%나 됐다.

이에 반해 개신교와 가톨릭을 믿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큰 도움을 얻고 있었다. 개신교 청소년들은 ‘도움이 된다(61.2%)’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11.4%)’는 답변 보다 5배나 많았다. 가톨릭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청소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꼽은 18.6%의 3배가 넘는 55.8%에 달했다. 그러나 3대 종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모두 도움을 받는 요소로 ‘마음의 평안(6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불자 17.8%, 개신교 신자 12.3%, 가톨릭 신자 14.6%가 개종했거나 개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불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준 결과다.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불자들은 친구의 권유(33.3%)와 가족의 권유(15.8%) 순으로 꼽았고, 개신교 신자들은 가족의 권유(24.5%)에 이어 친구의 권유(17.5%)를 선택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친구의 권유(24.4%), 신자의 행태(12.2%) 순으로 응답했다.

자신의 종교 외에 호감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3대 종교를 믿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없다’고 답한 결과는 눈길을 끈다.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다른 종교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다.

불자들은 호감 가는 종교로 15.3%가 가톨릭을, 10.8%가 개신교를 꼽았다. 개신교 신자들도 16.3%가 가톨릭을 가장 선호했고, 12.4%는 불교를 꼽았다.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7%)보다 불교(23%)에 더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종립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불자들은 불만족(14.3%) 보다 만족(28.6%)이 높았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27.0%, 23.8%로 만족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원우 · 강지연 · 박봉영 · 김강진 · 유철주 기자

설문항목

zQ4.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①불교 671(29.8%) ②개신교 465(20.6%)
③가톨릭 226(10.0%) ④기타종교 93(4.1%)
⑤무교 786(34.9%) ⑥무응답 130(6.6%)
■종교인 문항
1. 본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가족들은 얼마나 되나?
①본인 혼자 124(8.5%) ②가족 일부 450(30.9%) ③가족 모두 877(60.4%) ④무응답 4(0.2%)
2. 종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나?
①매우 도움이 된다 250(17.2%) ②다소 도움이 된다 439(30.2%)
③보통 454(31.2%) ④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5(13.4%) 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3(7.8%) ⑥무응답 4(0.2%)
2-1. (문 2의 ① ②번 응답자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
①학업 31(4.5%) ②교우관계 51(7.4%) ③가족관계 52(7.5%)
④마음의 평안 475(68.9%) ⑤기타 6(9.7%) ⑥무응답 13(1.9%)
3. 종교에 대한 믿음의 표시인 염주 십자가 등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①그렇다 295(20.3%) ②그렇지 않다 1121(77.0%) ③무응답 39(2.7%)
4. 자신의 종교를 남에게 드러내는 편인가?
①드러내는 편이다 397(27.3%) ②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350(24.1%)
③경우에 따라서만 드러낸다 689(47.3%) ④무응답 19(1.3%)
5. 혹시 종교를 바꿨거나 바꿔 볼 생각을 한 적이 있나?
①있다 227(15.6%) ②없다 1199(82.4%) ③무응답 29(2.0%)
5-1.(문 5의 ①번 응답자만) 이유는 무엇인가?
①가족의 권유로 30(13.2%) ②친구의 권유로 66(29.1%) ③성직자의 권유로 12(5.3%) ④교리 때문에 12(5.3%) ⑤신자 행태 때문에 8(3.5%) ⑥믿고 있던 종교에 실망을 느껴서 26(11.4%) ⑦보시금(성금) 강요 2(0.8%) ⑧기타 61(26.9%) ⑨무응답 10(4.4%)
6. 본인이 믿는 종교 외에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인가?
①불교 170(11.7%) ②개신교 139(9.5%) ③가톨릭 191(13.1%)
④기타 43(2.9%) ⑤없다 881(60.5%) ⑥무응답 31(2.1%)
7. 거부감 혹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종교는 무엇인가?
①불교 269(18.5%) ②개신교 212(14.6%) ③가톨릭 149(10.2%)
④기타 151(10.4%) ⑤없다 651(44.7%) ⑥무응답 23(1.6%)
9. 무종교거나 타종교인 친구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 본 적이 있나?
①자신의 종교를 적극 권장한다 150(10.3%) ②상대방의 반응을 보아 권유한다 424(29.1%) ③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서 권유하지 않는다 792(54.4%) ④기타 62(4.3%) ⑤무응답 27(1.8%)
■ 비종교인 문항
10.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있나?
①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1.3%) ②종교에 대한 불신 44(5.6%)
③교리 이해가 어려워서 11(1.4%) ④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366(46.6%) ⑤기타 47(6.0%) ⑥무응답 290(36.9%)
11. 종교를 가진 적이 있나?
①있다 277(35.2%) ②없다 322(41.0%) ③무응답 187(23.8%)
11-1.(문 11의 ①번 응답자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①불교 45(16.3%) ②개신교 137(49.5%) ③가톨릭 46(16.7%)
④기타 5(1.8%) ⑤없다 10(4%) ⑥무응답 42(15.3%)
12.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나?
①불교 80(10.2%) ②개신교 61(7.7%) ③가톨릭 44(5.6%)
④기타 10(1.3%) ⑤없다 243(30.9%) ⑥무응답 348(44.3%)
■공통문항
13. 종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나?
①매우 만족 81(3.5%) ②만족 256(11.4%)
③보통 711(31.5%) ④다소 불만족 292(12.9%)
⑤매우 불만족 169(7.5%) ⑥무응답 745(33.2%)
13-1.(문 13의 ① ②번 응답자만)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법회를 볼 수 있어서 53(15.7%) ②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서 41(12.2%) ③사찰에 갈 기회가 많아서 28(8.4%) ④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77(22.8%) ⑤기타 48(14.2%) ⑥무응답 90(26.7%)
13-2.(문 13의 ④ ⑤번 응답자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불교가 어려워서 4(0.8%) ②불교 분위기가 싫어서 82(17.7%)
③종교가 달라서 24(5.3%) ④종교를 강요받는 것 같아서 170(36.8%)
⑤기타 30(6.6%) ⑥무응답 151(32.8%)
14. 종교수업에 대해 만족하나?
①매우 만족 20(8.3%) ②다소 만족 30(13.3%)
③보통 68(30.3%) ④다소 불만족 19(8.7%)
⑤매우 불만족 17(7.6%) ⑥무응답 69(30.8%)
14-1.(문 14의 ① ②번 응답자만)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재미있어서 115(22.5%) ②평소 궁금했던 불교를 알 수 있어서 83(16.3%) ③선생님이 좋아서 36(7.1%) ④불교가 좋아서 21(4.2%) ⑤기타 31(6.1%) ⑥무응답 223(43.8%)
14-2.(문 14의 ④ ⑤번 응답자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강의가 어려워서 7(1.9%) ②수업이 지루해서 82(22.3%) ③교과과정과 관련이 없어서 81(22.0%) ④불교에 관심이 없어서 108(29.4%) ⑤기타 35(9.6%) ⑥무응답 54(14.8%)
15. ‘불교’에 대한 느낌은?
①매우 호감 250(11.0%) ②다소 호감 254(11.3%)
③보통 749(33.2%) ④다소 반감 171(7.6%) ⑤매우 반감 101(4.5%)
15-1.(문 15의 ① ②번 응답자만) 호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마음(정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서 181(35.9%) ②학업(생활)에 도움이 되서 152(9%) ③절(스님)이 좋아서 35(9.9%) ④참여할 수 있는 활동 많아서 51(10.1%) ⑤불교의 대사회 활동(복지 봉사 등)이 좋아서 142(7%) ⑥기타 27(5.3%) ⑦무응답 181(35.9%)
15-2.(문 15의 ④ ⑤번 응답자만) 반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미신 같아서 31(11.3%) ②거부감이 느껴져서 97(35.6%) ③학업(생활)에 도움이 안되서 35(12.8%) ④사찰(스님)이 무서워서(싫어서) 15(5.6%) ⑤불교의 대외활동이 부족해서 11(4.1%) ⑥기타 14(5.2%) ⑦무응답 69(25.4%)
16. 관광 외의 목적으로 절에 가본 적이 있나?
①있다 740(32.8%) ②없다 649(28.7%) ③무응답 865(38.3%)
17.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살려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조용한 분위기 186(8.2%) ②수행 가풍 73(3.3%)
③불교문화재 보존 453(20.0%) ④전통문화 보존 275(12.3%)
⑤무소유 정신 201(8.9%) ⑥기타 74(3.3%) ⑦무응답 992(44.0%)
18. 불교의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시급히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대사회 참여 부족(복지 봉사 구호활동 등) 200(8.8%)
②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의식 319(14.1%)
③불편한 사찰 구조 138(6.1%)
④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300(13.3%)
⑤기복신앙 149(6.7%)
⑥기타 147(6.5%) ⑦무응답 1001(44.5%)

※전체 설문항목은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포교 문제점과 대책

본지가 전국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멀다'는 결과가 나왔다. 포교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는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한다. 청소년 포교현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눈높이 맞춰 찾아가면 외면 안해

- **일시** : 2004년 12월 20일
- **장소** : 본사 사랑방
- **참가자** :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정운 스님(보령시 청소년상담실장)
  김형중 법사(전국교법사단 단장)
- **사회** : 김원우 차장

▲서울 · 경기지역 조계종 사찰 853곳 가운데 13곳에만 청소년법회가 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포교가 위축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일관 스님(이하 일관): 규모가 작은 사찰은 원력을 내서 포교에 나서는 곳이 많은데 큰 사찰이 오히려 포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청소년들의 성향도 종교에 관심이 없다보니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인터넷등 사회적인 환경변화도 청소년포교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운 스님(이하 정운): 청소년 포교현장에 서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일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사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청소년지도자가 거의 없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김형중 단장(이하 김형중):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입시를 앞두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불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시스템을 갖춘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반해 불교계는 '선(禪) 지상주의'에 빠져 청소년포교에 관심조차 부족합니다. 종단에서도 포교를 위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지요. 포교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종교의 경우 어린이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회 등으로 나누어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포교대상 비불자로 확대해야

▲청소년 포교를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문결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도구가 프로그램인데요.

일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단체 지원, 지도자 양성 등 개별 사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종단에서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바탕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사찰에서 청소년법회에 양질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사 중에는 일반 불자들도 있고, 교법사들도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있는데 활용이 안되는 게 문제입니다.

정운: 종교가 없거나 갈등하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찰은 그들을 신도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찰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없다면 희망도 있을 수 없겠지요.

김형중: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입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단일인물로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가 출제비중이 가장 높아요. 불교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아요. 이를 포교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단에서 청소년포교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두어 대입시험과 연관된 교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일관: 청소년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합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살린 놀이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사찰은 사찰대로, 청소년단체는 단체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지역별 학교에 있는 학생회와 사찰학생회가 연대해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중간지도자에 성패 달려

▲지도자 양성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청소년 단체나 시설등에 청소년지도사 의무 채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관련 법제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종립대학, 청소년단체, 신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중: 기독교에서는 교회마다 청소년 축제를 엽니다. 그러나 불교는 파라미타에서 대규모 연합캠프를 열기는 하지만 소규모 사찰까지 손이 미치기는 어렵죠. 따라서 지역별로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 지도자 모임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관: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이끌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성패가 중간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운: 청소년 지도자를 키워서 일관성 있게 청소년법회를 꾸려나간다면 청소년들을 사찰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종립대에도 청소년 지도학과가 없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립대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적 이념과 사고를 지닌 청소년지도사를 키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교, 사찰 밖으로 나와야

▲청소년 포교가 미약한 근본 원인에는 청소년 불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자로 남아있지 못하는 신행연계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김형중: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열심히 신행활동 했으면 대학교, 직장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불자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활동하고도 대학에 가면 대불련에 가입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조금 활동한 사람이나 많이 활동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아요. 중 · 고등학생회에서 졸업한 학생은 사찰과 연계가 되도록 하고 혜택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 대불련으로, 대불련에서 청년회로, 청년회에서 신도회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관: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이 연결되도록 청소년단체와 종단이 함께 교리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해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단에서 예산 지원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개개인의 원력에 맡겨놓고 있는 셈이죠. 청소년 단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이 종단 현실입니다.

▲본지 설문결과 불교계가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한글화 되지 않는 경전과 의식'을 꼽았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나 저술서가 많아 청소년들의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요.

김형중: 청소년에 맞는 우리글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청소년들은 용어자체부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불교가 끊임없이 시대에 발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일관: 어떤 스님들은 청소년들도 세월 지나면 대부분 불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도 불교와 인연을 맺어보지 못했는데 불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설사 불자가 된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아요. 스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자주만나 대화하고 관심 쏟자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불교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학생들에게 불교를 알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정운: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합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포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스님, 재가불자 할 것 없이 청소년에게 눈을 돌리고 포교기반을 다져 나갑시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한국불교에서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일관: 이제는 학교포교가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포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찰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지도하는 선생님과 사찰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김형중: 만해 스님의 <불교유신론>에 보면, 세력이 압도하여 세력이 포교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력이 있으면 포교가 절로 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포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도 모여들게 됩니다. 큰 절 짓는 것보다 한사람 포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박봉영 · 노병철 · 이은비 기자



일관 스님

포교 중요성 알면서도 종단 예산 부족으로 개인 원력에만 의존



정운 스님

청소년지도학과 개설해 전문 인재 양성하고 교구본사에 의무 배치를



김형중 법사

학년별 프로그램 갖춘 사찰 거의 없고 신행 연계 안돼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서울 실상선원 1000日 영가 천도법회 봉행
◆순국선열 천도대제 봉행

현재접수중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일각 지각 일광
총 무 곽동훈

대중일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법회후 한국과 미얀마 대중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미얀마선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여 스님(네번째), 우네온 미얀마 대사(여섯번째), 순드라 스님(여덟번째), 산디마 스님(열번째)의 모습.

"좋아요… 기뻐요… 열심히 정진 할래요"

여여선원 마얀마 한국선원 문 열던 날

'밍글라바(안녕하세요)' '뛔이 야다(반갑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가회동에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귀의처인 여여선원 미얀마 한국선원(원장 산디마, 이하 미얀마선원)이 다시 문을 연 날. 몸에 꼭 맞는 전통의상 론지(LonGyi)를 입고 있는 6명의 미얀마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 가회동 한옥촌 미얀마선원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한다.

정신적 귀의처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미얀마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미얀마인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듯 서로 껴안고, 악수한다.

새벽 3시에 출발했다는 부산 여여선원 신도들도 일찌감치 도착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개원식 행사를 돕고 있다. 국제포교사회, 미얀마선원 한국후원회 회원들도 축하차 앞다투어 와서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선원 대문에 들어서자 50여평의 한옥은 중간의 마당이 사라지고 입식구조로 개조돼, 포근함을 선사한다.

법당에는 미얀마에서 모셔온 남방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의 후광에 장착한 깜빡이 꼬마전등들이 이색적이다.

개원법회가 시작됐다. 법회는 한국식과 미얀마 의식이 가미되고,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해 세계화된 법회의 전형을 느끼게 한다.

이날 법회에는 개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육조사 선원장 현웅, 미얀마 순드라, 보덕사 주지 정안, 죽림정사 주지 정원 스님과 우네온(주한 미얀마대사관)대사, 암파이(주한 라오스 대사관) 대사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후원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와서 네차례나 이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모두가 불성이 있다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면 너와 내가 없어진다"며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진의 마음을 간직하고 일체 중생의 행복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와 불교가 서로 교류되는 법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행복하다. 우리의 본래마음인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며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산디마 스님이 이 행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개원법회가 끝난 후 참가대중은 정여 스님의 제안에 의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만남'을 합창하며, 미얀마선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법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미얀마 전통음식인 모힌가(쌀국수)가 공양으로 나왔다. 배식에 앞장선 아롱잠마, 자바실, 앙갈라마, 엉트윈 등은 신이나 연신 한국말로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라고 함께모여 외쳐댄다.

2000년부터 미얀마선원 신도인 엉트윈(35)은 "우리 미얀마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미얀마선원은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위빠싸나 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얀마 성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한국의 주요사찰 성지순례도 개최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센터역할도 할 계획이다.

미얀마 선원은 장기적으로 서울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미얀마 전통양식의 사찰도 건립할 계획이다. (02)762-5300

글= 김원우 기자 · 사진= 고영배기자

50여평 한옥 개조, 남방 불상 후광에 꼬마전등 '깜빡'
위빠사나 수행 · 양국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미얀마선원 개원 법회에서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미얀마인.

■ 전국에서 열리는 '외국인 법회'는?

몽골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불교국가 스님들이 한국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스님들은 자국어로 된 법회 개최 등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제공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도 영어법회 등을 열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스님들은 현재 각 사찰에 머물며 한국 불교를 배우거나 포교와 수행 지도 등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일조를 할 전망이다.

조계종이 파악하는 한국내 외국인 스님의 숫자는 모두 64명. 서울 연등불교국제회관 일보 스님(방글라데시), 파주 보광사 와치사라 스님(스리랑카), 부천 석왕사 나타나 스님(스리랑카), 서울 여여선원 미얀마한국선원 산디마 스님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일보 스님과 와치사라 스님은 주한스리랑카불자협회가 설립된 의정부, 파주, 부천 등을 돌며 순회법회를 열고 있으며, 산디마 스님은 최근 서울에 여여선원 미얀마센터를 새롭게 개원하고 불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권익보호 앞장
국내에 외국 스님 64명 수행중

초펠 스님과 나타나 스님은 직접 자국어 법회를 열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외국인 불자들을 위해 신행상담을 한다.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 무심 스님은 계룡사 무상사에서 외국인들의 수행을 지도한다. 대전 자광사와 서울 화계사는 영어법회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들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는 사찰도 다양하다.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운영하는 보성 대원사는 오래전부터 티베트 불교계와 교류하며 관련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구미 남장사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한다. 부천 석왕사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재마을의료회와 펼치고 있으며, 서울 조계사와 안산 보문선원, 인천 황룡사는 2005년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마련하거나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역시 2004년 6월 조계종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개원, 외국인을 위한 법회,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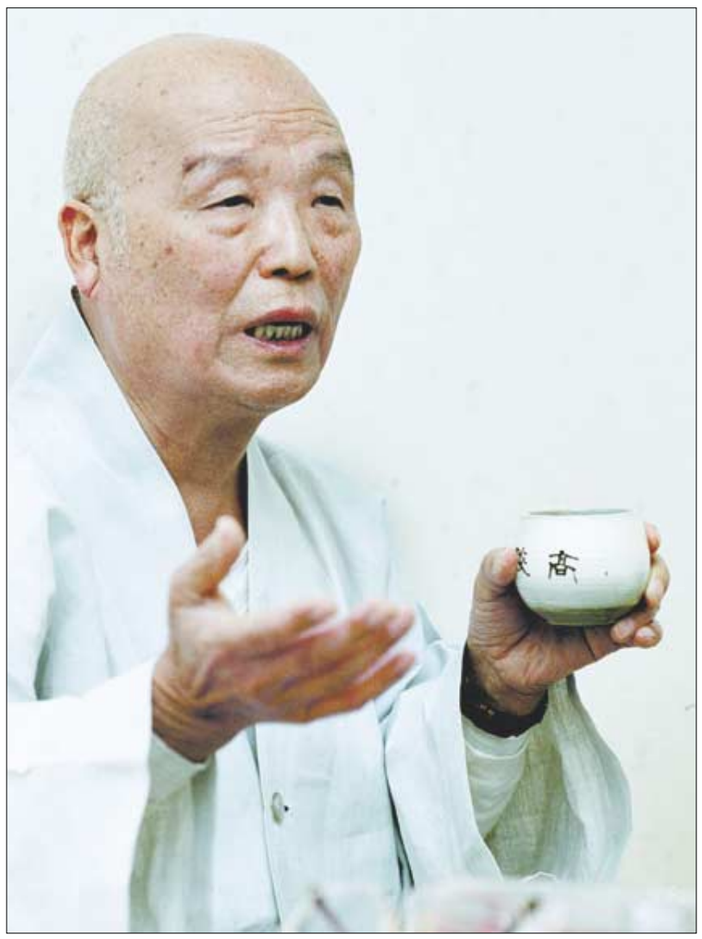
그 외 남양주 보광사는 티베트 스님 10명을 초청해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홍원사도 외국인 스님들이 주로 머물며 수행을 한다.

외국인을 위한 법회 여는곳

사찰 및 단체	대상	연락처
강화 연등국제선원	아시아 및 영어권 국가	018-306-5347
공주 무상사	영어권 국가	042-841-1293
구미 남장사	외국인 노동자	054-534-6331
남양주 보광사	티베트	031-594-1316
대전 자광사	영어권 국가	042-822-9220
미얀마선원	미얀마등 동남아국가	02-762-5302
보성 대원사	티베트	061-852-1755
부산 광성사	티베트	051-243-2468
부산 남산선원	영어권 국가	011-9752-791
부천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	032-677-7771
서울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02-511-6070
서울 조계사	몽골 네팔	02-732-2115
서울 홍원사	미얀마	02-822-1990
서울 화계사	영어권 국가	02-902-2663
영주 현정사	영어권 국가	054-635-5529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외국인 노동자	02-2011-1965
인천 황룡사	외국인 노동자	032-873-0747
파주 보광사	스리랑카	031-948-7700

강유신 기자

날마다 맑고 밝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대승종
사부대중 일동



매일 매일이 정월 초하루

지상 백고좌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또 다시 출발선이다. 을유년 새해 새날 앞에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서있다.

새해에는 해야 할 일도 많다. 지난 한해가 힘들었던 만큼 새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광주에 거주하는 두 가족이 하나같이 큼직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순천 송광사를 찾았다. 새날 시작에 앞서 조계총림 방장 보성 큰스님에게 점검받기 위해서다.

"어여들 와, 강원 스님들과 울력하다가 여러분들 온다기에 올라 왔어."

방장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길상헌(吉祥軒)은 송광사 계곡의 물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해 있다.

두어 평 되는 스님 방에 보덕행 보살 가족과 천달 거사 가족이 들어서자 꽉 찬다.

한지로 도배한 벽엔 가사 장삼이 걸려있고, 경상에 스님이 보던 책 서너 권 놓여있을 뿐 단출하기 그지없다.

"새해라고해서 왔나본데 별거 없어. 매일 매일이 정월 초하루야. 매일 조금씩 바꿔지면 되는 거지. 그저 좋은 습관 들이면 돼. 노력하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뒷면에 있는 노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야기나 들려줄게 들어봐.

청담 스님이 도선사에 계실 때였어. 하루는 어느 보살이 허겁지겁 절에 오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치며 막무가내로 우는 거여. 한참을 울다가 청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넝마로 바꿔 입고 나오더라는 거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래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친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여. 그래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법당에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엿새쯤 되니 헛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넝마아들이 서 있는 거여.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깜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래.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여.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넝마아들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스로 이겨내겠다' 마음먹고 이웃 눈치 볼 것 없이 내 일에 최선 다하면 그만

송정리에서 사업을 하는 보덕행 보살 가족도 마찬가지다. 세 자녀와 부부가 "어려울수록 웃음만은 잃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짜증난 일을 피해가기는 어려웠다. 보덕행 보살이 스님에게 '어려울수록 살아가는 지혜'를 물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남을 좇아가기 바빠. 뷔페음식 먹을 때 보면 알 수 있어. 다 먹지도 못하면서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와. 남이 가져가니까 가져오는 것이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문제가 없는데도 그래. 깨끗이 먹고 치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걱정 없는 거야.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돼.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해. 넝마아들 사람 만든 보살처럼 일심으로 하면 참 은인이 나타나. 우리 주위에는 그런 힘이 가득해. 자기가 끌어다 쓸 줄 알아야 해.

요즘 스님네들도 자꾸 절을 고치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 부처님은 좋은 조건에서 공부 안했어. 평생을 길에서 빌어먹는 걸사였어. 비 새면 천막으로 덮으면 되지. 괜히 절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밥 빌어먹으려면 나가라고 해. 설령 절이 비어도 그런 이들이 절에 있으면 안돼. 지난번 태풍 매미 때 산중의 스님이 하나 와서 며칠 굶었다고 사정했던 일이 있지.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호통을 쳤지. '중이 절에서 빌어 처먹으니 절이 다 망한다. 당장 나가그라. 산에는 흘러가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드냐.'

어쨌거나 승속을 떠나 모두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이웃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자기일 자기가 하고 살믄 돼 "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가 곰곰 따져보면 이구동성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했다"고 말한다. 있다가 없으면 힘든 것이 인지상



보성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대중울력에 동참하고 포행을 하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검소한 살림살이 본 것만으로도 큰 공부

독자 가족과 함께 만난 보성 스님

조계종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친견에는 광주에 사는 천달 정성택 거사(46)와 해소 박상순 보살(40) 부부, 보덕행 김수자 보살(50)과 고경민(대3) 민정(중3) 상필(초등4) 등 세 자녀 그리고 모친 연화월 장금옥 보살(72)이 동행했다.

스님방인 '길상헌'에 들어서자 한눈에 무소유하는 스님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었다. 벽에는 가사, 장삼만 걸려있고 경상에는 책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있었다. 그밖에 있는 물건이라고는 전화기 뿐이었다. 근래 읽으신 책인 듯 위쪽에 <진각국사 어록 역해>가 놓여 있고 달라이 라마의 <용서>와 티베트 수행서 <람림>도 눈에 띄었다.

스님은 "절은 공원이 아니라 수행하는 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다"고 운을 뗐다. "자신을 점검해 보면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듯 조곤조곤 말씀을 이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스님은 "방바닥이 뜨끈하제"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서 방에 불을 넣었다"며 도리어 미안해했다.

큰스님 친견을 마치고 천달거사 내외는 "살아가면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알게 됐다"며 "검소하게 사시는 스님을 뵌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덕행 보살 자녀들도 "큰스님이라고 해서 엄한 분인 것 같아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줘서 편했다"며 "스님 말씀대로 좋은 버릇 길들이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보성 스님은 정성택 거사(오른쪽 첫번째) 부부와 김수자(네번째) 보살 가족 등 독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자상하게 설명했다.

정(人之常情)이다.

방장 스님은 결국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각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방장 스님은 "사람마다 갈 길이 있고, 남에게 묻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사에 다니는 천달 거사도 역시 현재의 사회가 걱정이다.

"근래 들어 가정파괴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불자로서 안타깝고 마음을 내어보건만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늘어갑니다."

"자연은 순리가 있어, 그것을 거역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순서를 벗어나 억지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만남도 그러해. 억지로 만나면 얼마못가서 갈라서기 마련이야. 뭔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해. 허욕을 절에서는 번뇌망상이라 하제. 요것에 빠져 기어코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집"이야. 고집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아집이고 아상이야. 아상이 없으면 문은 다 열리는 거여. 요새 사람들 공부해야 해, 그리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해. 그래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랬을 때 '복과 지혜'를 갖춘 이가 되는 기라."

벌교에 사는 보덕행 보살의 모친 연화월 보살은 4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는 손자들 커가는 모습을 낙으로 삼아 살고 있다. 수없이 찾았던 큰 절이건만 방장 스님 앞에 나서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큰스님 방에 함께 했다.

슬한 세월을 두고 방장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으련만 그것이 무엇일지 자못 궁금했다.

"나이 70이 넘으니 주위에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혼자되는 이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싶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자기 일 하세요. 아들 딸 걱정 말고. 평소

있다가 없으면 힘든게 당연

순리에 따라 욕심버리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던 염불 있으면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98세 된 노보살이 몸을 바꿨어요. 만나면 항상 '염불 잘 하세요' 하면 '잘 합니다' 그래요. 하루는 며느리에게 '너그 시어머니 어쩌노'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침마다 하루 먹을 밥과 반찬만 방에 넣어드리고 밖으로 못나오게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루종일 염불하겠다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요.

얼마 전까지 노보살 만나면 그러죠.

'그래 할망, 친구 좀 있소'

'친구 많이 있어요'

'무슨 친구가 그리 많노'

'아미타 친구요'

노보살은 평소 '추접한 것 보이지 않고 갈란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이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여기저기 찾다보니 화장실에 앉은 채 고개 푹 숙이고 있더래요. 마지막까지 더러운 것을 변기에 버리고 갔던 거요.

보살님도 앞으로 그리 해요."

노보살을 향해 "옆 사람에게 거북하게 하지 말고, 아들딸이 죽이라도 끓여주면 그저 고맙다고 받고 내 할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염불하라"고 당부하던 스님은 성에 차지 않는지 염불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인다.

"내 집안에 평소 욕을 잘하는 형수가 있어요. 이놈의 할망구가 입만 벌리면 어찌 욕을 하든지 아들딸, 사위가 힘들어해요. 하루는 애들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할망구를 불러다 하루에 아미타불 3만독씩 하라고 했어요. 하루 3만독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요. 한 3년 열심히 하니 그다음은 이웃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대꾸를 안 해요. 염불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보고 오라하더니 아들 무릎을 베면 시원하겠다며 누웠지요.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다보니 이상하더래요. 그대로 간 것이죠."

평소 학인스님들 사이에서는 사나운 사자와 같던 방장스님이건만 재가불자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셨다. 스님은 보덕행 보살 딸들에게 경상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용서>란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읽어보라 권했다.

"삼국지 세 번 읽는 것보다 이 책 세 번 읽는 것이 낫다. 느그들 인생이 바뀐다."

스님은 그러면서 '투자'를 강조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스님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진짜 내 살림살이'였다.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열 달 투자가 제일 큰 거여. 그보다 더좋은 것은 아이를 가지기 전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투자가 중요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해. 어려서부터 투자해놓으면 커서 아이 가질 때 편안한 거야. 낳을 때도 편안하게 낳아. 사람간의 만남도 순리대로 되지."

올 겨울에 쓸 나무를 정리하다 들어오셨다는 보성 스님은 주섬주섬 작업복을 찾아 걸쳤다.

"이제 그만하고 가 봐. 나도 하던 일 마쳐야지."

송광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소천 스님

스님은 82세였다. 승려생활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3년여를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다. 노구를 견디며 앉아 있은 후유증으로, 스님은 둔부에 창이 생겼다.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은 앉아 있기를 고집했다. 멈추지 않았다. 눈물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무렵이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스님은 오후 두 세 시쯤에 아무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가 창고 쪽으로 겨우 걸음을 옮기시곤 했다. 나는 조심조심 뒤를 밟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안에는 도둑고양이가 새끼를 서 너 마리 낳아 품고 있었는데, 스님은 한 시간 가량 웅크리고 앉아 새끼 고양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주아주 자비스런 모습으로. 아주아주 사랑스러워 어쩔줄



그림 · 문병성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스님은 거의 매일 같이 일과처럼 반복했다.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는 스님의 밀행(密行).

아마도 누가 알면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에게 해가될까 저어해서 그러시는 모양이었다.

소천(韶天) 큰스님의 이런 모습은 도둑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그곳, 은신처였던 창고를 떠나갈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사랑스런 손주들을 바라보듯, 따사로운 햇볕 고운 오후의 한 때를 골라 일과처럼 창고 쪽을 오고가시던 스님의 모습이 새삼 망막을 스친다.

병든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놓으시며 주위를 경계하며 창고 쪽을 오고 가시던 소천 노스님. 그즈음 나는 삼년째 노스님을 시봉하고 있었다. 인천 보각사에서였다.

정화교단 초대 교무부장과 서울 대각사, 경주 불국사, 구례 화엄사 주지등을 역임하며 호법 · 구국운동을 전개하시다가 69세 무렵에 보각사에 주석하시면서 사무를 일신하고 참선과 교화 운동에 전념하셨다.

소천 스님의 행장은 특이하다. 15세 때 서울 종로에 있는 한남서림이란 책방의 주인으로부터 우연히 <금강경>을 전해 받은 뒤로 스님은 <금강경>에 깊이 빠져들었다. 심취했다. 23세 때 서울에서 3 · 1 독립운동에 참가한 뒤 북간도로 탈출, 김좌진 장군 휘하에 머물다 다시 북경 등지를 거쳐 국내에서 활동했다. 일경의 추적을 받자 산중 암자에 피신, 이후부터 불교연구와 구국 구세원리의 선양에 전념했다.

소천 스님은 39세 때 <금강경강의>를 처음으로 간행, 여러곳에서 설법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한 자리에서 고친 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때부터 세간에선 스님을 일러 '신법사(스님의 속성이 신씨다)'라 부르며 칭송했다. 8 · 15 광복을 파주의 조그만 토굴에서 맞은 뒤 국토 분단과 좌우익 대립으로 민족이 누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고자 '바른 정신' '독립의 넋' 등 수천 매에 달하는 원고를 집필했으나 출판을 보지 못했다.

스님은 54세 때 6 · 25 전쟁을 맞아 부산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드디어 56세 때 금정산 범어사에서 용성 선사를 은사로, 동선 선사를 계사로 하여 출가했다. 시쳇말로 늦깎이 중의 늦깎이였다.

스님은 <금강경강의>를 재간하고, '금강경독송

82세때도 가부좌 틀고 정진 금강경강의 일인자로 꼽혀

구국원력대'를 조직하여 구국 구세 호법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72세때 활화산 같은 원력으로 <원각경강의> <반야심경강의> 등을 차례로 간행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금강경을 독송하자.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내 집을 구하는 것이며 내 몸을 구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구하는 것이 된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왜 나라가 구해질까? 금강경은 모든 유위법(물질), 무위법(진리)이 나온 곳이며 그로 하여 병든 나라와 정신을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천 스님께서는 '금강경독송 구국원력대의 외짐'이란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노후의, 그분의 좌선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얻은 참혹한 병고의 시달림, 그런 속에서도 놓지 않던 탐구에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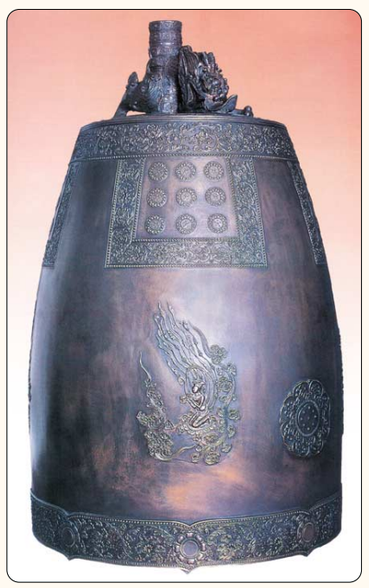
소천 스님은 팔십 평생을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길에서 보냈다. 만주와 북경, 서울과 심산의 토굴을 전전하며 구도와 구국 구생(求生)의 일념으로 물흐르듯 살아왔던 그야말로 수행납자였다.

파란만장했던 소천 스님, 그분의 행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 되돌아 보임은, 꿈결처럼 아련하게 떠올라 옴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병든 노구를 이끌고 도둑고양이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창고로 들어가 한 시간 가량 웅크리고 앉아 지켜보곤 하던 82세의 어느 날, 햇볕 고운 어느 날 스님은 입적하셨다. 스님의 육신은 다비되어 본사인 금정산 범어사 부도전에 모셔졌다. 거기, 부도전 한쪽에 고이 모셔졌다. ■ 봉화 청량사 주지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상표등록출원 제 2956호
• 의장등록출원 제 35872호

2005年新/製/品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색상 : 회 색
■ 규격 : 215~290(mm)
■ 특별 보급가 ₩ 60,000

■ 만행화(滿行靴) 털신 단면도



■ 만행화(滿行靴)털신 특징
① 발, 볼, 등 감안 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② 겨울 동절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바닥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로 제작 하였습니다.
③ 외부소재 극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하였습니다.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CHOICE (주)초이스 제화 www.choiceshose.co.kr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전화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농협 063-12-250427 예금주:구자민

불자생활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생활정보 : 4×4cm=4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요사 : 40평
- 삼성각 : 3평
- 부지 : 311평
- 가액 : 2억 6천
- 위치 : 전남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경북
- 임법당 : 3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3500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 1억7천, 2억5천, 4억 4억5천, 5억, 7억, 10억, 12억
- 경기 : 1억4천, 5억, 7억, 9억 11억, 13억
- 충청 : 1억, 1억5천, 2억, 5억, 6억
- 공양주 연결, 사찰터 多 토지,제테크투자상담도 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4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2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2)6497-096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내
- 대지 : 192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28평
- 산신각 : 각 10평(2층)
- 가액 : 1억 2천만원

019-292-7025
052)294-702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1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중심지 포교 최적지
- 2층 건물 중 2층(40평)
- 법당 : 20평(방2개)
- 특징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2천2백만원 월 40만원(시설비 포함)

016-640-8133

1. 충북옥천<대전15분거리>대300평 목조법당 40평 ₩ 2억
2. 청양 칠갑산 대220평 건20평 임법당25평 텃밭100평 ₩ 3800만
3. 공주시 정안면 임야7000평 저수지접<정안IC 6km지점> ₩ 2억1천
4. 청양 칠갑산 도립온천내 대1000평 목조건물35평₩ 5억
5. 공주 마곡사 부근 차령산맥 임야 2900평 1300평 평당8만
6. 대전 대덕구 대청댐접 324평<구옥포함> ₩ 2억
7. 청양 칠갑산 임법당 대200평 텃밭포함<건물만> ₩ 1500만

<대전권 사찰급구함>

02)2645-3002 / 011-621-9216

사 찰 안 내 (전 세 /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산밑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보증금 : 7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위치 : 서울대 지하철역
- 법당 : 30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3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 203평
- 현거래 시가 250만원정도
- 평당170만원(3억4천5백만원)
- 법당30평,요사채25평
- 7층탑,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2그루
- 화장실,수세식4칸
- 주차 7~8대가능
- 주인직접 ● 사정상 급

010-3133-00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포교당 안내

- 위치 : 후암시장 입구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2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절학관 적지
- 땅은 있고 법당 보시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71-1907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답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10분거리. 현재4학년. 신도시확정지구인접
- **특징 :** 법당원목상단. 지장호신동216불. 후불탱-50평.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명분집기. 최고급 불기. 스님방 에어콘, 전체보일러. **3층 중 3층. 총 55평**
- **가액 :** 전세4천, 시설비2천

031)986-2335 · 011-820-150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190만원 시설비 1억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조금한 야산 밑 원주역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각전 단청 되었음,요사채2동, 스님방별도, 시설불 집기일체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가능 3천만원(답사후절충)

011-327-58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시내
- 평수 : 42평. 4층건물 중 4층
- 법당, 산신각, 방 2개, 큰거실, 주방, 욕실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7-372-8968

사찰안내

- 위치: 중랑구 면목 3동 사가정 전철역 5분거리
- 건물 1층 15~20평정도
- 법당, 방 2개, 주방, 화장실
- 보증금,시설비포함 1300만원월 70만원

02)434-3362
016-9511-084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가액 : 1억 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
- 대지 : 237평
- 텃밭 : 67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131-584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초구 양재2동 삼호물산 뒤편. 포교당 최적지
- 5층 법당 50평
- 방 2개, 욕실 2, 부엌 1,
-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16나한, 후불관세음보살 50불
- 보증금 : 2천. 최상의 시설비 4천

011-9269-844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 (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범물동
- 3층 건물 중 1층(35평)
- 법당, 공양간,화장실 (뒤뜰사용 10평)
- 주변 주차시설 편리, 도시가스, 에어컨시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3139-663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3점, 지장전, 법당 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또는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지내실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24304-3396114 하나은행 (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목동사거리 남부시장옆
- 평수: 약 53평
- 삼존불, 방2, 주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2)2645-3002
011-621-9216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연산동 부산여상 버스정류장 근처
- 1층 40평 방3 삼존불 탱화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3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506-0377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 대지: 320평
- 대웅전, 공양간(2층) 산신각, 요사채 등 부대시설완비
- 가액: 13억

011-817-2889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태평소
행사해 드립니다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010-4870-8359
051)261-5691
용환 합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神 비법 강의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법경 합장 ※ 빙의치유세미나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055-573-7832 /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이십팔숙 특별 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미만
031)706-77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043)644-7227
019-243-2205

행 자 모 심

고졸이상 만40세미만
대학 ·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정릉)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 ~ 50세사이
011-462-5275

행 자 모 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 룡 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경남진해)

조용한 산사 토굴
50~60대 까지
017-553-5200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3

기도시님 필요한사찰 연락바랍니다

법 무
010-7160-6811

무 효 공 고

- 사찰명 : 법화종 약사암 ● 법명: 보호 태숙영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번지

상기인은 법화종 약사암 주지로 2004년 11월27일 소임행사하여 약사암 업무수행에 혼돈을 주고 있으니 이후부터 사용된 사찰명과 직인은 무효로 공고함

- 공고인 : 사찰명 약사암 주지 법명 자안 태순희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번지

2004년 12월 20일

송암 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2005년 1월 11일 ~ 1월 20일까지(10일간)
대령 · 관욕 · 불공 · 시식 등
단기 속성반 10일간 교육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호 보화당 한의원 옆 3층
063)643-6619, H · P 011-9454-6619(종산스님)

하기책자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 난해한 연구서 차원의 책이므로 꼭 필요한 분만 -

- 책제목 : 木, 像, 事(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책주제 : 사회철학, 심리, 언어(음, 양, 오행관련)
- 책특징 : ① 인체에도 지도가 있듯이 "삶"의 세계에도 지도가 있다. (최초발견) ② 어떠한 경우의 生活事이더라도 本像事용어로 표현 "삶"의 상황판단이 분명하다. ③ 현실적인 사회철학이므로 占術學이 아니다.

055)972-5297, H·P 010-4587-5297
心 本.像 .事 연구회

불사에 도움이 되신다면

소납은 이번 달마보시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전화를 받고 도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사에 달마도가 필요하시다면 찾아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암스님 011-9458-6616 전화주세요

(주)해피세븐 www.hansmall.co.kr



꿀벌이 만들어 낸 천연건강식품
독일 직수입 아가드 프로폴리스
효능) 강력한 천연 항생, 항균작용
간장기능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천연의 항산화제

02-521-0648 / 011-241-6822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불교정보는 이제 현대불교 – 부다피아로 통합니다 (HBMC)

HBMC(현대불교 미디어센터)는 지난 10년의 신문 발행 경험을 토대로 1월 1일부터 '부다피아'를 글로벌 불교포탈로 새롭게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보도를 기본으로 폭넓은 동영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불교전문 멀티 뉴스사이트 '붓다뉴스'와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을 통합회원제로 운영, 불교계의 문화와 신행을 위해 꼭 필요한 포탈사이트로 가꿀 예정이다.

지난 95년 '불교 정보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법을 만나 이 세상이 불교적인 유토피아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부다피아(Buddhapia= 佛陀와 彼我의 합성어)'는 10년만에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영문포탈을 지향하고 있다.

부다피아는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불교자료의 축적, 자료 공유 및 전달을 위한 매체기술 확보와 활용, 불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포탈로서의 편이성을 갖춘 다양한 기능들, 멀티미디어 DB를 갖춘 방대한 정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부다피아 글로벌 포탈로 인류에 행복을!



부다피아 메인 화면.

편이성에 놀라고 실속에 감동하는 새로운 기능들


부다피아 '블로그' 메인 페이지 화면.


'마이 페이지' 화면.


부다피아 '커뮤니티'의 메인 화면.

■ 3대 닷컴 통합회원제

HBMC는 불교포탈 부다피아(www.buddhapia.com)와 실시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온-오프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www.yosiamun.com)을 통합회원제로 운영,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번의 로그인으로 3대 사이트를 하나의 사이트 처럼 엑세스가 가능하다. 이는 유저들의 불편을 줄여 불교 콘텐츠와 뉴스, 도서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즉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자동 정보검색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 방대한 부다피아 DB를 기반으로 독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

각 분야 전문가 및 동호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건전한 수행 및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커뮤니티 안에 갤러리 기능을 신설,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올려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초대기능'을 만들었다.

■ 블로그

불자 개인이 수집한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를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로 올려 놓아 다른 사람들이 정보공유 및 불심 함양의 기회를 자발적으로 갖게 한다.

■ 웹페이지 빌더

사찰이나 단체들이 무료로 웹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관리가 쉬운데다 신도 및 회원관리에 편이성을 갖춰 불교 신행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 마이 페이지

부다피아에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 HBMC 3대 사이트에서 이뤄진 나만의 모든 행위와 원하는 정보가 저장된다. 마이 페이지에 여시아문의 도서 주문현황이 나오고 가입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덧글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3대 사이트 회원들이 상호간에 보낸 쪽지와 받은 쪽지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마이 페이지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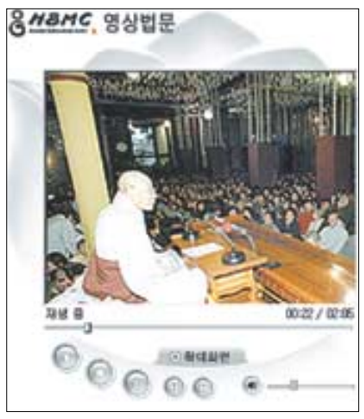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의 어떤 기사든지 다시 찾을 필요없이 스크랩이 가능하다. 여시아문을 통해 '주문형 출판(POD)' 서비스도 제공한다.

■ 쪽지 기능

HBMC 3대 사이트 회원들은 이메일 없이 쪽지를 바로 주고 받을수 있어 회원 상호간 및 사이트 관리자와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했다.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동시에 쪽지를 보낼 수도 있다.

불교정보를 찾는 눈과 귀가 즐겁다

동영상 · 오디오 · 법문, 잡지 · 고서 등 총망라



동영상 법문 플레이어.


'부처님 생애' 메뉴 초기화면.

■ 영문 서비스

영문 번역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해외로 전한다. 1차로 한국 현대 고승 47인의 법문, 조계종 25교구본사, 경전 소개, 영문 불교사전, 미국 UMI 논문정보, 불교미술, 전 세계 불교잡지 및 단체 주소록 등을 서비스한다.

■ 동영상 · 오디오 법문 · 강의

현대 고승들의 법문과 출 · 재가 선지식들의 법문 및 강의를 문자는 물론 동영상 및 오디오로 보고 들을 수 있다.

■ '대중불교' 등 불교잡지 보기

<대중불교>와 <불일회보>의 모든 기사를 PDF파일로 볼 수 있다. 1953년 이전 절판된 17개 불교잡지를 비롯해 21종 1만1221개 기사를 안방에서 볼 수 있다.

■ 방대한 사진자료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사진 등을 즉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의 사찰, 인물 사진을 사용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면 된다.

■ 고서 열람 및 연구보존 프로젝트

70여 종의 희귀 불교고서를 PDF파일로 볼 수 있다. 다운로드 및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희귀 불교자료의 '연구보존 프로젝트(Archive Project)'를 추진한다.

■ 추가 보충정보

주요 색인 및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기본 정보이외에 다양한 보충정보가 하부 섹션에 추가된다. 보충정보는 관련 뉴스 및 카테고리, 논문(4254권)/고서/잡지, 이미지, 불교사전(2만 단어), 멀티미디어, 지식검색(추후 오픈), 경전/법문, URL 링크 등이 첨부된다.

■ 글 ·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를 기록한 15개 경전을 조사해 80개 테마별로 부처님 생애를 상세히 소개한다. 4개 아함부 경전을 근거로 부처님 생애를 성도이전에서부터 교화, 입멸과정, 미래 승가에 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탱화, 만화, 사진, 우표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등을 첨부해 부처님 생애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 정보

총 418개 불교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역별, 분야별, 서비스대상별로 사진과 함께 제공한다.


청우 윤상민 서예전.


'예술과 세상' 중국유물 전시회.

한번 클릭으로

미술관 · 서점 못갈 곳이 없다

■ 사이버 갤러리

유명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시관이 운영된다. 안장헌 사진가의 '불상사진전', 청우 윤상민 서예가의 '서예전', 라규채 사진가의 '사진으로 본 남도들꽃', 고미술전문 갤러리 '예술과 세상'의 '파불(破佛)전', 김윤오 단청가의 '단청전',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 사진전', 송광사의 '옛 사진 전', 지수스님의 '종이공예전', 현대불교 고영배 사진기자의 '경주 남산전' 등이 전시된다.

■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부다피아의 콘텐츠와 현대불교신문의 기사 등 HBMC 3대 사이트의 정보를 지정하면 고해상도의 컬러 사진과 텍스트를 담은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진 · 불서 등 온라인 판매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의 3만여종, 8만여권의 불서와 7만여장의 풍경 및 인물사진, 3천여종의 '마하몰(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 신행/수행 상담

기초 교리, 신행, 수행 등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친절하게 답해 준다.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이 선 수행상담을, 신수회 이남숙 회장이 주부 신행상담을 맡는 등 스님 및 전문가들의 상담코너를 잇달아 개설, 바른 공부 길을 안내한다.

■ e-book 서비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출간된 스테디셀러를 비롯한 250권의 e-book 가운데 1차로 80권의 전자 불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실시간 불교뉴스

부다피아의 하부 웹페이지마다 일간보다 빠른 '실시간' 불교뉴스를 제공하는 붓다뉴스의 최신정보를 속보로 전한다.


안장헌 씨


윤상민 씨


김윤오 씨


라규채 씨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奉 韓國禪佛教 曹溪宗 創宗 公告 祝

종 정 圓覺 智佑 대종사

원로원장 普眼 圓鏡 대종사
종회의장 法眼 松山 종 사
총무원장 慧空 覺圓 대종사

사무총장 法靜 曉洲 교 육 원 장 圓空 觀禪 포교원장 心空 香月
감찰원장 鶴川 惟松 총 무 부 장 商道 法成 교무부장 月雲 慧山
재무부장 英州 海眞 사 회 부 장 華潭 圓度 호법부장 大經 眞空

지역종무원장

경 기 도 종무원장 松川 강 원 도 종무원장 志安 충 청 도 종무원장 道成
전 라 도 종무원장 寶京 경 상 도 종무원장 華潭 제 주 도 종무원장 日慶
서울특별시 종무원장 大安 대구광역시 종무원장 法鏡 부산광역시 종무원장 仁護
대전광역시 종무원장 脈田 울산광역시 종무원장 惟松
중앙신도회장 法雲 김병기 부회장 행만 강철수

총무원 : 부산시 진구 당감동 751-16
TEL 051)897-8078,903-8078 / FAX 051)896-9077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종 정 습득 월인

총무원장 탄 성 법 봉

승가종 전국 172개 사암주지 일동

※행자교육원 상시 운영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113-1
TEL 051)552-8551-4, 051)513-7709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운 명 대종사

원로원의장 수봉 부의장 성파
의원 금파 해강 경해 지우 원담 은파 원광 오봉 정수 긍파 종파 보명
중앙종회의장 법륜 부의장 도정
의원 복규 경담 혜암 법만 진하 보륜 근파 법원 법은 현우 보광 법정
도광 마운 난광 관효 송현 광덕 광래
포교원장 혜도 포교부장 혜각 교육부장 만성
총무원장(직대) 혜륜
총무원 : 기획실장 법은 사서실장(서리) 효웅 총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보륜 감찰부장 효천 예경실장 법륜

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보륜 경북교구종무원장 도장 진주교구종무원장 원봉 강원교구종무원장 암현
마산교구종무원장 법산 동해교구종무원장 성엽 전라교구종무원장 복규 김천교구종무원장 정봉
충남교구종무원장 백봉 제주교구종무원장 광수 충북교구종무원장 혜광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원
경주교구종무원장 서봉 안 정 사(직할) 덕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
대표전화 02)762-2678-9 / FAx 02)747-5044

韓國佛教 元曉宗

宗正,宗正職務代行 法 敏

總務院長 法敏 副 院 長 廣進
私書室長 普陀 中央宗議會議長 靑虛 副 議 長 仁浩
禪 院 長 普陀 律 院 長 高月 規定院長 道光 教育院長 圓潭

總務院
總務部長 大成 總務局長 善法 財務部長 慧淨 財務局長 普賢
社會部長 普覺 社會局長 慧修 教務部長 承賢 教務局長 正原
布敎部長 性門 布敎局長 德山 規定部長 慧成 規正局長 慧珉
護法部長 眞成 護法局長 東谷 福止部長 智祐 福止局長 光明

中央宗議會議員
普覺 慧成 慧光 高月 成門 眞成 仁浩 正原 智佑 性慧 月光 承賢 善覺 大雄 光明
東谷 道明 普陀 廣進 善法 慧淨 普賢 慧修 曉山 德山 正休 普光 大天 慈成 慧珉

釜山敎區宗務院長 慧光 慶南敎區 宗務院長 法鏡 大邱.慶北敎區 宗務院長 眞成
全南北敎區宗務院長 賢覺 서울京畿 宗務院長 正原 全國元曉宗信徒會會長 변홍기

전국180여 寺庵 住持 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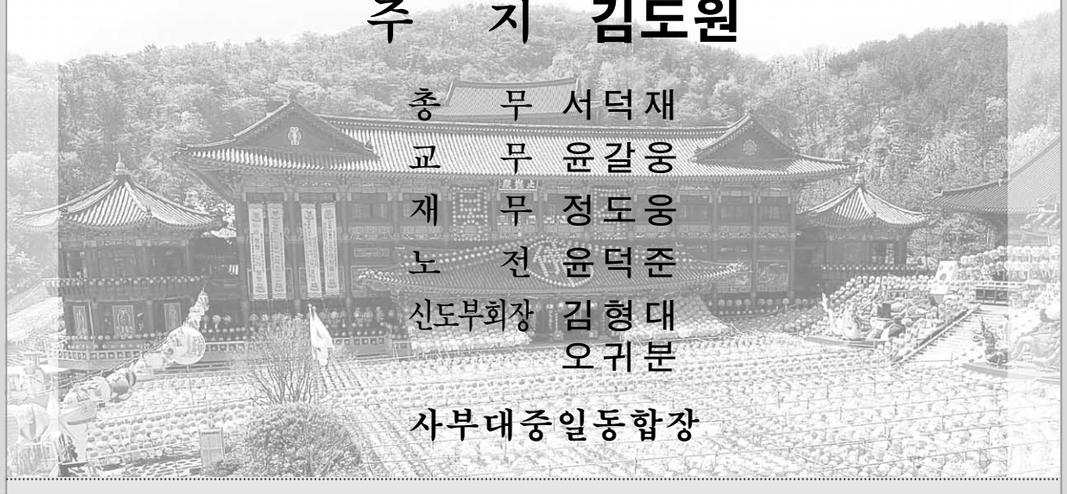
총무원 : 부산시 진구 범천2동 129-79
TEL 051)642-9557~8, 637-0722~3 FAX 051)645-6978
e-mail:sudug@sudugsa.org http://www.sudugsa.org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주 지 김도원

총 무 서덕재
교 무 윤갈웅
재 무 정도웅
노 전 윤덕준
신도부회장 김형대
오귀분

사부대중일동합장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www.samkwangsa.or.kr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회, 복지회, 합창단,
다도회, 선림회, 여진부, 참선부, 수림회, 금빛모임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업식 무명서 벗어나 세세생생 자유인 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듯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과정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헤어졌다 또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마음과 마음, 말과 말, 뜻과 뜻이 이어져서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떤 분들은 육신과 가정이라는 좁은 범위내에서만 생각하시겠지만 마음공부를 하려면 좀더 마음을 넓혀서 지혜롭게 엮어가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날 스님은 주인공에 놓으라고만 하신다고 말들을 하시겠지만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섰다 바로 섰다 하고 돌아갑니다. 거꾸로 돼도 바로요, 바로 돼도 거꾸로입니다. 누구더러 "거꾸로가 바로냐, 바로가 거꾸로냐?"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서서 다니는 이 상태만을 바로라고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머리가 땅으로, 발이 위로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땅에 붙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붙기 때문에 여전히 쉴 사이 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도 아니고 바로도 아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꾸로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르든지 옳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자유스럽고 걸리는 데가 없는 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말을 했든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했든지 걸림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시발점에서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항상 내리는 데 걸리지 않으면 타는 데 걸리고 타는 데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데 걸린다고 하는데 모두 자동적이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요.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 그 가운데에 누가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고, 자유를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관습에 매달리고 안된다는 데 매달리고 된다는 데 매달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 데도 매달리고 내리는 데도 습관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때가 있으면 묵묵히 차를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는 거지,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섭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그 노릇을 어떡합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도는 한마음의 심봉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끄달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또 되는 것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구나' 하고 미리 생각으로 걸리는 겁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 아니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젯밤에 주무시고 모두 오셨지요? 오늘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밤에 잘 자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밤과 낮이 마음으로 볼 때는 어디 둘이겠습니까? 묘한 점은 뭐냐 하면, 낮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밤에 잘 때 육신은 놔두고 의식들이 나가서 은통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 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안 저지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지르게 생각을 했다면 저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때는 육신을 내버리고 하니까 제한도 되지 않고, 낮에 입력이 된 대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쁘게 생각했다면 나쁘게 가져오게 만들고, 좋게 생각을 했다면 좋게 인연을 맺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화가 나지 않게 모든 걸 놓고 갔다면 밤에 잘 때에도 화가 나지 않게 수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는 대로 원숭이처럼 쫓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입력이 돼서 원숭이처럼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따로 있고 낮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면 무명을 벗어나지 못해 악의 무명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다가 차원에 의해서 또 육신을 형성시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나오게 돼있으니 이 공부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여래천에 들게 되면 하는데 여래천이란 무엇인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구성된, 즉 말하자면 국토다 이겁니다.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모두가 일체 심봉으로서 뭉쳐진 둘이 아닌 까닭에 '여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육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여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래국의 모든 마음이 가설이 되고 직결이 돼서 돌아간다면,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이 "주인공, 당신만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맡겨 놨을 때, 한 찰나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약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약사가 돼주고 통신이 될 때에 두뇌로 인해서, 즉 누진으로 인해서 대뇌 소뇌를 거쳐서 중뇌에서 결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을 하면 사대의 모든 생명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오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 몸을 벗는다 하더라도 한 찰나에 부처님 국토에 한마음으로 구성되면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할 때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마음 부처님 여래천에 모두가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데도 군더더기가 불지 않고 여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천차만별의 생명들이고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천차만별의 그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차원대로 가고 있는데 왜 별나게 스님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하겠죠? 지나다니면서 분수 보셨겠지만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묵은 물은 겉으로 나오고 겉의 물은 다시 묵은 물이 됩니다. 한군데로 나와서 한군데서 흡어지는데, 흡어지면 흡어지는 대로 또 모여서 거길 통해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통하는 데도 한군데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구녘이 한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체 모두가 이어지지 않아요. 안 그럽니까? 그래도 아리송합니까? 우주천하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 그렇게 좋은 말씀을 설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용어를 알 수가 없고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때 그 시절에 맞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하고 모두가 발전이 되고 변해가기 때문에 변하는 대로 용어는 바뀌게 돼있죠. 뜻은 똑같지만 용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옛날에는 박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으면 바가지를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바가지를 잘 만들어서 쓰니 박 바가지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개선이 되고 일체가 다 변화가 되고 용어가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뜻은 그대로 하되 용어는 바꿔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더러 경(經)의 말씀은 안 하고 만날 이런 말만 한다고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따로 있나요? 부처님께서도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두 자리로 보지 않으시고 모두를 이끌어가실 때에 상대를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고 방편을 쓰셨지요. 그러니 나를 말 잘하는 앵무새로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말이 말로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으로 새겨서 받아들이시고 현생활에 적합하고 이익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덩어리가 되십시오. 금덩어리도 자꾸 생산을 해내야 빛이 나지, 금덩어리 그대로 두면 빛이 나질 않아요. 분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돌아가듯 말입니다.

주인공에 잘되는 것도 놓고 안되는 것도 다 놓으세요. 그러면 시발점 종점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발점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타기도 하고, 종점에서도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는 사람은 시발점일 테고 내리는 사람에겐 종점이겠지요. 이처럼 동시에 타고 내리는데 어떠한 것을 안된다 된다는 말로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법입니다. 안되는 것은 나를 더욱 튼튼한 반석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또 되는 것은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타는 것만 법이고 내리는 건 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하고 나갑니까. 일체가 다 그러하듯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체가 없는 마음, 맘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인데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릴 때는 내려야 하는데도 부득부득 타고만 간다면 그건 잘못되는 일이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돌이 아니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놈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할 때에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면서 자유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여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모두가 한데 이어져서 돌아가는 둘 아닌 도리를 깨치신 분이 바로 여래니깐요.

한마디만 더하고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내 자성불 주처는 자가발전소입니다. 여기에다 일체를 놓으면 충전이 되고 통신이 돼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의 국토에 내 마음을 통해서 한마음이 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사가 돼주고, 어려우면 관세음이 돼주고,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주고, 물에 들어가서 어려우면 용신이 돼주고, 길을 걸을 땐 지신이 돼주듯이, 여러분이 아프거나 또 애고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든지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바로 '무(無)' 했단 말입니다. 공했기에 마음과 마음은 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서 돌아갑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죠. 마음을 넓혀서 보면 모두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습니다. 물론 육신을 빌려서 형성됐다면 우선권은 있겠지요. 내 몸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의 모든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 몸도 못 거두니 내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 형제 자식 모두 화목을 도모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죠.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를 붙들고 육체를 붙들어야 화목을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모든 게 공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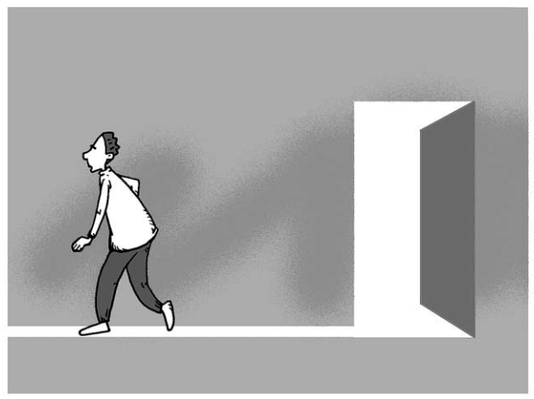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모습의 옷이 낡아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다시 새 옷을 입고 나올 때에 자유스럽게 내가 입으려면 입고 말려면 말고, 어떤 옷을 입든지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데도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한 대로 무명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다. 고기가 됐으면 고기 대접밖엔 못 받고 개가 됐으면 개 대접밖엔 못 받을 거고 사람이면 사람 대접을 받을 테죠. 사람도 뜻을 넓히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겠죠.

사람이 태어나면 이러이러하다고, 또 일체 만물만생 살아나가는 게 똥등하다고, 일체 생명이 돌이 아니라고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납득을 못한 채 무슨 귀신이나 다루는,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 불교인 줄만 안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겁니다. 천만 냥을 주고 만만 냥을 주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마음공부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돈이나 받아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이름이나 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도 버릴지언대 무엇을 가져갈 게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져갈 거라면, 나나 여러분이나 악업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업식이 영혼에 부착이 돼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겠죠. 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발목이 비틀어 매질 겁니다. 그러니 이 도리가 엄청난 도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부를 못하면 아예 세세생생에 발을 빼지 못할 문제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온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업식 무명 속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기 바랍니다.

▲질문자1: 죄업과 인과가 있다면 확실히 지금의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내 안에 선업과 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지금 크게 한생각을 일으켜서 진실로 놓아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공테이프가 될 것이라고 『한마음 요전』에서 설하셨습니다. 이는 선업도 악업도 모두 쉬고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는 것이 재입력하는 작업이니 재입력하는 수행만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발점에서 차를 탔으면 탔을 뿐이고 종점에서 내렸으면 내릴 뿐이죠. 마음 주인이 육신을 끌어 타고 내리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집착해서 타고 내린 거를 잔뜩 마음으로 껴안아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을 방편으로 삼았다 해서 절대로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살림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 발자국 짊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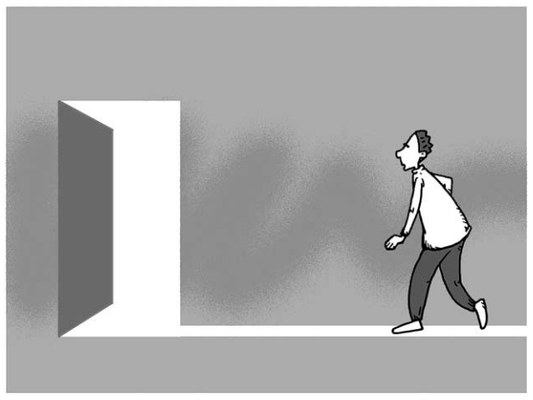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다 법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구녁'이 한군데밖에 없어

☞17면에서 계속

어지고 오시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오기는 틀림없이 왔는데 짊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다 그렇게 사십시오.

▲질문자2: 저번에 집에서 화단을 가꾸다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 죄다 뽑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화초나 잡초가 다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것은 기르고 어느 것은 뽑아 죽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버려야 하는지요?

▲스님: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화초를 기르는 것도 없고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내렸을 뿐이지, 타는 거는 화초를 기르는 것이요 내리는 것은 잡초를 뽑아버린 게 됩니다. 내리는 것도 법이고 타는 것도 법이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아버리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뽑아버린 것이 그냥 뽑아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차에 올라타듯이 다시 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버릴 때에 내가 무심으로서 잡초를 뽑아버렸을 땐,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화해서 그 잡초는 다시금 핍 겁니다. 모든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리로서 그렇게 되듯, 잡초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빗물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은 순간 보일 때 잡초이지 또 한 번 돌아서 아름답게 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인간도 인간대로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화해서 변화가 되고 또 한 참나 돌아가면서 바뀌집니다. 세상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다 녹이 슬은 쇠를 집어넣으면 다른 걸로 생산이 돼서 나왔다가 또 헐어지면 용광로로 들어가서 다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버린 것도 뽑아버린 게 아닙니다.

▲질문자3: 저는 슬하에 사 남매를 둔 어머니입니다. 지난 4월말 경에 애가 속을 썩이고 안 들어오길래 예감이 이상해서 쓰레기 값이 뭔지 몰라도 얼마 보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집 근처 잔디밭 앞에서 영 다리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선원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께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올리면서 천혼문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불 일을 보고 오니 잔칫집에 보낼 봉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봐도 모른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애가 후배아이더러 동생으로 사랑했는데 봉투를 가져갔냐고 하면서 두들겨패다가 칼로 걔 등어리를 두 번 찍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상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날 일 때문에 벌써 주인공 자리에서 다시 절에 가게 한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보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 값이라는 게 분명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 지금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에 따라서 물건 값이 정해지지요? 그런데 물건 값을 주고서 물건을 가져올 때는 물건을 준 사람도 없고 물건 값을 준 사이도 없이 양면이 다 준 사이 받은 사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한다면 자비로서 줄 사람은 주되 자기 혼자 주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혼자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한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한마음으로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다, 자기가 줬다, 자기가 했다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이런 거를 하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닥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가는 것을 일부러 잡지 않는 것이 순수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꿈에 '얼마를 시주해라' 할 때도 있겠지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처에서 자기가 없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없는 건 너가 더 잘 아는데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재료구나 하고 굴리는 마음 씀씀이를 자꾸 터득하세요. 시주하게 하는 것도 그 놈이고,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놈이고, 할 수 있게 하는 장본인도 그 자리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찰을 운영해 나가나 하지만,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서 부처님이 있다면 할 것이고 없다면 못할 것이지, 내가 뭐 등에다 혼자 특별나다고 써 붙였습니까? 그렇다고 옛날 어느 사람처럼 버선목에다 잔뜩 끼워놓고 한 푼도 시주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거지든 부처든 일체만물을 둘 아니게 집어삼켜라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그때는 버선목에 통장이 10개나 들어있는데 어쩌면 피를 쏟고 그렇게 쓰러지는 남편을 위해서 한 푼도 못 내 놓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스님이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마지못해 내놓고 정성을 들이고선 그 병이 나았지요.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어떤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속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가 되길 바라겠어요.

▲질문자4: 스님,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이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지 않았으면 어디 나와 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한마디를 지니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원 가까이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이 공부 하다보면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가면 늘어가고 그것을 되집어서 쓰지 마시구요. 되집어 떼어서 쓰고 다시 해놓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 값을 줬다가 물건 값을 뺏는 거나 똑같으니까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내가 모든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이끌어드리는 말입니다.

▲질문자5: 스님, 매번 저희들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또 자상하게 법을 일러주시니 그 은혜야말로 하늘과 같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마음 깊이 모시고 따르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조사께서는 감히 '부처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죽여서 개나 주겠다' 고 했습니다. 그것이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공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은데 감히 스승을 죽이겠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싶습니다.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가르침 배우는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스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스님: 아주 간단한 일이죠. 얼른 쉽게 말해서 팔만대장경을 집어삼키지 않는다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은, 부처님의 마음을 집어삼킨다면 어디 제 마음과 둘이겠냐는 겁니다. 이 선(禪)도리는 부처님도 집어삼키고 일체를 집어삼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습을 집어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남편한테 마음을 줬는데 남편이 그냥 아내 마음을 집어삼켰어요. 집어삼키고선 일을 해요. 또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삼키고는 일을 해요. 그럴 때에 참나참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과거 부(父), 자기 정신계의 자기와 현실계의 자기가, 생각을 안 할 때는 정신계의 부(父)가 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부(父)가 자(子)로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니 그대로 법신이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든 부처님이든 일체 만물만생을 둘 아니게 집어삼켜라 이런 뜻이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자성 근본으로부터 이 세상만사가 돌아간다는 걸 아신다면 아주 착실히 하십시오. 착실히 하셔서 꼭 이 세상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이 쓰이는 금속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3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濟山堂 宗成大禪師 茶毘式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2월 21일 涅槃하신 濟山堂 宗成大禪師의 茶毘式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大德 큰스님들과 諸房의 여러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修行精進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濟山堂 宗成大禪師 추모재 日程

濟山堂 宗成大禪師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다 음—

49재	일 시	장 소	연락처
초재	12월 27일(음 11월 15일) 오전 10시	임제선원	02)888-6397
2재	1월 3일(음 11월 23일) 오전 10시	"	"
3재	1월 10일(음 12월 1일) 오전 10시	"	"
4재	1월 17일(음 12월 8일) 오전 10시	"	"
5재	1월 24일(음 12월 15일) 오전 10시	"	"
6재	1월 31일(음 12월 22일) 오전 10시	"	"
7재	2월 7일(음 12월 29일) 오전 10시	"	"

■ 문의 : 임제선원 ☎ 02)888-6397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寺 門徒一同

무료 역학 대 특강

희망찬 을유년을 맞이하여 본 학원 강의 전과목을 무료로 실시 합니다.

강의 과목
- 명리학 육효학 자미두수 관상
- 이론과 실전 비법전수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전문 역술가, 전문 역학 강사, 문화센타 강사 육성

※ 100% 전원 취업보장

개강일 2005년 1월 12일(수요일) 오후 7시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전화문의 02)929-4646, 4643 HP 018-350-7150

위 치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30m

홈페이지 : KTSA.CO.KR

전통의식 및 강원교육 안내

본원은 전통의식, 강원으로 법음, 법패 및 조계종 강원에 준하는 교육으로 학인을 모집함

교육기간 및 과정
- 강원강사 : 조계종 교구 본사 강원 강주로 40여년 강의하신 대강백 큰스님
- 의식강사 : 중요 무형 문화재 범음, 범패 전문 강원 원장스님

강원과정

초발심, 자경문 치문반	6개월
사집반(서장, 도서, 절요, 선요)	6개월

의식과정

기본 의식반(6개월)	도량석, 종성, 예경, 불공, 재의식
전문 의식반(6개월)	점안의식, 각종시식, 특별의식
작법 의식반(6개월)	바라춤, 나비춤

- 원서접수 기간 : 2005년 1월 31일(전화접수 가능)
- 개강일시 : 2005년 2월 14일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 사진 3매

특전
1. 타의식 교육원에서 교육 수료 후 안채비성 등등 부족하신 분 집중지도 함
2. 의식과정 수강 시 강원과정 무료 수강함

※ 본원은 초종파 승속 불문하고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선착순인 관계로 미리 원서접수 바람

송강 범음 강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번지

전화 :031)676-5939 ▶서울, 경기 지역에서 40분거리임◀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관음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 1동 950
종무소 051) 754-2210 유치원 754-6120
어린이집 755-2888 수련관 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 지 송구산
부주지 용 일
재 무 진 각
신도회장 홍일랑
사무국장 안종명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전화 051)467-3316

황령선원 홍제사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3동 산51-2
전화 051)802-0130

밀양 천황산
얼음골 천 황 사
- 보물제 1213호 석불좌상 -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전화 055) 356- 2540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주 지 김정각
불교자비원이사장 김성길
새샘복지재단이사장 정하용
노인대학학장 김연순
바라밀합창단단장 이정희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장 김경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
전화 051)404-4300, 403-4848
팩스 051)403-4860
E-mail:jbwooo@cholian.net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 지 정만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계 승 사
경남고성군사암연합회
주 지 법진
고성군 공룡엑스포 성공기원과 회원사찰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전화 055)673-5622,673-0281

대한불교조계종
마산중앙포교당 정 법 사
주 지 호암 지태
신도회일동
〔부설〕 대자유치원,도솔유치원,영축불교대학
경남 마산시 합포구 추산동 65-1
전화 055)246-8393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051)508-0345 / 팩스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황 련 사
주 지 아견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1296-29
전화 051)756-579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수사
대중일동
부설)운수불교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5번지
전화051)323-5671

반냐라마 근본불교학교
근본도량 신어산 다보선원
서울 지혜선원
대구 지혜선원
최고지도법사 빅쿠 붇다하빠-라
대표법우 혜일법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전화 055)331-2841
서울 02)597-2841
대구 053)475-2841
홈페이지 www.bodh.net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정토공양원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대한불교조계종
해 인 정 사
(부설:해인경전대학)
주 지 수진
관음예불회원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
전화 051)202-4933

진 영 포 교 당
주 지 한 파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
전화 055)343-2267

거제시 계룡산
계 룡 사
거제시 제일의 기도도량
거제시 최초의 불교어린이집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05-9
전화 055)635-3248,4842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광불교대학
주지 상진
신도회운영위원장, 부회장, 상조회, 총무부, 재무부, 교무부, 문화원, 홍보부, 호법부, 섭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90-34
전화 051)816-2241 / 팩스 051)403-9801

지장불교근본도량 사회복지법인
공 덕 원
주 지 효 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3-3946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강선태
교직원 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 불교회관 5층
전화 051)867-9944
www.psbuddhism.org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홍말연, 조정숙
총 무 류경자, 하영조
재 무 김지언,박정연
감 사 이경월,이소연
교 화 김혜순,이복선,박갑연
운 영 임정숙,김경자, 서화영
봉 사 박영옥,김경희,김현숙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4-4166 / 팩스 051)867-8048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 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상임부회장 하문원
부 회 장 김종태,박영근,박수관,배영호, 이근철,이상태,이달수,조길제
감 사 임정웅,지호경
회원, 마야 부인회 일 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회관 3층
전화 051)818-9914(代) / 팩스 051)818-991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학 장 대 성(범어사주지)
담임법사 무 관
학생모집 2005년 2월 25일까지
전문분야(주,야) 금강경(주간)
육조단경(야) 원각경(주간) 법화경(야)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393-15 불교회관 5층 503호
전화 051)866-7277,864-7290
www.beomeosa.org

불 교 신 협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든든한 불교신협이 함께 합니다.
- 비과세혜택 예금 최고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0'
- 든든한 예금보호 1인당 5,000만원 까지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
- 텔레뱅킹(1566-6000),인터넷뱅킹
- 현금,체크카드 발급.
- 공제업무(암보험,종신보험,운전자보험,화재보험 등)
- 이사장 사상호 합장 -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7-18번지 건축사회관 1층
전화 051)633-9120~3 http//:www.bulkyocu.co.kr

재 단 법 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01

불자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원
회 주 대 성
원 장 임한석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4
전화 051)466-4080

강 서 예 술 촌
설립자 청 원
촌 장 강세우
회원, 직원일동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5979-5
전화 051)972-3912
팩스 051)971-3384

도서출판/불교용품 무량수
불교전문기획출판 보안기획
대 표 주영배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
(거상B/D4층)
전화 051)248-0011,255-5675
팩스 051)255-5676
0303-4242-0048
www.buddha21.co.kr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지부회장 류상영
수석부회장 하재훈
외무부회장 박상언
내무부회장 오세희
사무차장 박경수
부산시 동구 초량1동 974 소림불교회관1층
전화 051)467-5241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적멸극락 보궁 건립 추진위원회

증 명 고산
회 주 경하 현성
주 지 지성 호암

미타회, 연합회
보현회 신도회
사부대중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489, 0100
FAX 055)672-0481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보현회
관음회
금옥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2번지
종무소 055)337-0101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불교대학
경전과정(유마경)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 재가복지봉사센타,치매노인주간보호센타
용호어린이집,가정봉사원파견센타
무료급식(매일300여명),노인대학(매일200여명)등
관 장 혜 총
TEL 051)628-6737 / FAX 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선재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TEL 051)866-7771
FAX 051)866-7777

동율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

관음사 현 수
관음사 혜 원
자광사 향 공
정각사 해 승
동축사 선 혜
등용사 본 명
반야사 노 암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TEL 052)233-7176,281-0134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회 주 산 옹
주 지 현 담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39
TEL 052)295-7655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 금 사 회 복 지 관 관장 박용하 / 과장 채종현
■공 창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명현스님 / 부장 박신자
■금 정 구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정여스님 / 부장 정순화
■낙 동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임광수 / 부장 배의식
■두 송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지현스님 / 부장 김맹자
■몰 운 대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정련스님 / 부장 김민아
■양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범산스님 / 차장 장문숙
■양 주 암 어 린 이 집 원장 범산스님 / 원감 양금선
■용 호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관장 혜총스님 / 부관장 이춘성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 / 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혜스님 / 사무국장 이영숙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 / 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 / 사무국장 채인숙
■부 산 보 현 의 집 원장 이기표 / 총무 이영숙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소장 범산스님 / 부장 정현숙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박용하 / 사무국장 윤기혁

(재)부산불교신도회
(부설)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장·이사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감 사 김창석 서병흔 이대원성
기획실장 홍정표
사무총장 이욱태
재무총장 황국근
아카데미운영위원장 이숙희

이사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051)853-2021 FAX 853-2036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미륵산 미래사
주 지 여 진
신도회장 보리승

■ 법회안내
신중법회: 매월초하루(전체법회
보현법회: 매월 음력 초여드레(40-60세)
지장법회: 매월 음력 열여드레(전체법회)
관음법회: 매월 음력 스무나흘(20-40세)
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TEL 055)645-5324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직할포교원
반 야 원
주 지 목 종

대중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1461-7
(영진파스타8층)
TEL 051)701-5655

사단법인 법연원
을유년 새해는
모든 불자님들의
심중 소구 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 합니다.

지장참회도량
부산본원 총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관장 정련

● 내원정사유치원(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내원어린이집 (051-264-9033)
- 내원 시니어 클럽
- 사하재활후견기관
- 장애인보호시설 반야원
(구)치자마을 (055-632-1854)
◇ 재단법인 내원 청소년관
- 함지골청소년수련관(051-405-5233)
- 중구청소년문화의집(051-247-8425)
- 합천군청소년수련관(055-932-5662)
◇ 대한불교석암장학회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3-2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사회복지법인 무료노인요양시설
●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 자비의 도시락 전달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 이동 목욕차량 서비스
● 남해자활후견기관
● 하동 청소년수련관

대한불교 조계종 화방사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임직원 일동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1448번지(화방사)
전화 055)863-5011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152-1(화방복지원)
전화 055)863-2286
www.hwabang.or.kr

통도사 양산포교원
(부설:연아유치원)
주 지 志 守
신도회장 김보현심
유치원장 허우진화

경남 양산시 북부동 309-1
전화 055)386-2369,7527

밀양 사암연합회
증 명 지혜 신행
상임고문 혜오 태우
고 문 혜봉 일오 산옹 법조
선운 법우 성구
회 장 덕혜
지도위원 홍천 환명 시공 지견 법우
부회장 지현 만오 원봉
감 사 혜덕 법안 지공
기획실장 덕원 총무국장 정무
교무국장 원범 재무국장 만우
포교국장 성환 사회국장 성정
홍보국장 법오 섭 외 효수

천년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계명암
주지 선재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345

대한불교조계종
영 축 사
약사여래,관음기도도량,화엄선원(시민선방)
주 지 각 문
신도회장 안종길
신도회장 박순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1080
전화 055)381-6631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새아침에 정토를 꿈꾼다

지난해에는 국론이 분열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스런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체감경기가 오히려 외환위기때 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한 경제 상황속에서 을유년 새해를 맞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한편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한층 더 깊어진 한 해였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극빈층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밑일화들이 들려오고 있어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포근하게 해주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까지 메마르진 않았다는 증거다.

얼마 전 20여년간 폐품을 팔아 40대의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는 한 70대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이 뉴스로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온정답지는 지역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서로 연계 보도한 결과라 한다. 이러한 온정이 줄을 잇자 사회단체나 관공서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또한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도깨비노점상연합회 소속회원 30여명이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자 철거예정지인 종로구 창신동 거주 빈민들과 노숙자를 위해 이른바 '희망의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훈훈한 기사도 접할 수 있었다.

불황과 실업으로 얼룩진 우리 경제의 어두운 구석에서 기댈곳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가며 따뜻한 겨울을 만들고 있는 장면은 어느 한편의 영화 보다도 그 감동이 진하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내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한다. 바쁜 일과에 묻혀 살면서 주위를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인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집한 고철을 팔아 모은 돈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부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온정을 베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묵묵히 흐르는 저 소리없는 온정의 손길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이 보시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근원일 것이다.

불교에서도 오계파지운동(五戒把持運動)이 있다. 이는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자들의 공동운동으로 오계 중의 불투도계(不偸盜戒)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실천하자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시와 자비의 실천운동, 기아 질병 구호운동,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운동 등으로 복덕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덕목인 셈이다.

이러한 실천덕목을 입으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청정심이 넘쳐나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지 아니겠는가.

며칠전 남아시아에서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한국인과 불교인들의 정성을 전했으면 좋겠다. 새해 온정으로 세상이 밝아지길 꿈꾸어 본다.

신년 사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이다. 거기에는 종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각 종파는 물론 단위 사찰이나 교회, 신도 단체들이 저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커뮤니티 활동 또한 그 폭을 넓히며 인터넷이 종교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불교계도 인터넷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기에 분주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는 인터넷 세상에는 넘기 힘든 두 개의 산이 있다.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콘텐츠(자료)의 문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종교 사이트들은 이 두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과 자료 확보와 재가공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이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국제적 포탈, 그 파급효과에 비해 수익성이 약하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05년 신년 벽두 부다피아가 글로벌 불교포털로 변신한다고 선언 하고 나섰다. 일반 포털 사이트들이 갖는 기능과 불교

글로벌 포털 부다피아의 '희망'

전문 포털이 갖는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전문 사이트로서의 부다피아가 '세계인'을 타깃으로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 한 것은 한국불교계가 박수를 치며 반길 일이다. 물론 그 선언은 분명하게 가다듬어진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 할 때 유효한 것이다. 실시간 불교 뉴스는 물론 문화 전반의 자료와 역사 인물자료 등 세계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의 기본 틀을 구축한 부다피아는 세계적 포탈로 가기 위해 영문서비스를 먼저 실시하고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또 포탈의 기본 기능인 커뮤니티와 불서와 전통 문화상품의 온라인 거래, 각종 정보망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세계인에게 한국불교의 큰 힘을 보여 줄 계획이다.

이 같은 부다피아의 변화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다피아는 지난 10년 간 불교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정보서비스의 체계 구축 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불교계는 잘 알고 있다. 세계화가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지는 오래다. 올해는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이 구체적인 세계화 전략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래서 부다피아의 글로벌 지향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들었다 — 목표와 실천

고관(高官)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닦아가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모으는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만큼이나 희망찬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다.

을유년을 의미하는 닭은 모란과 함께 그려지면 부귀를, 국화와는 장수를, 석류와는 다산을, 맨드라미와 함께 있다면 높은 벼슬을 나타낸다고 전해진다.

굳이 이런 닭의 의미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알차고 내실 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어난 몸을 줄여 '몸짱'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쉽게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며 자조하기까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사람들이 있어서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발심(목표)과 수행(실천)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면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체험해 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종교간 화합의 노력은 지역 · 계층 따로 없는 것

얼마 전 교사친구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이외의 것들이 무척 많더라는 것이다.

또 친분 있는 미국인 중 한 명은 한국의 밤거리 곳곳에서 십자가발견하고는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서구 종교와 토착 종교, 전통종교와 신흥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분쟁 없이 살아가는 국가도 드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유난히 개신교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이 빈번해 불교계를 비롯한 타종교인들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과연 타종교인들만 그렇게 배타적인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가끔 불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면 타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다. 부지불식간에 내 머리 속에도 타종교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통해 종교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접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이를 보면서, 앞으로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사회사업에서도 종교계가 손을 잡고 활동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됐다.

세모,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에도 종교계가 힘을 합한다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상완(제주시 이도동)

후원금 쉽게 낼 수 있어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소한 성금을 내고자 각 종단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는 후원금 외에는 일시적인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아예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 또는 종교와 일반 사회복지단체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쉽게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부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한 점은 불교계 종단과 단체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가 어려운 이들을 둘러보는 이 때,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종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자(조계종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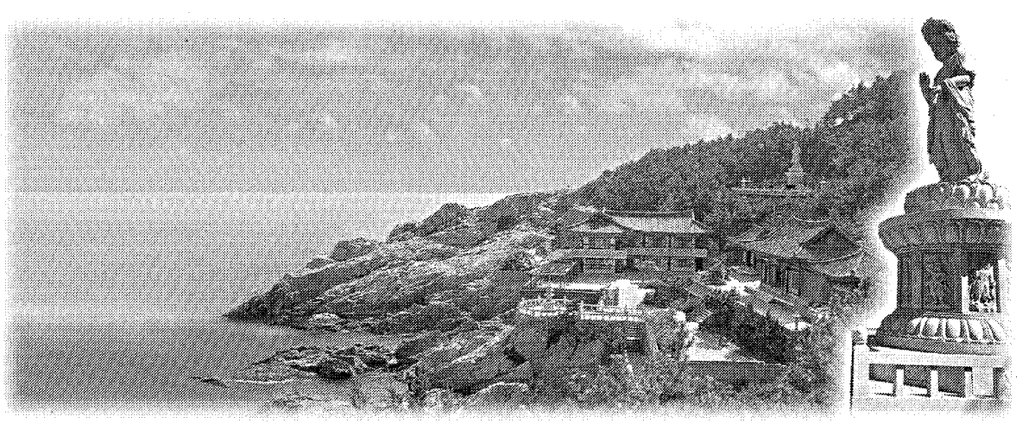


신년 독자 휘호 —— 지암 오태갑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현대' 만평 — 심 민 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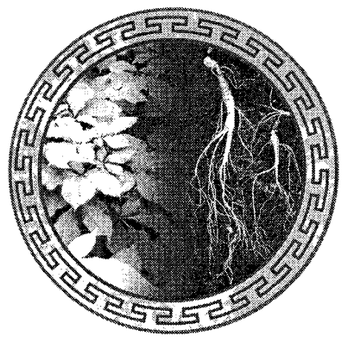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현풍F&B HYUN PUNG F&B CO.,LTD.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정 락
부 주 지 성 직
총무국장 영 명
기획국장 원 오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호법국장 지 강
박물관장 보 승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TEL 031)234-0040, 222-7891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신 흥 사

주 지 석마근

신흥사 향성선원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TEL 033)636-7044, 7393 / FAX 033)636-7556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총무국장 : 원 행　기획국장 : 인 광
교무국장 : 동 은　재무국장 : 법 상
사회국장 : 관 행　포교국장 : 무 주
호법국장 : 고 견　학 감 : 주 봉
원 주 : 자 월　박물관실장 : 해 운
연수과장 : 법 철

월정사 종무원 일동, 제4교구 신도회,
월정사 연합신도회, 거사림회, 청년회,
불교학생회, 어린이 자모회, 연꽃합창단,
연꽃유치원 자모회, 강릉 장애인복지관

사부 대중일동 합장

을유년 새해 두루 법체청안
하시옵고 만사여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종무소 : 033)332-6661~5 Fax 033)332-6915

大韓佛教曹溪宗 第 7教區 本寺

德崇叢林 修 德 寺



수덕사대웅전

方 丈 眞惺圓潭
住 持 法 定

修德寺 大衆一同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회 주 녹 원
주 지 성 웅

천불선원장 정 묵
승가대학장 흥 선

사부대중일동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종무소 : 054)436-6174, 6013 /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본사

銀 海 寺

주 지 중화 법타

부 주 지 선 광　총무국장 하 종
기획국장 보 명　교무국장 선 조
재무국장 천 은　사회국장 적 연
포교국장 종 원　호법국장 성 본

승가대학원장 지 안
연 수 원 장 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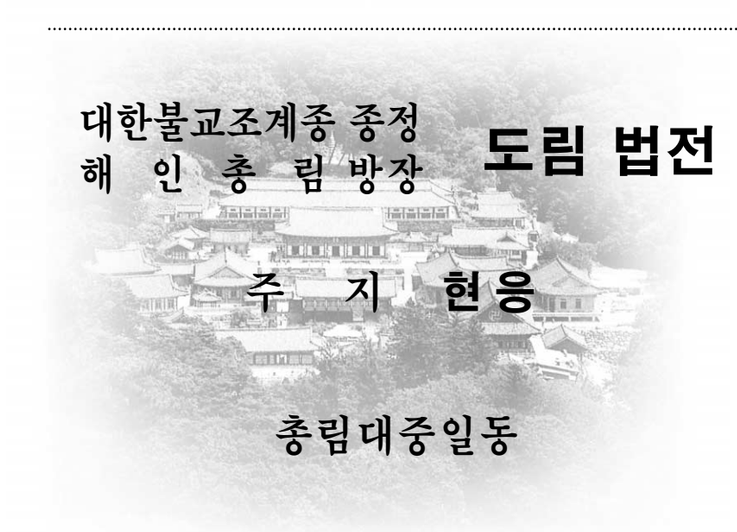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TEL 054)335-3318~9 FAX 054)335-0293 홈페이지 : www.eunhae-sa.org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TEL 055)934-3000~3 FAX 055)934-3010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 실 유성
주 지 선산
대 중 중범
경 범 산관
성 수
원 도
정 무
무 혜
혜 안
박물관장
총무국장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포교국장
연수국장
총무부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 www.beomeo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야부 초우
주 지 이산 현문
부주지 산옹 지은

총무국장 재 경
교무국장 문 성
사회국장 혜 초
호법국장 범 해
기획국장 재 원
재무국장 방 원
포교국장 선 오
원 주 범 철

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 22교구 본사

두륜산 대흥사

조 실 천 운
주 지 몽 산

사부대중일동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TEL 061)534-5502 FAX 061)535-5357 www.daeheung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 23교구본사

觀 音 寺

회 주 중 원
주 지 용 주
부주지 광 조
총 무 세 정
기 획 현 공
교 무 유 정
사 회 유 방
호 법 세 광

● 한라산 관음사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
TEL 064)755-6830 FAX 064)756-2202
● 포교당 보현사 :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TEL 064)722-2829~30 FAX 064)758-3367
● 홈페이지 : www.hallasangwaneu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부 주 지 오원
연수원장 수월
총무국장 석봉
기획국장 송묵
교무국장 화광
재무국장 혜만
사회국장 화해
호법국장 자현
포교국장 묘수
능엄학림 대중일동
사 무 장 이희준(법운)
회 계 이영미(일진행)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최고의 부품은 안전과 행복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차를 타든지 당신은 안전해야 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첨단 음성인식 멀티미디어 eXride, 첨단 인공지능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첨단 주행안정 시스템 ESP까지-
자동차와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 이미 당신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Inside your car –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정도(正道)를 잃었다.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물들고, 사회는 갈수록 혼탁해져 간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고, 정치는 상쟁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느낄 수가 없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기본'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부처님의 삶이다.
본지는 2005년 신년특집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기획을 마련, 개인 · 가족 · 사회 · 교육 · 정치 · 경제 6개 분야로 나눠 현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개인의 삶, 인류 역사의 핵 26
'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27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28~29
불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30~31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32~33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풀기 34
부처님 삶을 사는 사람들 37~38



그분의 삶엔 탐·진·치 발붙일 틈이 없었네



도법 스님

신년 특별 기고

벗이여.

멋진 한 해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과 세상을 잘 알고 그 앞에 온갖 거짓의 허울들을 벗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보네. 참된 수행이란 자신과 세상을 상대로 솔직 · 겸허할 때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믿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 중노릇이 왜 이렇게 힘들고 숨가쁜 것인지 그 이유들을 진지하게 따져보려고 하네.

큰 절, 큰 법당, 큰 선방, 큰 요사채를 짓고 꾸미고 관리해야 하니 어느 하루 한가할 겨를이 없네. 풍족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돈 많이 모으고 잘 관리해야 하니 어제도 오늘도 밤을 지새우게 되네.

큰 자동차를 타고 더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니 여유있게 나누고 베풀 여력이 생기지 않네. 좋은 옷 입고 맛있게 잘 먹으며 지내려고 하니 차분하게 경전 읽고 참선할 겨를이 없네. 사찰의 권위를 높이고 스님들의 영향력을 확대 · 강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써야 하니 골이 터질 지경이네. 재산 불리고 신도 늘리기 위해 기발한 묘안들을 찾아내려고 온갖 머리를 굴려야 하니 등골에 땀이 나네. 하는 것도 안 하는 척,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근엄한 모습으로 대중들을 압도하려고 하니 목이 뻣뻣하여 부러질 지경이네.

중노릇이 바쁘고 고달픈 이유를 대충 짚어보았네.

더 좋고 더 크고 더 편리함을 좋아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본 기억이 나네. 더 높은 권위를 누리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려는 것을 경전에서는 진심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자네도 알고 있을 것이네.

정직, 겸허, 소탈의 정 반대인 근엄, 정숙, 거룩함을 꾸미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네.

내용의 앞뒤를 따져 중노릇의 실상을 확인해본 결과 그야말로 전도몽상의 중노릇을 하고 있음이 확연해졌네. 중노릇이 바쁘고 고달픈 이유가 불조께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탐진치를 쫓는 일이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하지만 엄연한 진실을 어찌하겠는가. 이런 중노릇을 하려고 삭발염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탐진치를 쫓는 중노릇을 하느라 바쁘고 고단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과 세상을 기만하는 중노릇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을 찾을 수가 없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일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네. 착잡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네. 온갖 상념들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네. 뒤죽박죽 돼버린 중노릇의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참된 수행이란 솔직·겸허에서 출발

당연히 중노릇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네. 선사, 강사, 율사, 법사, 포교사 어느 모로 보나 중노릇을 최고로 잘한 사람은 부처님일 것이네. 종정, 조실, 방장, 총무원장, 주지, 그 무엇으로 따져보아도 중노릇을 제일 잘 한 사람은 석가모니임이 틀림없을 것이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네.

그렇다면 최초의 중인 부처님의 중노릇은 어떤 살림살이였을까 몇 가지 사례로 중노릇의 전형을 생각해보겠네. 본인의 식욕과 관계없이 주어진 음식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 잡수셨네. 버려진 헝겊조각들을 깨끗하게 빨아 옷을 만들어 입으셨네. 안고 누울만한 방에서 단순 · 소박하게 지내셨네. 안에 혼자 있어도 소탈했고,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소탈하셨네. 삶 자체가 탐진치의 씨앗들이 발붙여 싹틀 수 없었네. 동분서주해야 될 거창한 일들을 아예 꾸미지 않았네. 거룩한 모습으로 위엄을 꾸미는 일은 아예 가까이 한 적이 없었네.

굳이 부처님에게서 최고의 권위, 막강한 영향력, 신성한 거룩함 따위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리의 세계관에 대한 확신과 늘상 깨어 있는 지혜로움의 위엄이 있었네. 너그럽고 따뜻하고 헌신적인 자비의 기운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네. 솔직하고 겸허하고 소탈함이 일상의 삶으로 실천되는 거룩함이 사람들을 감화시켰네.

아함경과 율장의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 중노릇의 내용을 매우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네. 특히 승단의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제바닷다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와 말씀을 보면 저간의 사정은 더욱 분명하네. 수행자의 일상적 의식주 생활을 더욱 금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제바닷다의 주장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대단히 단호하시네. 제바닷다의 주장을 네 가지 성스러움의 종자를 끊는 일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

"의복, 방사, 음식, 약품을 얻으면 주어진 의복, 방사, 음식, 약품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라. 주어진 의복, 방사, 음식, 약품에 대해 만족함을 아는 수행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주어진 의복, 방사, 음식, 의약품에 대해 만족해하는 수행자의 소박한 삶을 네 가지 성스러운 종자를 가꾸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네. 금욕, 엄숙주의를 부정하고 정직, 소탈의 삶이 수행자의 성스러운 삶이라고 정의하는 붓다의 모습은 진정 멋지다고 여겨지네.

부처님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치는 자 일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길을 가르치기 위해 일생을 길에서 보내셨네. 하지만 늘 여유롭고 편안하고 활달하셨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처님은 언제나 주어진 조건에 스스로 만족하셨네. 어디서나 솔직하고 소탈하셨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항상 현재를 살아가셨네. 더 많이 갖고 더 편안하려고 애면글면 하지 않았네. 특별한 것 찾으려고 고심하지도 않았네. 엄숙하고 위엄있게 보이려고 꾸미고 자시고 하는 일이 아예 없었네. 어찌 편안하고 여유롭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인들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는가.

벗이여, 힘든 중노릇 그만하고 싶네. 전도몽상에 매달리는 중노릇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네. 정말 더 이상은 골머리 썩는 중노릇은 하지 않으려고 하네. 누가 뭐라 해도 올해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처님처럼 편안하고 소탈한 중노릇을 하고 싶네. 탐진치가 싹틀 수 없는 편안하고 소박한 중노릇, 부처님 같은 중노릇을 했으면 하네. 탐진치 불꽃에 현혹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전도몽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중노릇을 하는데 머리를 쓰고 싶네.

탐진치의 불씨를 더욱 왕성하게 타오르도록 만드는 기계문명사회, 물질문명사회, 도시문명사회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탐진치의 불길을 잠재우는 길을 안내하는 중노릇을 하는데 남은 세월을 쓰려고 하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만큼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 여유롭고 편안한 중노릇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 모르긴 몰라도 부처님처럼 소탈하게 중노릇하고 부처님처럼 길을 가르치는 중노릇을 하면 본인도 좋을 것이고 한국불교도 희망찰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네.

올해는 대중스님들께서 고단한 중노릇을 내던지고 편안한 중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을 할 수 있도록 신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내려고 하네. 불교의 희망, 수행자의 희망, 불교도들의 희망, 세상의 희망은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확신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지 대답을 듣고 싶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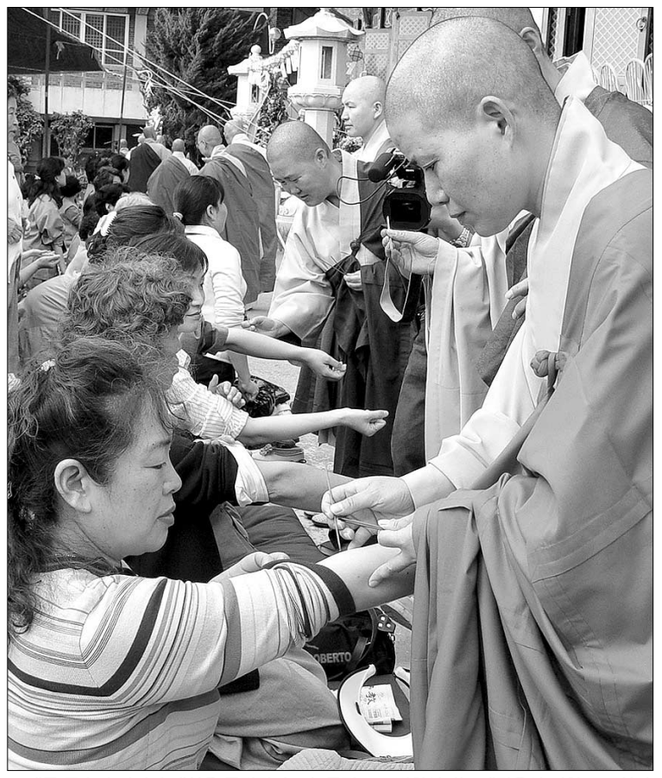
도법 스님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현재 3년 계획으로 '생명평화 탁발순례' 중이다. 《내가 본 부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등의 저서가 있다.



개인의 삶, 인류 역사의 핵

오직 '나' 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우리의 삶을 대립과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고도의 물질문명은 사람들을 '탐욕의 노예' 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나' 를 찾아야 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우리' 의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건강해 질수 있다. 부처님의 삶이 그것을 말해 준다. 오계, 자비봉사, 참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 를 먼저 바꾸자!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오계를 구속이 아니라 내삶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깨달음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사진은 수계법회에서 연비하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를 좇아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본성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치우치면 결국 가족, 사회, 국가의 건강을 좀먹게 된다. 실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권력형비리' 같은 모든 아귀다툼은 인간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한 악업이다.

'죽이지 말라(不殺生) 훔치지 말라(不偸盜) 음행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술먹지 말라(不飮酒)'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불자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할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규범이다.

지난 2003년 5월에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의 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생활속의 큰 깨달음- 오계 지키기

응답자의 32%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불자들이 계행의 실천을 불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계행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불자들조차 오계를 지키기 부담스러워 할 정도라면 하물며 일반 국민 개개인은 어떻겠는가?

12월 중순 경기도 모 사찰의 수계법회에서 만난 정선화(33) 보살은 "오계 가운데서도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한다. 6년 전 계를 받았다는 정보살은 "그냥 착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생활 하다보면 그게 잘 안된다"며 쑥스러워했다. 또, 자녀들의 권유로 이날 수계식에 참가한 권혁길(63) 거사는 "계를 받은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막상 이 나이에 5계를 지키며 살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불자들에게 마저도 오계는 경계와 구속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국대 목정배 명예교수는 "오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목 교수는 " '정견(正見)' 을 가진이라면 오계 정도는 불자던, 비불자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오계를 '생명을 존중하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청정하라, 진실을 말해 성공하라, 맑은 마음을 지켜라' 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오계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오계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 견해' 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데서 '우리' 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나가야 한다. 오계는 '구속' 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지침'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과 외형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는 인색하다. 자연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더욱이 종교마저도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복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10년째 아이가 없는 큰 아들의 득남을 위해 산신각에서 기도를 한다"는 김순희(68) 보살. "고3 아들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 100일 기도를 했다"는 최정희(45) 보살. 남편의 사업번창을 위해 매일 염불을 한다는 정한숙(56) 보살.

이처럼 불자들조차 맹목적으로 부처님께 '~을 이루어 달라' 는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에게서

삶을 가꾸자- 복은 짓는 자의 것

불교의 본래 목적인 자아 성찰과 진리탐구는 멀게만 느껴진다.

본지가 2003년 5월, 재가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앙형태에 관한 설문조사(421호)에 따르면 5 · 60대 불자 중 67%가 종교에 대한 이성적 신앙보다 무조건적인 기복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러나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맹목적인 기복은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다' 고 설한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의 행복도 결정된다는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건국대 성태용 교수는 '복(福)채점표' 를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복 채점표란 일정 단위의 재화나 노력을 어떤 복을 짓기 위한 일에 썼을 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복을 다시 일정한 단위로 표시한 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는 몇 점, 마을 입구 청소는 몇 점 등의 식이다. 불자들의 경우는 신행관련 항목을 추가하면 된다.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김현숙(48) 보살은 "불자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말끝을 흐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는 이상 깨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라며 오늘도 퇴근 후 불교대학 강의실로 향한다.

또 국토개발원 김의식(56) 거사도 10년 동안 일기를 쓰듯 자신의 신행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다. 김 거사는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 반성의 계기도 마련된다"며 뿌듯해 했다.

▮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자 (신행지수 체크표)

보다 풍요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 일상 생활의 점검표를 만들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보자.

항 목	점수(10점 만점)
계를 받았습니까?	
헌혈 · 장기기증을 실천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시를 하고 있습니까?	
도박, 오락, 경마, 게임 등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거짓된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까?	
노력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우자와 진실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칭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몸과 정신을 해치는 술과 담배 등을 자제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상의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일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을 짜증없이 대하려 노력합니까?	

각 항목당 점수는 10점입니다. 0~10점 으로 자신의 생활을 체크하세요.

- ■0~40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세요.
- ■41~70 중생심이 아직은 앞서는 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 ■71~100 상당한 근기입니다. 더욱 정진하세요.
- ■101~130 상근기입니다.

※도움말씀 주신분 : 효천(화방사 주지) 우학(영남불교대 관음사 회주) 유수(정토회 대표) 스님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성태용 (건국대 교수)

각박한 세상이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얇아진 것은 지갑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부모가 한밤 중 야산에 버려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간다. 하지만 전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나만 건강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는 식의 이기주의는 '나 살기도 힘들다' 는 당위(?) 앞에 묘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행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계에서는 사찰별로 구성된 봉사팀이 인근의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을 돕고, 포교사단과 불교대학 등의 신행봉사팀은 지역복지관, 군부대 등과 연계해 물품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아낌없이 베풀자- 육바라밀 실천을

또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등 많은 직장불자들이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밖에 20년째 지역 복지관에서 도시락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구룡사 강희예(45) 보살,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자광원 등에서 목욕 및 빨래봉사를 하고 있는 용인 수지포교원 김연희(36) 보살 등 많은 불자들이 지금 이시간도 생활과 봉사를 하나로 실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원봉사나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참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48%가 주당 4.3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호주 역시 15세 이상 인구의 19%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은 불과 10% 미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의 기부문화에 있어서도 2003년 미국의 기부금은 241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 2003년 한 해 동안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14곳의 모금기관에서 모은 돈은 4256억원으로 GDP의 0.06%에 불과했다.

강희예 보살은 "강남이라면 부자동네인 줄 알지만 의외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한 끼 도시락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남을 위한 마음과 하심의 중요성을 배워요"라며 남을 위한 삶이 갖는 보람과 봉사의 참의미를 일깨웠다.

이에 대해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는 나와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과 마음을 깨워 봉사행 등의 행동과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 김은경 · 노병철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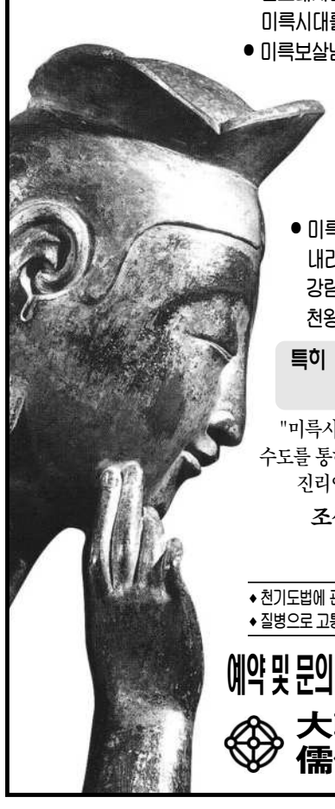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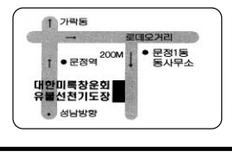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이미 해체됐다. 이혼율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출산률마저 2003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족’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전통 가족’의 붕괴와 부부 · 자녀 · 노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시점.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서로 존중하고 자주 대화하라

노인문제

‘할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속히 높아져 2004년 8.7%에서 2014년 12.2%, 2024년 18.3%, 2030년 23.1%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년인구(0~14세) 비율에 대해 노년인구 비율을 산출하는 노령화지수의 경우 2004년 43.3%에서 2016년 86.9%로 12년 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전반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는 그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 해체로 소외받고 경제적 빈곤에 처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가족 구성원에 있어 일곱 번째 서열이라는 웃지 못 할 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아빠, 엄마, 자녀 둘, 애완견, 가정부 그리고 조부모의 순서라는 것. 가족해체 시대에 만나는 현 가족의 현실이다.

고재욱 관장(은평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선가정 후국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과 이웃 친척이 담당하는 자녀형 복지와 국가차원의 제도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이 내 선업을 쌓는 길”임을 강조했다.

가족간의 의사소통 부재도 노인 소외의 중요한 원인.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불교에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대중공사를 도입해서 매주 한차례 온 가족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문제는 가족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노인복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시키고 종단 차원에서 혹은 각 사찰에서 노인대학을 만들어 노인들이 낮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의견이다. 자신의 활동영역을 가지는 노인은 좀더 주체적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범망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효(孝)가 곧 계(戒)’임을 설하셨다.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이 곧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이 설한 계율을 따르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

부부문제

있는대로 인정하자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 이혼, 결혼 3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율 급증, 이혼율 세계 3위’. 때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이혼에 관한 각종 통계로 ‘가족붕괴’에 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는 불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절에 가서는 각자 ‘상생’의 화두를 들고 수행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평소 습관대로 움직이며 잦은 마찰을 빚는 경우, 가사 · 육아 업무는 미뤄둔 채 사찰 봉사 등에만 발벗고 나서서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등 예는 상당하다.

그러나 한주영 연구과장(불교여성개발원)은 “불법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지혜란 다름아닌 상생의 지혜다. <잡아함경>에서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서로 공경하고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부부라 한다”고 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자 마음먹었다면, 서로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관심과 이해는 대화를 부르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신과 상대를 긍정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영호 겸임교수(성균관대 생활과학부)는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매년 혼인준비교실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과정’을 운영하며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부부갈등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문제

집착을 버리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를 택한 경우는 59.8%로 나타난 데에 비해 부모를 택한 경우는 1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지면서 ‘가족애’에 금이 가고 있다. <장노게>에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디서나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라” 했건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처럼 변질된다. 반면, 머리가 커진 아이들은 부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보현심 팀장(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 · 청소년팀)은 “부모는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아이의 행동을 재단하려 하고, 아이는 나름의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제약하는 무조건적인 강제에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백경임 교수(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는 <장아함경>의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부모도 다섯 가지로 자녀에게 경친(敬親)해야 한다. 첫째, 자녀를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둘째, 가르치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준다. 셋째, 자애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한다. 넷째, 선한 짝을 구해 준다. 다섯째, 때에 따라 그 쓰임을 대어준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 · 지자체 · 국가가 모두 나서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강지연 · 강신재 기자

가족화합 실천수칙 10계명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여섯 가지 화합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 지켜야할 열 가지를 정리했다.

1. 규칙을 같이 지켜라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부해라”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 책이라도 읽어라.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에게만 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2. 한달에 한번 가족회의(대중공사)를 하라 부처님께서는 ‘대중공사’를 통해 전체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셨다. 한 달에 한번 가족회의(대중공사)를 정례화하고, 결과는 수용한다.

3. 같이 밥먹는 시간을 가져라 요즘 가족들은 하숙생같이 혼자 밥먹는 경우가 많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대화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다.

4. 한 장소에 모여 살아라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아래 위층이나 옆 집, 한 아파트 단지 등 가까운 곳에 살면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삶을 공유해야 한다.

5. 부드러운 말투로 자비롭게 말하라 거친 말을 사용하면 감정이 상하게 된다. 말이 험해지면 감정이 격해지고 원치 않는 폭력을 부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악업의 하나임을 늘 강조하셨다.

6.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견은 다르다. 대학진학도 자녀와 부모가 바라는 학과가 다를 수 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왜 그런지 한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7. 같은 취미를 가져라 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취미를 가진다면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고스톱, 노래 등 공통 취미는 세대간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8. 책임을 져라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하지 말자. 놀러갈 약속을 해 놓고 부모가 어긴다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책임지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도 책임을 배운다.

9. 같은 종교를 가져라 가족법회를 개최하고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가족의 종교가 다르면 불화의 씨앗이 된다. 한 종교 안에서 같이 신행과 봉사생활을 해야 한다.

10.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낳는다. 특히 늦게 가족이 된 며느리, 사위 등에 대한 칭찬은 더 많이 하자. 오고 가는 칭찬 속에 가족의 정이 돈독해진다.

도움말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서광 스님(보스턴 서운사 주지), 이근후(가족아카데미아 대표) 백경임(동국대 교수)

한집서 3代 평화롭게 살기 – 이근후 박사네 가족 이야기

‘부모 봉양비’와 ‘동보메일’로 갈등 ‘훌훌’ 가족애 돈독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가족>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가족은 노동력을 많이 가진 가족”이라며 확대가족의 부흥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같은 가족질서 안에서 상생과 나눔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CEO의 자질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후(가족아카데미아 대표)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그 같은 가족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근후 박사 가족은 부부 내외, 아들 · 딸 내외 4쌍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근후 박사가 며느리나 사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몸소 느끼고 싶어 6개월~1년 간 한집 살림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 뿔뿔이 흩어진 자녀들이 최근 부모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해 오며 또다시 함께 모이게 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날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 장남이라고 부모를 모셔야 할 당위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20여명에 이르는 가족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 이 박사는 전 가족의 참여하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집을 설계했다.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딪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 각 가족은 각자 다른 층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공간 역시 각 부부 개성에 맞게 꾸몄다.

사적인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의 재미 역시 한껏 살렸다. 아파트 관리비 대신 ‘부모 봉양비’를 걷어 정기적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해 마당 놀이기구를 공동으로 마련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가족끼리 띄우는 동보(同報)메일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가족 수칙 ‘예띠의 집 헌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검토 · 수정하며 편한 생활을 지향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 이근후 박사는 “상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다보니 갈등이 쌓이기 전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하다”고 말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다 ‘독특한 불성’이 있음을 존중하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들을 가족처럼 긍정하겠다는 것이 ‘부처를 닮으려는 가족’의 궁극적인 목표다.

www.nexusshopping.com
이것이 진짜 물이다
전해환원수는 물이 아닙니다.
의료용 물질로 승인받은 기능水입니다.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자동세정에 따른 필터 물낭비 없음!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AK-3000 JP-1000
Bedesda AK-6000
인터넷 주소창에 “암당뇨아토피고혈압에좋은물”을 치세요
대리점모집·영업사원 / 제품구입 및 상담문의
한글인터넷주소 넥서스홈쇼핑
TEL:(02)5676-365 H·P:011-789-94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22-7 목화밀라트 1010

족욕 · 반신욕 효과의 혁명 의료용 증기욕조!
건강통돌이
국내최초 개발상품 FZ600A
의료용 증기욕조기 ‘건강통돌이’가 머리는 차게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두한족열 상태의 건강욕법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및 피부관리, 건강관리에 아주 뛰어난 의료용구입니다.
* 의료용구 인증 (식약청)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
* 실용신안출원 (제2004-0014856호)
* 특허출원 (10-2004-0038188)
– 수증기를 이용한 건강요법, 남녀노소 대만족!
– 사무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가능, 리모콘 온도조절로 편리
– 욕조없이 간편하게 족욕, 반신욕의 효과, 피로회복에 탁월
건강통돌이 출시기념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
• 웰빙 효과 직접 체험
•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쑥액기스 1상자 증정
웰빙산업을 주도하는 건강기업 C&H 씨앤에치
대표전화 02-482-6511
담 당 010-3130-949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6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수열(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5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 (정규반30명, 통신반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날이 갈수록 사회는 각박해져만 간다. 거리에 노숙자들은 늘어가지만 사람들을 무심히 지나쳐간다. 끝을 모르는 자본의 속성은 산을 벌겋게 헤집고 뭇생명들의 숨통을 조여온다. 개인주의가 확장된 지역주의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원칙은 무너져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이제 남은 것은 대박의 꿈밖에 없다. '한건 크게 터트린 뒤 이 땅을 뜨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

행복을 바란다면 남의 행복 먼저 챙겨라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먹고살기 힘들어 환경 · 인권 뒷전

을유년 새해를 맞는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은 그리 밝지만 않다. 사회 한쪽에선 각종 비만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지만 다른 한쪽에선 굶어죽는다. 환경과 인권은 먹고 살기 바쁘다며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회갈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2004년 12월 대구에서 김아무개군이 굶어죽었다. 건설노동자인 김군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지만 생보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행정당국에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2004년 12월 서울시가 파악한 거리 노숙자는 680여명. 지난해 500여명에 비해 180여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전국 보육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이면 찾아오던 기업체 등의 기부금이나 정기 후원금 등이 끊겨 어느 때 보다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동안 자치단체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897건의 환경관련 범죄를 적발했다고 지난 12월 밝혔다. 자치단체에서는 268건이 적발돼 지난해(221건)보다 21.3%가 증가했으며 유역환경청의 적발건수는 629건으로 지난해(561건)에 비해 12.1%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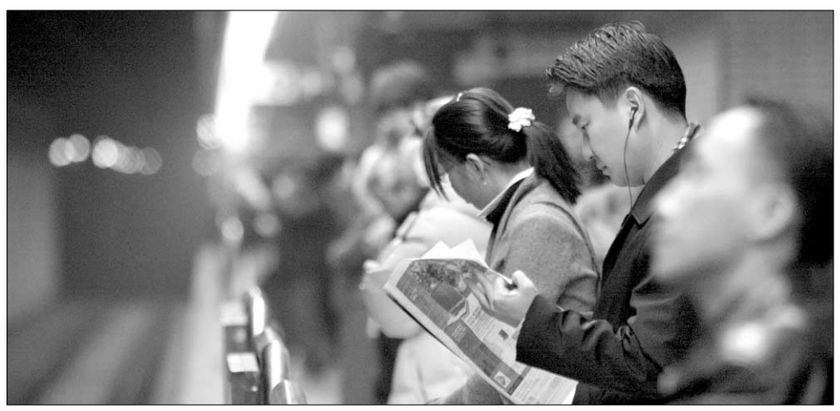
광주 YMCA 청소년 인권센터는 지난 12월 광주지역 청소년 1천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지수'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5%가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

2004 노숙자·환경범죄·인권 침해 현황	
노숙자	500여명(2003)→680여명(36% 증가)
지방환경청 적발 환경범죄	561건(2003)→629건(12.1% 증가)
경찰의 인권침해	2805건(전체) 중 1164건(41.5%)

※자료=노숙자(서울시), 환경범죄(환경부), 인권침해(인권위)



사회 한쪽에선 각종 비만 관련 상품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지만 거리의 노숙자는 늘어만 간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회 현실은 더욱 척박하기만 하다.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인권, 환경, 복지 등이 경제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 발표했다. 같은 달 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관 인권침해의 경우 경찰과 관련한 것이 1164건으로 전체(2805건)의 41.5%를 차지했다.

사단법인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은 지난 9월 "지난해 76개국의 평화관련 지표를 분석한 '세계평화지수 2004'는 71.8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화지수는 △정치분야(민주화, 인권 등) △군사 · 외교분야(전쟁 및 폭력행위 등) △사회 · 경제분야(불평등과 빈곤, 삶의 질 등) 3개영역의 지표들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무한의 탐욕 추구, 공동체의식 상실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경>

이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회 현실은 더욱 척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물질은 풍요해졌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지난 시절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의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욕망의 무한추구는 더욱 강고해져 연기론적 세계관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 이혜숙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 문제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가정해체 등 인간관계에 보다 깊은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각종 후원이 줄어들어 복지 환경이 척박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해체'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정한 동기나 대상 없이 소위 묻지마식으로 살해를 자행해 우리를 혼돈과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기가 불명확한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그 박탈감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인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제도 취약 등 사회적인 문제도 직 · 간접적인 범죄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열쇠찾기' 함께 나서자

종교계 '삶의 쉼터'여야, NGO강화



2003년에 비해 2004년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련 범죄 적발은 12.1% 늘었다. 사진은 천성산 살리기 집회 장면.

여러 가지 대안 중 박경준 교수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불교계 NGO들의 활동 및 연대 강화에 방점을 뒀다. 박 교수는 이상사회로 들 수 있는 '불국토 건설'을 위해선 어릴 때부터 불교적 가르침을 체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 마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더불어 '현재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불교적 이론 성찰과 함께 불교계 NGO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계 NGO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불교적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분야와 관련해 이혜숙 교수는 각종 복지시설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담시설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교수는 정부 및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편인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정신적 쉼터가 될 수 있는 종교계에서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 상담활동을 펼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불교적 사상인 '연기론'과 '삼세(三世)'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연기론적 세계 속에 있다는 것과 과거-현재-미래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있는 것을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와 사찰 홍보물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인지시킨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불교적 깨달음의 성찰 및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시점을 욕구 충족의 한계점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신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선 불교계가 개인적 성찰이나 깨달음에서 벗어나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왓티 기원정사에 계셨다. 어느 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보살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갖추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나이까?"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등정각(等正覺)을 성취할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벽지불에서 범부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 둘째로 자기의 눈이나 재물 등 귀중한 것을 주더라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셋째로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의 공덕을 위해서 해야 하느니라. 넷째로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모든 중생 가운데 보살이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구비해야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바라밀을 가지고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서원해야 하느니라." <증일아함경>

남동우 기자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9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 교 학 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사집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3절 불교대학 제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덕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 (TEL 02-382-7361~2)
· 각 시 · 도교구종무원

한국불교 태고종립 東邦佛教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 2동 330-586 ☎(02)-745-2030~2

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곤 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 또 우리 불교계 현실은 어떠한가.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2005년 한국사회 현실을 살펴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함께사는 세상' 만드는 사람들

나 · 너 · 자연 똑같이 존귀하다



김광하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이차환 포교사(오른쪽)는 매월 셋째 일요일 연주암에서 환경활동을 벌인다.



이춘성 부관장이 노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



평화실천 불교연대 창립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행사.

인권 : 김광하 '작은손길' 이사장

외국인 노동자 등 상담 · 지원에 매진

지난 12월 16일 저녁,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작은손길' 사무실에 다소 검은 피부의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을 맞는 '작은손길' 김광하(52 · 여운) 이사장과 상근자들의 표정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기만 하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댄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날도 뚜라(33 · 미얀마), 싯띠(34 · 네팔), 틴퉁아우(51 · 미얀마) 씨가 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과 이들 3명은 인사가 끝나자 외국인 노동자 모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에 관한 대화를 한참동안 계속했다.

김 이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해온 시간은 그리 짧지 않다.

김 이사장은 1997년 로터리클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한 김해성 목사의 강연을 듣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를 개설해 2001년부터 4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재해 보상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활동을 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활동에 뛰어든 계기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숙자, 독거노인, 탈북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손길' 의 첫 사업으로 작년 12월 23일에는 서울 신설동에 노숙자 쉼터 '사명당의 집'을 개원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귀하다고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김 이사장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 사상의 가르침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환경 : 이차환 포교사

공양간 돌보며 청정국토 실천

12월의 셋째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이차환(61 · 법운) 포교사는 관악산 연주암 공양간에 있었다. 전날 있었던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단 2004 감사의 밤'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서울에 도착했지만 아침 일찍 일요법회에 참석한 뒤, 수많은 등산객을 맞고 있었다.

낮 12시부터 2시까지 계속되는 연주암의 점심공양시간은 숨 돌릴 틈이 없다. '사찰식 비빔밥'으로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공양주 보살들이 3000명분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포교사는 몇몇 불자들과 함께 1992년 연주암 연불회(緣佛會)를 조직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공양간에 나와 설거지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포교사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월 둘째주에는 포교사단 환경특위 회원 20여명과 함께 서울 인근의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청계산, 삼성산 등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법어(法語)를 유인물로 정리해 나눠주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또 넷째주에는 선재동자원, 안양 등지청소년의 집 등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을 돌본다.

이 포교사는 "현재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포교사는 이어 2005년 계획에 대해서 귀띔했다. 2005년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포교사단 환경특별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포교사들이 전국에서 환경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 21'을 포교사단 차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은 일찍이 연기론을 설하시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르치셨다"고 지적한 이 포교사는 "날로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복지 : 이춘성 용호복지관 부관장

"이웃 고통 덜어주는 일에 최선"

무료급식 준비에 한창인 용호복지관 지하 식당에 들어서자 이춘성 부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봉사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이 부관장은 스스로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며 웃어보였다.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니 그분들의 기분이 좋아야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로봇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 복지를 하면서 이 부관장은 늘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처음 복지 현장에 왔을 때, 복지 실무 경험이 없는데다 이상만 높아 힘든 점이 많았다"고 털어놓은 이 부관장은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면 어디든 따라갔고, 궂은 일 마다않고 팔을 걷었다. 어려울 때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한다는 자긍심으로 힘을 얻었고, 스스로의 신심을 다지기 위한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며 더욱 고삐를 당겼다.

"부처님께서 만 중생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진정한 복지를 하고 싶다"는 게 이 부관장의 복지관이다. 물질적 서비스를 넘어 인식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복지사"라고 강조하는 이 부관장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대하며 그들의 존귀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부산 복지단체들의 협의체인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이 부관장은 "타 종교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기에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내부적인 투명성을 지켜내는 경쟁도 해가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사찰 1복지 시대가 왔으면 한다"는 이 부관장에게 복지는 25년 이어온 불교와의 인연을 회향하는 수행의 장이자 복을 일구는 밭이다. 이 부관장은 "남은 생 동안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복지현장에서 실현하며 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많은 이들을 제도할 수 있는 출가수행자가 되고 싶다"고 큰 욕심을 내비쳤다. 천미희 기자

지역 :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사회문제 해결 시민연대 이끌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의 무등산 입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이 진행된다. 2년 여 간 이어져 오면서 모금으로만 벌써 2700만원(2004년 12월 24일 현재)을 모았다.

이렇게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오고 있는 단체는 바로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 광주 선덕사 주지, 이하 불교연대)'. 불교연대는 2003년 4월 창립된 이후부터 한주도 거르지 않고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조불련에 전달했다.

불교연대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반대와 철회, 도롱뇽 소송 참여, 대통령 탄핵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운동을 비롯한 인권, 평화, 환경, 통일 등 사회영역 전반에서 지역 불자들의 여론을 대변해왔다.

불교연대는 지역의 불교단체뿐만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종교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종교계에서도 불교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연대 이해모 사무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처하다보니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불교계와 함께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연대는 2005년에도 지난 2년 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연대는 특히 12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에 공식 시민단체로 등록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불교계 내부 활동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기반이 약한 계층에 대한 포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불교계 내부의 자정운동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법 스님은 이어 "불교역시 지역 현황에 맞게 포교하고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세가 비교적 약한 호남지역의 불교를 일으키고 내실을 다져가는작업에 보다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철주 기자

한 · 국 · 불 · 교 · 태 · 고 · 종 · 과 · 함 · 께 · 하 · 는 개 · 교 · 기 · 념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4학기) / 연구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추가]
2005.1.10~1.31

◆ 개설학과

학 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인서화학과 (文人書畵學科)	서법예술전공 동방회화전공	00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측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문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 구 해
		범패실기 (홑소리)	심 상 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 법 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 상 배
		불화기초실기	원 미 희
	불교경전 강의	불교한문강독	심 재 동
		대승경전 연구	주 명 철
		불교기초교리	심 상 현
역경명리	역경학 강의	주역 연구	신 성 수
	육효학 강의	복서육효 연구	김 용 연
	명리학 강의	사주 초급	박 영 창
		사주 연구	박 영 창
		명리학 초급	김 동 현
		명리학 연구	김 동 현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 승 전
	육임학 강의	육임	효 사
	점성술 강의	정통점성술	이 현 덕
	풍수환경학 강의	생활풍수인테리어	박 시 익
		풍수지리학	정 경 연
민속문화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 • 음악 • 무용	이 정 섭 정 상 철
		무속 • 제의 • 민속	박 상 만
	가요 실기	가요 연구	임 부 희
	자연치유학 강의	대체의학 연구	이 송 득
		한방과 사주학	한 승 철
		비전한방론 연구	윤 영 배
		실전치유기공	최 원 섭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서법예술	한문서예 실기	금문,전서 연구	이 영 철
		예해 연구	조 성 주
		행초 연구	권 인 호
	한글서예 실기	한글 연구	노 승 환
	전각예술 실기	전각 연구 A	노 승 환
		전각 연구 B	조 성 주
회화예술	사군자 실기	사군자 연구	사공홍주
	수묵화 실기	수묵화 연구	최 현 익
	옷칠화 실기	옷칠화 연구	이 종 헌
	현대채묵화 실기	현대채묵화 연구	하 영 준
	서 • 화론 강의	서 • 화론선독	임 광 빈
외국어	중국어 강의	중국어 회화	김 영 진
	일본어 강의	일본어 회화	박 국 영
	한 • 시문 강의	대학,중용	신 성 수
		한시창작	정 총 락
		선시강독	김 미 선

*교육생이 적정수에 미달된 과정은 개강을 보류할 수 있음.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1.10~2.25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2매
◆ 접수방법
– 본 교육원 교학과에 직접 방문
→ 원서 작성 → 해당 등록금과 함께 접수
– 해당 등록금 온라인 입금
→ 본 교육원에 전화로 입금 확인 → 원서는 개강 시 작성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공통> ◆ 모집기간 : 2005.01.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 • 여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사주감정사
교재 최초공개!저자직강 민속문화학과 노 병 한 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자격증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장명의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사주학, 거림가택풍수학

시간 / 과정	기초 5주 (03.12~04.09) 과목명	강의시간	실전 13주 (04.11~07.09)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사주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천명사주학	(금) 18:00~22:00

민화진채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 공 임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침구 • 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 명 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

불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윤리경영'이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인간' 중심의 불교정신을 경영이념에 반영해 경영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도입 수준도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다. 기업의 본질인 이윤창출을 비롯해 기업문화, 노사문제, 조직혁신, 의사결정 방식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의도와 배경도 분명하고 자발적이다. 누가



나눔 위한 이윤추구 기업문화 확산



중도 · 자리이타 등 접목하기 최선 … 템플스테이 · 사회봉사로 실천

● 윤리경영 · 나눔경영 시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1월 내년 기업경영의 화두로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이어 2005년초에는 업종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재계 차원의 '윤리경영 확산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윤리가 경영의 좌표가 된 셈이다.

이 같은 기업의 경영 변화는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사회책임경영'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간담회를 갖고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2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이들 기업들은 지난해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410억 원을 기탁하는 등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이 윤리와 나눔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1차적인 이유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도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즉 '깨끗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 받는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노부호 교수는 "윤리경영은 지난 2001년 미국 엔론사가 분식회계로 파산을 맞았던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영이념"이라며 "기업이 윤리, 도덕 등의 보편적 가치를 소홀히 하면 생존조차 어렵기에 결국, 윤리 등이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서 받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한다.

● 대기업들 연수에 수행법 포함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40쪽짜리 <경영과 동양적 사고>란 보고서에서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경영이념은 '인간' 중심의 전통동양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낸 서양식 기업경영이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경영이념과 기업문화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과 나눔경영 형태의 새로운 경영모델은 기업경영의 목표 설정, 이윤의 사회환원화 과정 등에 바로미터 역할이 됐다. 이윤환원 방식의 '길과 틀'을 제시한 것이다. 또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와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전통동양정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신경영이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불자 기업인 SK글로버의 전신 SK네크웍스(대표이사 정만원)의 경우, 용타 스님이 1980년 불교원리를 바탕으로 명상 등의 각종 수행법을 취합해 개발한 동사섭 연수를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해 임원진 90%가 이 연수를 거쳤다. 올해부터는 아예 다른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삼성그룹은 올해 삼성인력개발원이 강원도 월정사에서 진행한 선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삼성리더과정에 포함시켰다.

● '투명 경영' '정직 경영'으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경영에 응용하고 것이 핵심이다. 불교적 경영론의 핵심이 바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 중심의 자리이타 사상이 현대 기업경영의 고객만족철학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하이테크 세라믹 전자회사인 일본 쿄세라 주식회사를 창립한 불자기업인 이나모니 쿠즈오 회장은 경영방식의 영감을 타인에 대한 자비와 배려를 갖는 자리이타에서 찾았다. 오랫동안 선불교에 심취해온 그는 인간이 경영의 근본이라고 강조, 이윤은 이러한 윤리적 토대에서 창출해야 한다고 믿었다.

선적인 깨달음에서 경영지혜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 삼성그룹을 창립한 고 이병철 회장은 집에 모신 불상 앞에 늘 정좌해 선정삼매를 들었다고 그의 자선전에서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매시간 이뤄지는 중요한 사업결정을 평정심으로 처리했다고 술회한다.

첨예한 노사대립의 해법을 불교에서 찾은 기업도 있다. 지난 1996년 정부 지정 1호 도매센터로 설립돼 서울 동대문 패션몰의 막을 열었던 프레야타운이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것이 그 사례다. 당시 3천2백여 점포들이 입주했던 프레야타운이 98년 문을 닫을 처지가 되자, 불자인 배관성 사장은 모래알처럼 개별화된 입점 상인들에게 일체감과 공동운명체 의식을 심어줬다. 입점상인과 사장과의 화합으로 침몰 직전의 프레야타운을 회생시킨 것이다.

특히 배관성 사장은 이 과정에서 '바른 경영'과 '고객존중'이란 경영이념 정립을 불교의 '팔정도'에서 얻었다. 업종을 개발하고 상품을 구성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았다.

배관성 사장은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경영과 정직경영을 하는데 불교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 경영의 새 패러다임 '불교'

성균관대 경영학부 유필화 교수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던 불교에서 기업 경영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언어, 풍습, 사상에 스며있는 불교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유 교수는 "중도의 가르침이 경영철학의 핵심 키워드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즉 분산과 집중, 현상유지와 혁신, 전체와 개인, 모방과 창조 등의 기업 가치를 고민할 때, 불교는 명확한 지침이 된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이념과 가르침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불교 외에도 많다. 청교도주의적 윤리를 기업경영이념으로 한 의류기업인 신원그룹은 믿음, 정직, 선도 등의 3대 이념을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한 기업윤리 정착' 등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의 핵심가치를 '섬김'에서 찾고 있다. 아예 개신교 정신을 기업문화로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다.

뿐만 아니다. 원불교는 이미 2000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가교도들을 중심으로 '원불교 서울기업인회'를 창립했다.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불교 신자 기업인 30여명이 이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회원 상호간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단의 경제자문 등 교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칙을 제정하는 등 원불교 정신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면서 불교정신이 '新 경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들이 자원봉사 캠프에 참가한 모습.

김철우 · 강유신 · 배지선 기자

▮불자 CEO 얼마나 되나?

국내경영인 13% 650명이 불자



이건희



구자경



정몽구



신격호

최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국내 경영인 5천1백 명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종교인 1천883명 중 불교신자는 34.5%(650명)로 집계됐다. 이외 개신교 42%(790명), 천주교 21.5%(405명) 순으로 분석됐다. 국내 경영인 10명 중 불자 경영인은 1명이 조금 넘는다는 의미다.

본지가 조사한 국내 100대 그룹의 기업총수 종교 현황에서도 불자는 15%(15명)로 나타났다. 불자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자경 LG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회장,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 신춘호 농심회장, 김중기 동부그룹 회장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 손연호 경동보일러 회장, 선우영석 한솔제지 부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남상수 비비안 회장,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등도 불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기도처 지혈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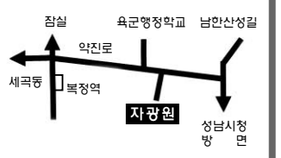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흙당어리 돌당어리 항금당어리 흙가마한 돌이틀어와 항금운으로 변합니다.

배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불자 CEO들은 물론, 일반 기업임원들도 불교에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찾고 있다.

기업들은 불교에서 어떤 경영지혜를 배우고, 또 닮으려고 하는가. 기업과 CEO들은 '이윤추구'와 '윤리적인 길'에서의 균형 잡기 방법을 불교에서 어떻게 찾는지 국내 · 외 기업체를 통해 살펴본다.

'불심경영' 하는 기업들

■연매출 3조원의 동국제강

국민 이익 먼저…올곧은 장인정신

故 장경호 회장의 불심 '무파업' 기업으로 승화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 동국제강을 세운 장경호 회장은 평생 모은 재산을 불교진흥을 위해 사용했다. 사진은 1975년 대원정사 이사회의 모습(맨 오른쪽이 장경호 회장).

근대한국 불교기업하면 떠오르는 동국제강. 1954년 조그만 못을 만드는 공장에서 출발한 동국제강이 2004년 연매출 3조원 매해 540만 톤의 강철제품들을 생산하는 철강왕국으로 도약한 데는 故 장경호(1899~1975) 회장의 독특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 회장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이익을 나누면서 불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장 회장은 27세 되는 해 통도사 동안거 결제에 동참한 후 "나는 상업에 종사해 크게 돈을 벌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교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장 회장은 점심 한 끼 사먹는 일 없이, 용돈 한 푼 쓰는 일 없는 근검절약을 실천, 평생 모든 재산 33억원(현재 2천억원 규모)을 불교 중흥을 위해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불교진흥원, 불교방송, (사)대원정사, 신행모임 대원회 등이다. 장 회장은 60대까지 매해 동안거를 사찰에서 보내며 참선과 정근에 몰두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며 경영자이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장경호 회장의 수행자적인 삶은 동국제강만의 독특한 불교경영 방침을 만들어냈다. 사치품과 소모품에 치중하지 않고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이기는 경영방식을 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동국제강은 오로지 국가의 국민의 삶에 이익을 주는 좋은 철강제품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는 법이 없었다. 장 회장은 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전통은 오늘의 동국제강 속에서도 살아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경영관'과 잘 할 수 있는 분야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올곧은 장인정신으로 이어졌으며, 노사가 따로 없이 구성원 모두가 주인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노사공동경영방식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창출해냈다.

동국제강 노사는 1991년 노동선언문을 만들어 '신노사문화'를 주도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첨예한 노사문제를 겪던 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95년 국내 최초 무교섭 임금타결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동국제강인들은 이런 동국제강의 노사문화를 '노사불이(勞使不二)' 정신이라 표현한다. 이런 노력 끝에 동국제강은 유니언스틸, 국제통운, 동국해운, 국제종합기계 등을 거느린 철강전문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벽지부문 업계1위 (주)did

사원과 고객 '마음읽기' 성장 동력

허훈종 사장 경영원칙은 '인과법'과 '투명'

'전국시판 3년 만에 벽지부문 업계 1위, 전국20여개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디자인 본고장 이태리 최고의 벽지회사에 디자인 수출, 2003년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대단위 소비자 조사결과 만족도 85.7'

1997년 설립한 한국최초의 전문 벽지 및 인테리어 소재 전문 디자인 마케팅 회사 (주)did. 자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did가 2005년 현재 매출 100억원대 중견기업 진입을 향해 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did 성장의 핵심은 사원과 고객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주는 '마음경영'에 있다. did의 대표이사 허훈종 사장은 인과법을 믿으며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가장 근본 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불자다. 허 사장의 이런 마음경영은 기업경영의 핵심을 이루며 곳곳에서 드러난다.

did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중시했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 공급을 사명으로 삼고, 매출액의 20%를 디자인 브랜드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디자이너와의 상담코너까지 마련했다. 당장의 득실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출.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did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허 사장은 모든 직원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위임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did의 이런 경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직원들에게는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did의 마음경영은 열린 경영, 투명경영으로 이어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객과 사원들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밀이나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did는 회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경쟁회사가 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제품의 실시간 재고상황과 앞으로 출시될 디자인까지도. 기업에 다가올 손해보다 고객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언론사 지정 히트상품을 나았다.

현재 did는 20여개월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주택 미니어처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삭막해지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 웃음과 사랑을 불어 넣고 있다. 박희원 이사는 미니어처의 무상공급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id는 국민들에게 주는 기쁨과 사랑이 더 큰 득이라며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DID 직원들이 아침 회의에 앞서 합장인사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일본의 기업들

"사업할 때는 부처의 일처럼 하라"

후지은행 · 미추토요사 등 불교정신 고객 감동

'경영은 타인을 돕겠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쿄세라 사 이나모리 쿠즈오 회장. 전화통신회사 DDI를 창업한 그가 최근 재계를 은퇴하고 입산출가한 일은, 일본 불자기업의 경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모든 상업 활동은 부처의 활동'이라는 확신이 바로 일본 불자기업경영의 공통점이다. 이 같은 경영이념의 시작은 13세기 정토진종의 렌뇨(1415~1499) 스님이 주창한 '사업을 할 때는 부처의 일처럼 하라'는 불교경영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불교에서 경영이념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큰 민간은행인 후지은행의 설립자 야스다 젠지로 회장은 '정직과 신용, 친절'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당시 야스다 회장은 고객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경영방침을 펼쳤다. 누구든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이는 '아미타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그의 자비관에서 출발한다.

'동체자비' 사상을 경영이념으로 한 기업가도 있다. 세계적인 정밀기계 제조회사인 미추토요 사를 설립한 누마타 예한 회장과 그의 일가가 그렇다. 지금 불교전도협회를 맡고 있는 예한 회장의 아들 도시히데 현 회장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체 카오 사를 창립한 마루타 카오 요시로는 노사관계를 '도반'이라 했고, 회사를 '도량'으로 여겼다. 또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상품 연구활동이 곧 지혜를 계발하는 길로 믿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대만의 기업들

'나눔' 기업활동의 기본 '코드' 정착

불광산사 · 자재공덕회 등에 정기적 기부

불교적 마인드를 기업경영으로 도입한 대만 기업 대부분은 철저한 나눔경영을 실천한다는 특징이 있다. 까오슝의 불광산사, 화니엔의 자제공덕회 등 주요 불교단체에 정기적인 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통기업인 신광(新光)그룹 우뚱이엔(吳尊玄) 회장은 대표적인 불교사회복지단체 자제공덕회에 매년 대만달러 1억원(한화 35억)을 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또 전자제품 기업인 똥셩(東昇)TV 사는 1999년에 일어난 9.21 대만대지진 사태 당시, 재난민들에게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이렇게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은 사회와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중국신탁상업은행의 경우, 지난 1984년부터 20년간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2만명의 아동들에게 1억6천만원(한화 56억원)을 전달하는 등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 불자기업들의 불교적 경영철학은 다양한 사회책임경영으로 이어졌다. 지난 1987년 결성된 영동연의회(榮董聯誼會)는 대만불자 기업가 80여 명이 모여 자연재난, 사회복지기금 조성 등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1백만원(한화 3천5백만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불자기업체 21곳을 대상으로 '불교와 기업경영과의 관계'를 연구한 린조우쩐(林佐振) 연구원(대만 국립 중산대학 기업관리연구소)은 "경영자가 불자인 기업의 공통점은 불교가 경영이념, 조직정서 등 다방면에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비와 지혜를 함께 굴린다(悲智雙運)'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스님분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룐 행실도, 신이당,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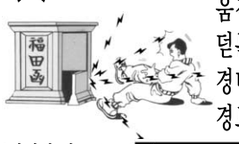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H·P 018-690-498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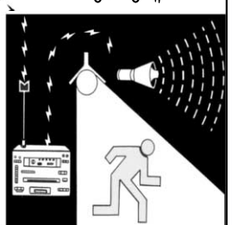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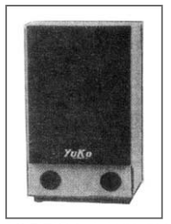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불임에는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여러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시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멎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빈혈병이 나았다.
● 이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불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법화와 깊은 성의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환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최근 일어난 밀양성폭행사건과 수능부정 사건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수능점수를 비관하거나 '왕따'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학벌지상주의에 물든 오늘날 교육현실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심성과 특

바닥 찍은 '인성교육' '전인교육'

흔들리는 '백년대계' 속 청소년 문제 · 입시부정 속출



학력지상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은 수능시험 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 상처투성이 교육현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26% 이상이 학교폭력이나 '왕따' 피해를 경험했고(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년),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조차 80%에 달하는 학생이 커닝을 경험한 적(잡링크, 2004)이 있다고 한다. 입시철이면 시험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매년 초 · 중 · 고생의 1% 정도가 해외유학을 떠나는 '교육 대탈출' 현상도 이제 그리 새롭지 않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과과정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로 짜여지고, 개인의 적성과 개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성적'이라는 하나의 가치로만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암기' 와 '주입' 위주의 교육은 자연히 인성(人性)교육의 부재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기보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경쟁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교육의 원래 목적은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본질적인' 의미의 교육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고 있다. 여러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 학생들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대안학교 등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대안'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경쟁과 이기주의를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직접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며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실천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개개인이 지닌 본유의 심성과 특성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도 전인교육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논산대건고는 현재 영화감상, 식물탐사, 성(性)교육, 명상의 시간 등 30여개의 인성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매주 월요일 직접 자신의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진안공고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명상과 기체조 등 심신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는 매주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되는 토요 체험학습을 통해 시장 보기, 옷 만들기, 집 짓기 등의 생활체험을 비롯해 자연체험, 예술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들의 특기와 관심사항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재량활동시간(CA)'에 인성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도 있다. 경기 성남 매송중과 이매중은 요가 계발활동반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에게는 명상과 기체조 등을 통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다.

입시전쟁을 통과한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대와 한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템플스테이를 정식 학점 인정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삶과 배움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불교의 가르침에 해답이

부처님의 교육방식을 대표하는 말로 '대기설법(對機說法)'을 들 수 있다. 진리를 구하려는 사람의 근기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가르침을 펼친 부처님의 교육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육 현실은 어떨까? 14살 수진이의 예를 살펴보자.

수진이는 석 달 전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에 다닌다. 발육이 늦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진이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또래 친구를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진이의 부모는 치료와 보육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공동육아 모임은 수진이네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해줬다.

계층 · 지역 · 성(性) · 장애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수진이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환영한다"고 확신하게 됐으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수진이의 예에서도 보듯이 조금이라도 남과 '다른' 아이들이 현재의 제도교육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만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지혜터득'을 이념으로 하는 이우학교(경기 성남)나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 친환경의 생태체험교육'을 목표로 하는 헌산중학교(경기 용인) 등은 물론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풀무학교(충남 홍성)도 이웃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려 애쓰고 있다.

나와 타인, 사람과 자연의 공생과 생명의

☞33면으로 계속

종교계 '대안교육' 현황

12월 24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대안학교를 공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고 선언하며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체계와 철학, 정책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시도되는 있는 대안교육의 활성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불교계 실상사 작은학교 유일… "여건은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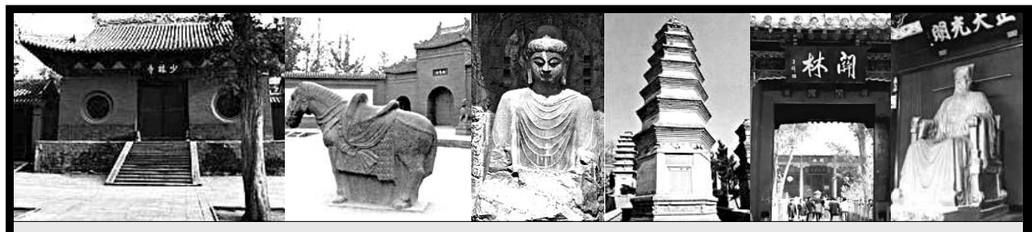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불교계에서 전인교육이라 할 만한 교육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단 한곳.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불교계는 훌륭한 '대안적 사상체계'를 갖고 있지만, 아직 '꿰지 않은 구슬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개신교와 가톨릭, 원불교 등에서는 이 같은 교육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지난해 '크리스찬 홈스쿨링 협회'를 창립했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만도 7곳을 운영하는 등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원불교의 경우 6곳(정부인가)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건설부지 매입도 마친 상태다. 원불교 중앙총부 이성일 교무는 "대안학교 설립의 목적은 포교나 교화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데 있다"며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의 대(對)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고, 공교육의 모자란 부분도 채움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 하면서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며 "불교계는 사찰이라는 친자연적 환경과 교리의 사상적 배경을 갖추고 있어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 여수령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2월 9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5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삼국지 관우의 묘지 탑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2월 9일	인천 정주	전세기 CZ8090	22/50 23/50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0일	정주 등봉 낙양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등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 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1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원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2월 12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밀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섬간회관, 포청천의 관저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철탑공원 관광. 정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3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팁,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정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신청마감 : 2005년1월 24일 ◆계 약 금 : 150,000원 ◆비자수수료 : 18,000원
◆연 락 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2-4522, 8922
FAX 02)337-3231, 3858

성을 길러주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모범이 되는 것을 전달하고 학습한다'는 본래 뜻과는 너무도 멀어져 버린 우리의 교육 현실. 일생을 어리석음에 빠진 중생을 교육하는데 몸 바친 '인천(人天)의 스승' 부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새틀 짜기 온 국민 마음 모으자

'성적·경쟁'보다 '인간·생명' 가르쳐야… 대안교육 시급

☞32면에서 계속

존엄성을 지향하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아이들에게 그려주려는 세상은 부처님이 일러준 연기론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종립학교의 작지만 큰 노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종립학교는 현재 28곳(초 · 중 · 고).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과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종립학교라 해도 전인교육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여력은 없다. 재량활동시간(CA)을 빌어 풍물놀이, 한자학습, 역사탐험, 생태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교법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불교교육연합회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시청각 교재-중고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집〉과 10장의 CD를 펴냈다. 제7차 교육과정 들어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문화심성교육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교적 가르침을 반영해 마련한 교재다.


마석 보광사에서 들살이(캠핑)를 마치고 주지스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성미산학교 어린이들. 성미산학교는 서울시내에 문을 연 첫 대안학교다. 사진제공=성미산학교

또 8월에는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동영상 인성교육 자료 '날마다 한 생각'을 제작하기도 했다. 투지 · 실천 · 포용력 등 을 주제로 한 조회나 종료 시간에 5분간 방송함으로써 일종의 명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들은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효과적인 심성교육법을 직접 수업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회 시간에서 이뤄지는 참선이 거의 전부다. 대안학교가 참선이나 명상,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교법사단 김형중(동대부고)단장은 "요즘의 CA 시간은 예전과 달리 요식행위가 아니어서 활용도가 높다. 학생이 원하고 교사가 열성적으로 지도할 수만 있다면 CA시간에 참선교육을 시행해봄직 하다"고 긍정하면서도 "소수의 학생으로 운용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대안학교와 달리 입시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교 현실에서 인성교육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변해야

부처님은 〈출요경〉에서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수행하고 책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삐뚤어진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두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빡빡한 교과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심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주지역 초중등 교사들의 모임인 '행복한 학교 만들기 모임'이나 명상교육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교사들의 모임인 '밝은세상 교사들'(cafe.daum.net/bwteacher) 회원들은 학교 계발활동 시간에 마음탐구반, 명상수련반 등의 이름으로 계발활동반을 개설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 정광고 이동배 교법사는 교내에 다도반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도교육을 통한 정서함양을 돕고 있다.

이 교법사는 "차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정서 순화는 물론 겸양과 예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금정중 이석언 교법사는 최근 '불교적 심성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적응아 지도 방안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를 화랑도 수련사상을 응용,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 우리의 학부모들은 '새로운 교육방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 아이가 남과 다른 길을 걷거나 경쟁에 게 지는 것은 곧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아야 할 시간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하기 십상이다.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불사하고, 조기유학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과외와 입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주입'과 '성적향상'이 아닌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임을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펴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불국토(佛國土)가 아닐까?

여수령 · 박익순 기자

■ '신도교육'도 내실 채우기 시급

바른 삶 가르치기 아직은…

제도 갖춰졌지만 현실 못 따라가


매년 수많은 불자들이 신도기본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인 신행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계사에서 열린 신도 교육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 삶'을 사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신도교육이다. 공교육과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신도교육은 불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불교의 신도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실천력을 이끌어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아직도 절을 보거나 입시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을 찾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사찰에서는 신도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기복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처님의 생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자가 부지기수다.

조계종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신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과정을 3단계로 심화하는 신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은 310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신도교육 기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신행하는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찰을 드나드는 신도 가운데 신도교육을 받은 불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례로 조계종에서는 불교신자 수가 전국적으로 약 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올해 포교원이 집계한 신도기본교육 이수자는 겨우 8천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B사찰 교무국장은 "불자들 스스로가 신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사찰에 출입하는 불자 모두를 강제적으로 신도로 등록시키고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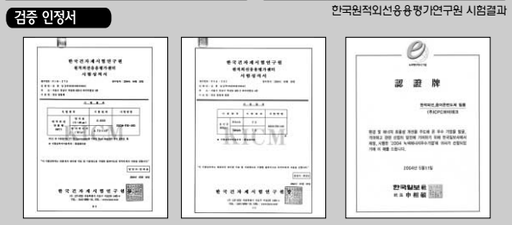
하지만 신도교육을 받은 불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참된 불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자들은 6개월에 이르는 기본교육기간을 마치기도 벅차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후 이를 자신의 실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하지도 못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3년 신도기본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받은 불자들의 봉사활동 및 신행활동 참여도는 10점 만점에 5.9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소재 A사찰 교무국 직원은 "교육을 받은 후 사찰에 등록하는 신도가 전체 교육 이수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봉사나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가정교육의 기본이 되는 불자교육이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불자들을 정법의 길로 이끌기는 요원해 보인다. 신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회향하는 불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듯, 불교의 미래 역시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은비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법당 종무실 요사채 강당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사무실 어린이집 식당 오피스텔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쾌적한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역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 심야전력(축열식) | 전기판넬 | 도시가스 | 보일러등유 | LPG |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 31.24(kwh) | 71.5원 | 500원(㎥) | 650원(ℓ) | 950원(kg) |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 192(kwh) | 167(kwh) | 13(㎥) | 17(ℓ) | 12(kg) | 43.2(kwh)
난 방 비(평당) | 5,998원 | 11,941원 | 6,500원 | 11,050원 | 11,400원 | 3,088원
단가지수(%) | 194 | 386 | 210 | 358 | 369 | 100
10평 난방비(원) | 59,980원 | 119,410원 | 65,000원 | 110,500원 | 114,000원 |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시 료 명 | 음이온(on/cc) | 발급번호
발열필름 | 158 |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 방사에너지 | 발급번호
90.3% | 3.64×10² |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 080-017-0100, 지역문의 : 043)221-6006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 풀기

국내 정치는 여야의 끊임없는 정쟁으로 해결해야할 민생 법안을 산재해 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인권문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불신 풍조가 조장되고 있다. 이에 상생과 화합, 화쟁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인들에게 큰 지침이 될 듯싶다. 불법의 가장 근본 도리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큰 이익' 위해 '자기' 버릴 줄 알아야

'국민들이 쓰러져 가도 정쟁(政爭)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산파 구실을 하고 있다. 조정과 타협은 뒷전이고 오히려 계층 및 지역간의 대립과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도 헌법재판소의 법리 자구해석에 의지해야 했다. 정치권은 격한 찬반 논란의 조율은 커녕, 각 당의 이익에 휩싸여 칼춤을 추었다.

파당적인 정쟁이외에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도 이번 국회만큼은 다르겠지"라며 기대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출범한 17대 국회는 '젊은 국회'란 문패를 걸고 개원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파당간 장벽과 날치기 정국이란 오명은 역시 씻지 못했다. 앞에서 격돌하고 뒤돌아서 술잔을 나누는 낭만의 정치문화에서 엿보이던 인간적 대화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갈등과 분열'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의 정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로 활용될 수 있다. 사진은 대통령 탄핵결의안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념에 절대성 부여할때 타인을 향한 마음 닫혀

이런 현실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은 부처님 말씀이 정치에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사상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모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상생(相生)이란 말도 좋지만 원효대사가 말한 화쟁(和諍)이란 말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이 의장은 "상생은 하향 평준화의 의미가 있지만 화쟁은 서로 화합하되 따질 것은 따지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라며 "요즘 시국에서 화쟁이란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바로 상생과 화쟁으로 이루어진 정법(正法)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다. 상생과 화합 속에서 정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금광명경>에는 이러한 사상이 유포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국토를 수호하는 무량한 선신(善神)들도 모두 버리고 떠나갈 것인데, 이미 버리고 떠나가고 나면 그 나라에는 마땅히 갖가지 혼란과 재앙이 있고, 모든 중생은 착한 마음은 없고 오직 번뇌만이 있고, 살해와 다툼과 서로서로 헐뜯음과 무고함만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평소 <금강경>을 좋아한다는 박세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와 생활하다 보면 종종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박 의원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르신 말씀을 되새긴다는 것이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중생들은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이 없고 나아가서는 법상(法相)·비법상(非法相)도 없다(…)."

이 말은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옳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념과 사상에 절대성을 부여할 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相)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결국 부처님 말씀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잠기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가질 때 상생과 화해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라크 문제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또한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합리적으로 따지고 또한 자질구레한 허물은 대국적으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오히려 악화된 국제 관계의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을 맞을 수 있다는게 국제관계 전문 학자들의 견해다.

또한 남북문제도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뿌리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는 한민족의 오랜 문화적 토대로 이어져왔다. 불교를 정치문제에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신계사 복원과 같은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 교류 활성화의 틀을 마련한 다음에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교계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상생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문제를 꼭 정치나 문화교류 쪽으로 한정되게 치우쳐서도 안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자비·평등·평화 입각한 중도의 지혜 절실

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인간 존중'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동포의 인권과 민생안정도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도 많다.

정천구 교수(영산대 국제학부)는 "불교인의 정치 참여는 정치체계를 끊임없이 불교적으로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세계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자비·평등정신과 평화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어떤 윤리 덕목도 절대화하지 않는 중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지적한다.

윤세원 교수(인천전문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참여'라는 말로 규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식적이면서도 통시적인 혜안에 기초된 것으로 참여의 시대에 더욱 유용한 정치철학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불교적 가치의 유지와 실현, 불교에 배분되어야 할 몫의 확보를 위해서도 불교인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에 참여하는 재가자들이 △정직과 성실 △근면과 자제 △관용 정신 함양 △베푸는 정신 등을 솔선수범하는 한편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 안락을 위하여' 라는 명분을 확인하고,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게 회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김주일 · 박봉영 · 김강진 기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라 다스린 아쇼카왕

기원전 3세기 인도의 마가다국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치 이상에 실현한 최초의 왕이다.

불법(佛法)에 따라 아쇼카왕은 우선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각 도시마다 가축병원까지 있는 구호시설인 자비원과 보시원 등을 건립했다. 세심한 배려로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법을 따르는 군주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아쇼카왕은 국가 정책도 불교적으로 수립해나갔다. 이를 위해 '법대관(法大官)'이라는 부서를 따로 설치할 정도였다. 아쇼카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법의 순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각 지역 행정 수반들이 정법에 맞게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는지, 반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또한 아쇼카왕은 궁중의 연회 때마다 가축을 도살하던 관행을 폐지하면서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도 하는 등 국가 행사 진행 절차 조차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랐다. 이후 아쇼카왕은 부처님의 법에 의한 승리라는 의미로 '마애14장 법칙'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새긴 석주를 성지 곳곳에 세웠다.

아쇼카왕은 "정치란 국민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바로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방과 나와의 이견을 좁힐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나라들

종교 넘어 사회통합 구심役

중국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불교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남방불교국가들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원로 스님들에게 자문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1억 3천만명의 불교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불교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불교가 국가 이념에 반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다. 불교가 거대한 중국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최근 종합적인 종교업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종교사무 조례'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다른 종교간 상호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정부기관의 감독·책임 영역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 통제하에서 종교관련 출판물을 내도록 규정해 종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교에 대해 지속적인 장려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 불교를 국교로 삼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구심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승가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권력 보다 정신적인 우위에 놓여있다.

상좌부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스리랑카는 정부기관으로 종교성을 별도로 두어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 중대사도 스리랑카내 3개 종단 종정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고, 스님들의 정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태국 태국에서의 불교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치이념으로, 모든 권력은 승가의 대표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유지할 수 있다.

태국은 '불교정치체제'라고 명명될 만큼 불교와 승가의 권위가 국가권력에 앞선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는 삼보를 호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왕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으로 인정된다. 현재도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승가법에 따라 승가의 최고권위를 지니는 원로회의(마하테라싸마콤)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라오스 불교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제창했던 라오스는 60여명의 불교대표로 구성된 라오스불교협회를 통한 국민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불교협회를 이끌었던 캄탄 스님은 "불교는 라오스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승려들은 라오스 국민들과 불가분의 관계이다"라는 말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했다. 개혁정책이 한창인 라오스는 1990년대 이후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다시 받아들여 전통적인 불교가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 사회주의 과정을 거친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불교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종교문화부를 두어 승가와 사원, 신앙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 승가대학
학 장 지 형
주 지 상 덕
학인 대중 일동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TEL 054)437-0038
FAX 054)437-9664
www.chunga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은 적 사
주 지 虛 韻
신도회장 하 보타월
봉사단장 문 청량심
합창단장 권 정행성
문사수법회회장 최 선해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9179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外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627-5
TEL 053)621-1003, 653-9269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주 지 지 운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 954-8000(代)
FAX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제4회 불교만화 공모전
최고 문화부장관상 상금200만원
불교적 소재와 주제라면 모두 o.k!
2005년 2월 28일(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okbuddha.com
● 문의 : 02)3392-0334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 만 41세이하 독신남 교육비 전액 무료
● 문의 : 011-9852-0075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경북불교대학 · 불광사
바른 배움 / 바른 깨침 / 바른 포교
"불광불교종합복지관"
'한가족한평사기' 불사에 동참합시다
학 장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053) 792-1353, 1181
FAX 053) 791-4951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대한불교 조계종
관 운 사
주 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 931-7777

대한불교 조계종
성 주 사
주 지 지 우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산1-8
TEL 053)585-0450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대한불교 조계종
서 봉 사
주 지 경 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 조계종
수 도 암
주 지 현 선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44
TEL 053)743-7070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 참 사
(한국불교법사 총연합회)
법림회 회장 향 림(장재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 657-29
TEL 053)561-3129
H.P 010-6750-6947

대한불교 조계종
관오사 · 불교사회복지회
주 지 성 한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77-15
TEL 053)471-6640(관오사)
053)476-6631(복지회)

원 기 사
주 지 혜 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산24
TEL 053)633-1444, 632-1444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감 천 사 감천복지재단
주 지 오 정
감천복지재단 임직원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151-1
TEL 053)986-7700
FAX 053)986-7702
H.P 011-9231-6362

대한불교 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 257-1914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합장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 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
TEL 053)941-3503(아양교옆)
053)953-4481

대한불교 조계종
금 강 사
주 지 이정우
신도회장 이보리심(근순)
外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원남동 100-25
TEL 054)452-0845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 구 도 광 사
주 지 법 성
칠성회 회장 이태영
관음회 회장 조경래
지장회 회장 김원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08-6
TEL 053)653-8583/H.P 011-813-8587
FAX 053)622-8587

대한불교 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지 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404
TEL 053)614-3087

대한불교 조계종
직지불교대학 와룡정사
부설 선혜유치원
주 지 정 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64-2
TEL 053)588-3599
FAX 053)584-3599
유치원 교무실 053)593-3993~5

대한불교 조계종
장 암 사
주 지 도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 조계종
천 수 암
주 지 상 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77-1
TEL 053)614-9555

대한불교 조계종
법 계 사
주 지 환 몽
대중일동
법회안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참선법회)
· 음력초하루 · 지장재일(18일)
· 관음재일(24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TEL 053)768-2251

대한불교 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삼보조계종
구 화 사
대한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회 주 석혜성
주 지 덕 산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92
H.P 010-4816-6454

청 룡 사
대중일동
복지불사안내
· 매월 독거노인 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매년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 장애인 목욕 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1-16
TEL 053)656-5266

깨달음의 법, 전법하는 사
한국불교 법사대학
· 한국불교 법사 위원회
· 한국불교 법사대학 총동문회
· 한국불교 법사대학 법림회
회 원 일 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3층)
TEL 02)720-1836, 733-1959

경주공장 대창종합열처리
마산공장 대 창 열 처 리
대표 김상진
· ISO 9002 국제인정서 업체
· 몰리부덴 코팅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227
경주공장 054)762-0117
마산공장 055)231-1957
FAX 054)763-0117

대구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정기산행: 매월3째주 일요일
회 장 김장근
회 원 일 동
www.10008.co.kr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14-5
TEL 053)763-1919/FAX 053)768-4548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578
TEL 053)782-0120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동남자동차부품
대 표 박희천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1033-147

델 타 석 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 공급)
대 표 박성일(보경)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韓國佛敎 太古宗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文普經
副院長 尹慈月
副院長 禹慧空

企劃部長 李法眼 財務部長 任乘照 糾正部長 李曉星
總務部長 金越海 社會部長 片白雲 教任部長 高東佑
教務部長 閔法顯 事業部長 金一蘆 文化部長 崔默圓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中央司正 院長 金法藏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9-16번지
TEL 02)382-7361~3 FAX 02)382-9852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總務院
총무원장 전운덕
총무부장 박덕수 교육부장 김용암
교무부장 변춘광 사회부장 김무원
재무부장 남궁도재 규정부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이문덕

宗議會
종의회의장 주정산
부의장 김도산 부의장 박노승

監査院
감사원장 장도정
감사위원 김경천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금강대학교 총장

元老院
원로원장 윤덕산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總本山 救仁寺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TEL 043) 423-7100~8 FAX 043) 420-7399

謹賀新年 清心淨土

卽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慧一
司書室長 悳慧

統理院
統理院長 孝庵
總務部長 惠印
財務部長 守性
文化社會部長 悔省
布敎部長 無畏
建設部長 法淨
總務局長 玄修
企劃局長 浩堂
電算局長 景日

教育院
教育院長 惠淨
教法部長 智正
教育部長 悳正

宗議會
宗議會議長 鎭山
副議長 眞成
副議長 智明慧

監査院
監査院長 烋明
監査部長 證光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大韓佛敎 觀音宗

宗正 南天 竹山

總務院長 靈山 泓坡
副院長 崇山 智攝

宗會議長 普雨 法輪
教育院長 東靈 正雄
布敎院長 鄭法性

財團法人 大韓佛敎 觀音宗 總務院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TEL 02)763-0054. 3345 FAX 02)763-5851

社團法人 大韓佛敎 法相宗

宗正 鶴岩
總務院長 海月
副院長 道一

中央宗會議長 道明 司正院長 慧命 教育院長 茂晟
參禪院長 江月 研究院長 又峯 總務部長 天雄
財務部長 大光 教務部長 月明 規定部長 振性
教化部長 志善 社會部長 一空 布敎部長 琺靜

총무원 직할 포교당(유가사)과 교육원을 개설하게 되어 **총무원 이전 및 개원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단스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월 13일 오전 10시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9-8 (구문빌딩 4-6층)
TEL 031)653-1250, 1251, 0355 ▶이전위치 : 평택역-서울, 오산방향 (상공회의소 건너편)

대한불교 총화종

원로원장 전야웅
종정 이동광
부종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김화담
문화원장 신도명
교육원장 조고담
호계원장 권청담

감찰원장 이만오
부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김형민
선관위원장 기혜성
선원장 박청해

총무부장 박현오
규정부장 신법광
사회부장 조민호
교무부장 이법오
재무부장 박지산
조직부장 최법일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1교구종무원장 김혜각
제2교구종무원장 엄자혜
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제4교구종무원장 이내역
경기북제1교구종무원장 최도명
제2교구종무원장 유법경
제3교구종무원장 이법오
경기남동제1교구종무원장 기혜성

제2교구종무원장 차혜진
제3교구종무원장 정종화
경기서제2교구종무원장 김혜암
제3교구종무원장 김해관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전
충청교구종무원장 김기태
경북제1교구종무원장 김운산
제3교구종무원장 황현담
울산교구종무원장 권청담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김만법
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중부교구종무원장 김문곡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호
전북교구종무원장 권덕산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주교구종무원장 김창해

종도일동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TEL 031)592-8891 FAX 031)592-8892

불교와 공동체. 원시 불교가 출발할 때부터 이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 이기 때문이다. 불교공동체 '승가(僧伽)'는 진리를 추구하는 평등한 수행자의 모임이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공동체적 삶은 불교가 수천 년간 번성한 이유이며 장점이다. 그래서 이 같은 불교공동체는 2천5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부처님 삶을 사는 사람들-정토회

나 보다 '우리' 기복보다 '나눔'

연은 우리 삶의 토대이므로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자는 붓다의 삶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방식' 이라고 믿고 있다. 정토회는 1988년 서울 홍제동에 정토포교원을 연 이래 이런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다.

정토회는 환경문제를 나와 너,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본 결과로 생각한다. '내 것이므로 내 맘대로 쓴다'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문제란 것이다. 단지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오염물을 관리하는 차원으로는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해결 방안도 단순하다. 바로 연기론적인 해결책이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전 사무국장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붓다의 가르침대로 '적게 먹고 아껴 쓰는 것의 행복'을 추구하다보면 낭비가 없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제로, 뒷물 쓰기, 일회용품 근절 운동은 불교적인 삶 속에서 나왔다. 통일과 평화, 제3세계 구호 등 활동들도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순수한 서원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했다. 불교 공동체 정신이 확대되면 바로 모든 인류가 내 식구이요 가족이기 때문이다. 인도 등의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을 통해 내 민족 국가란 경계마저 넘어설 수 있다.

아낌의 지혜로 뭉친 사람들의 식사 풍경

겨울이 막 시작된 12월의 저녁 시간, 대승보살 정신을 산 속이 아니라 고통 받는 대중 속에서 실천하며 청정국토를 일구어 가자고 서약한 불자들의 공동체 정토회를 찾았다. 정토회관에서 쓰레기제로 운동 등 환경운동과 북한 및 제3세계 돕기 운동을 하는 정토행자들은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리, 음식물 배치, 설거지 정리까지 그날의 소임을 맡은 정토행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저녁 공양물이 식탁 위에 일렬로 배열되자 정토회 특유의 대중공양이 시작된다. 정토회 공양법은 전통 발우공양과 현대식 식사법을 결합한 것. 형식은 채식 뷔페 식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깔끔하고 정갈한 수행자 정신이 묻어난다. 한 사람씩 적당량의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고, 마지막으로 숭늉을 접시에 부어 밥알 하나 고춧가루 하나까지 닦아 먹는다.

설거지에는 친환경적 방법이 동원된다. 남긴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를 푼 물에 접시와 수저를 담가 기름기를 뺀 후 수건으로 닦으면 곧 끝난다. 매일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만 음식 쓰레기는 거의 없다. 무 · 과일 껍데기 같은 것은 다시 반찬 재료로 활용되고, 못 먹는 것은 따로 모았다가 거름이나 정토회가 키우는 지렁이의 먹이로 쓴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제로 운동' 이다.

정토행자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정토행자들은 물질을 아끼고 소비를 억제하는 개인의 노력이 물질 만능의 후기 산업사회를 넘어 '청정 불국토'를 가꾸는 원리가 된다고 믿는다. 정토회는 "승가는 불교도만이 아니라 바른 삶의 길에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라는 불교 공동체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려 한다.

일 · 수행 함께 타인 위한 보시행은 기본

정토회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실천' 이다. 뭐든지 일단 몸으로 부딪쳐 보라는 것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그냥 한번 해 본다는 생각으로 해라"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말로 실천을 권한다.

정토행자의 실천은 바로 타인을 위한 보시행이다. 정토행자는 가정에서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사회에서는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제3세계의 불쌍한 사람을 구하자고 서원했다. 그게 정토회가 일과 수행의 공동체를 표방하는 이유다. 정토행자들은 "남을 위한 일에서 나를 비우는 '무아(無我)'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정토회의 수행법이다.

정토회 산하 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 서울 정토회관에는 박 국장과 비슷한 실무자 사십여 명과 기타 대중들이 머문다. 그들은 전통적인 승가의 수행을 사회운동과 접목시킨 공동체 생활을 한다. 정토행자의 하루는 새벽 5시 예불과 명상으로 시작된다. 청소와 발우공양을 마친 후 대중공사로 각자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정토회의 규칙을 위반하면 모두 참회해야 한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을 해도 참회의 대상이다. 박 국장도 제4차 천일결사 회향식에 보고할 자료를 만들려고 야근을 했기에 오늘 아침 대중 앞에 참회를 해야 했다.

정토회 실무자들은 8시 50분 정토회관 2층의 사무실로 출근, 부서별 '여는 모임'을 갖는다. 명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 오후 5시 50분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공지 사항을 말한 후 명상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6시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모든 정토회관 거주자는 저녁 7시 예불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동체 생활의 갈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된다. 기도와 참선 등 나름의 수행을 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자자와 포살도 한다. '마음 나누기' 시간에는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나 자신을 객관화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한다.

무소유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무자들이 한 달 동안 받는 활동비는 15만원. 그중 5만원은 생활비, 5만원은 보시로 쓴다. 보시내역을 보면 1만원 삼보 수호비, 1만원 시민단체 후원비, 3만원은 매일 1천 원 이상 보시하자는 4차 천일결사를 위해 저축된다. 이토록 내핍의 삶을 실천하기에 "내복을 입어 연료비를 절감하고 종이컵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기 전용컵은 해외 출장의 필수목록이다"는 박 국장의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3만 8천 평이 넘는 문경 정토수련원 부지에 짓는 실무자들의 숙소는 1인당 공간이 채 2평을 넘지 않는다.

박 국장은 "실무자 생활의 특징은 사업 수행 능력보다 얼마나 생활을 잘 하는가를 중시하는 수행공동체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각자가 모난 개성과 욕심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로 파괴된 삶의 터전 복구에 땀흘리는 정토회. '너와 나'의 벽을 넘어 고통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토회는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누어 한다.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일이라 여기기에 타인을 위한 보시행을 가장 우선시 한다. '쓰레기제로' 운동에 쓸 천봉투를 만들고 있는 정토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토회는 2002년 3월 제4차 천일결사를 시작하며 대중주체의 사회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실무자와 법사는 보조 역할을 맡고 신도들이 주체가 된 것이다. 신도회가 지역 법당의 재정과 운영을 맡고 쓰레기제로 운동, 북한돕기 거리 모금 사업 같은 일의 기획부터 실천까지 책임진다. 신도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4차 천일결사 동안 진행한 '민족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24시간 1천일 정진'에서 매일 24시간 1분 1초를 쉬지 않는 기도릴레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모든 정토행자들은 '천일결사 수행 목표'에 따라 매일 새벽 5시 108배 정진과 기도, 경전 독송, 수행일지 쓰기, 1천 원 이상 보시 등을 실천한다. 수행의 차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신도들의 생각이 개인보다 공동체, 기복보다 나눔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는 데에는 교육과 수행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 각 지역의 정토법당과 해외 정토회 모임들은 일반 불자들이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륜 스님의 법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토불교대학은 불교, 복지, 평화, 환경에 관련된 폭넓은 주제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한다.

정토회의 또 다른 특징은 '보직순환제'에 있다. 천일결사를 마칠 때마다 모든 정토행자들은 자기의 소임을 놓고 초심의 자리로 돌아간다. 박 국장은 정토회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를 "한 나무 아래 3일 이상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 실무자와 봉사자들이 업무에 집착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모든 문제 나로부터 시작, 연기론이 해결책

공동체의 존재 유무는 전근대, 근대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진행된 산업화는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한 도시문명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현대문명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인류에게 선사했지만 온갖 문제 역시 산출해 냈다. 바로 이것이 정토회가 불교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때의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불교공동체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까? JTS 이지현 사무국장은 "그것은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며 "붓다는 6년 수행을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고 담마를 선우(善友)들과 나눠 불교 공동체를 이뤘다. 그리고 불교공동체는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했다"라고 답했다.

이 곳 사람들은 " 붓다의 삶 속에서 발견한 삶의 모델은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이라고 말한다. 개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 생활 속에서 맑은 마음을 닦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좋은 벗으로 서로 돕고 화합해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고, 자연은 우리 삶의 토대이므로 생명의 근원임을 알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자는 붓다의 삶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방식' 이라고 믿고 있다. 정토회는 1988년 서울 홍제동에 정토포교원을 연 이래 이런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다.

초기 공동체로 더 가까이 '문경시대' 활짝

정토회는 2005년 3월 제5차 천일결사에 들어간다. 정토행자들은 더욱 부처님 당시의 승가를 닮으려는 불교공동체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1988년 이래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던 문경 정토수련원에 본격적인 공동체 마을을 꾸리는 것이다.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대표 유수 스님을 비롯 서울 정토회관 실무자 전원이 문경으로 내려가 활동을 펼친다. 이곳은 출가를 원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다. 이들의 활동 무대가 2005년 봄부터 차례대로 만들어진다.

정토회 사람들은 문경수련원 생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몇 사람에게 그이유를 물었다. 대답은 한결같았다. "초기 불교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실천해 재가자 중심 불교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정토회원 모두가 여법한 생활을 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지 운 혜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36-3
TEL 052)287-6952

대한불교원효종
최정산 개원사
중앙교육원장 서응스님 주석사찰
주 지 대 원(김연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56-1
TEL 053)768-0887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 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회원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한국불교
관 음 정 사
주 지 법 성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4-4
TEL 053)253-0808
053)654-0855(팩스겸용)

대한민국 군포교 사찰
정 토 원
주 지 장고봉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561
TEL 053)984-0409

아름다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자 맑은 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주 지 자 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3
TEL 054)975-0104
대구포교원 지혜선원
TEL 053)752-0108

(재)한국불교법륜종
법 천 사
주 지 석 법천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26
TEL 054)474-3855

<삼천불 조성불사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봉 은 사
주 지 도 성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702-6
TEL 053)472-5578
FAX 053)476-3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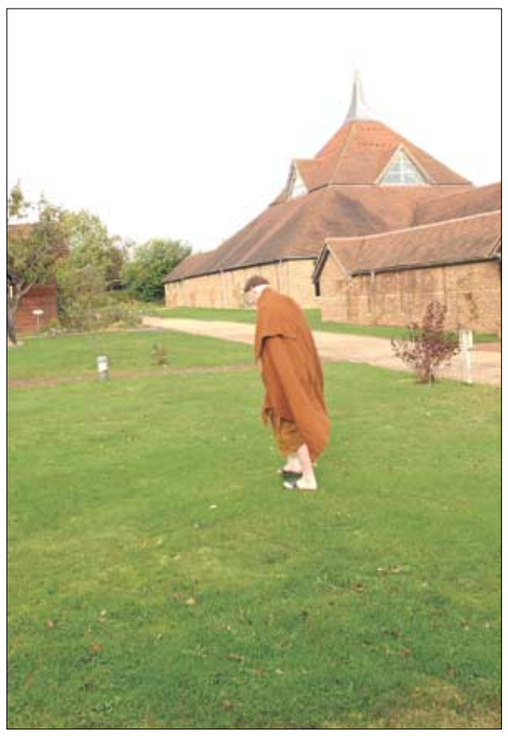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덕 현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보 성 선 원
주 지 도 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서양의 불교 수행공동체

서구인들에게 불교는 21세기의 대안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양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해외의 수행 공동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레포츠와 예술 프로그램에 명상을 접목한 이들 공동체의 수행 프로그램은 굳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평화와 행복감을 느낄수 있어 참가자가 크게 늘고있다.

안정 · 평화의 영양분 제공



영국 햄스테드에 있는 영국 최대의 불교수행공동체 아마라와띠에서 경행중인 수행자. 사진=<불교와 문화>2004년 11·12월호

서양의 불교수행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서양에서 불교가 붐을 일으키며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0.5%가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데 있다. 중상층 이상의 경제력과 언론, 방송, 교사, 교수를 비롯한 전문직업이 이들의 활동을 받쳐주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마틴 바우만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럽 불교단체 숫자는 독일 530개, 영국 400개, 프랑스 280개, 스위스 100개, 네덜란드 60개, 오스트리아와 이태리가 50개정도 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1964년에 비해 90년대말에는 불교단체가 20배로 늘어났으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과 거주 수행자를 합친 인원이 500명 이상인 곳이 43개였고, 50~100명인 단체는 240여개가 된다.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인들을 불교 수행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우선 서양인들은, 굳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불교수련회에 와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가라는 불교의 넓은 품안을 좋아한다. 오랫동안 믿음을 강요당했던 그리스도교 전통의 기억과는 너무나 다른 자세이기 때문에 신선해 한다. 또한 호흡에 의식을 두고, 깨어있는 의식을 늘 삶속에서도 유지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불성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떤 종교를 믿든 마음속의 저항만 놓아버린다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불교 수행에서는 수련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할까? 우선 스트레스 관리를 비롯한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 일환으로 거의 모든 센터에서 명상, 요가, 기공, 요가, 태극권(Tai Chi)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많이 실시한다. 예를들면 사진과 그림그리기, 골프, 특정 질병의 치유, 야생탐험, 환경보존 등의 레포츠와 명상을 접목해 함께 가르친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과 불교 수행자들을 위한 좀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지도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진언 배우기, 경전 공부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이 수행을 끝내고 얻어가는 것으로는 첫째,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꼽는다. 수행 공동체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찾아올 때 부터 그들은 마음속에 가득한 아픈 상처와 불안한 마음을 다 비워내고 대신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워가고픈 소망이 있다. 그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간다. 완전한 타인으로 만났던 수행동료와 가까워지는 경험으로부터 다른 사람과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일상으로 돌아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압도되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를 똑바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간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경우는 불교 수행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채식에 입맛을 들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 생활속에서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진리란 것을 깨닫는다.

내가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삼예링, 런던의 잠양불교센터에서 30여일간 수행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세계 80여개국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얼굴색과 언어, 나이가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이 다만 같은 수행의 체험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도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이런 수련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루하루 법문을 듣고 수행의 체험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가두던 껍질을 벗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쳤던 벽을 무너뜨리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었다.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었던 마음과 지혜들, 이른 새벽에 졸린 눈을 부비며 함께 했던 소박한 예불과 명상들을 함께 하며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는 의식을 느꼈다.

새해를 맞아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지에 있는 수행 공동체 일곱곳을 소개한다. ■ 진우기(전문 번역가 · 불교문화 센터 강사)

오피니언리더들 '불교적 삶' 서원
믿음 강요 없는 자연스러운 만남
대중적인 프로그램 '흡인력' 과시

숲속 승가의 본산



영국 아마라와띠 태국의 선지식 아잔차 스님의 제1대 서양인제자 아잔 수메도가 영국 햄스테드에 설립한 수행처로서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계 숲속승가의 본산이다.

주말 오후마다 입문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평일에는 5 · 10일 코스가 있다.또한 여름에는 일요일마다 대중법문이 있고 9일간의 가족프로그램도 있다. 체류자들은 이 곳에서 정한 8계 즉 불살생, 신용, 순결, 올바른 발언, 극기, 절제, 게으름을 경계함 등을 수지해야 한다. 하루의 일과는 예불, 명상수행, 울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www.amaravati.org

명상 · 기공 · 요가 수시로 진행



영국 삼예링 1968년 티베트불교 카규-닝마파의 트룽파 린포체와 아콩 린포체가 설립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주로 장기수련회가 많다. 넓은 들과 강, 양치기 목장에 둘러싸인 곳에 수행자가 묵을 수 있는 방들이 많다. 요가, 기공, 명상 프로그램은 항상 진행되며 지난 12월에는 2박3일의 약사여래 수련회, 긴장을 푸는 방법 수련회가 있었고, 크리스마스에는 1박2일로 크리스마스 명상수련회가 제공된다. www.samyeling.org

선농일치 체험 만끽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원 조동종의 스즈키 순류 선사가 1967년 설립했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시티센터, 아늑한 시골의 수련원인 타사하라, 그리고 유기농과 선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린 걸치 농원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방문객과 미경험자를 위한 명상 교실이 개최된다. 또한 12~15세 청소년을 위한 '성년 프로그램',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좌선과 토론', '유색인종을 위한 좌선'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타사하라에는 일하면서 수련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 또한 그린걸치에서는 흙속에 푹 빠져 선농일치를 체험해볼 수 있다. www.sfzc.com

묵조선 집중 수련 용맹정진



미국 선산 승원 조동종의 마에즈미 노사의 미국인 제자 존 다이도 루리 선사가 방장으로 있으며 승가와 재가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1977년 수계를 받은 루리 선사가 1980년 현재의 땅을 매입하면서 선산승원이 시작되었다. 이곳은 재가와 승가의 종합수련원 기능을 하는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매일 참선 시간이 있으며, 묵조선을 집중수련하는 용맹정진의 기간, 그리고 자연 사진작가로서 30여회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는 루리 선사의 이력에 걸맞게 예술과 자연, 선불교를 접목시킨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은 주말의 선수행 소개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좌선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몸으로 하는 수행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이곳에서 하는 의식들을 직접 접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www.mro.org/zmm/zmmhome

1년간 90여회 수련 4~5천여명 참가



미국 샴발라 센터 티베트의 카규-닝마파 법맥을 받은 트룽파 린포체가 서양불자를 위해 설립한 불교센터다. 전세계 200여개 샴발라 센터의 본산격인 이곳은 콜로라도 산 속 해발 2600미터의 고지에 자리한 600여 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위치해있다. 1년동안 개최되는 수련회가 90여회, 프로그램 참여자가 약 4~5천여명에 이른다. 1달 코스 명상수련회 참여자만도 130명이고 숙소 역시 편안한 모텔급에서 공동막사형까지 다양하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명상 마라톤 대회이다.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 30분씩 1년 동안 명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람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독려하는 뜻으로 지원금을 내는 것이다.

올해 말에 시작된 이 마라톤대회로 지금까지 100명이 79000불을 보시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60%만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하지만 비불교적 프로그램에도 깨어있음이나 명상은 가미돼 있다. 예를 들면 깨어있는 정원가꾸기, 깨어있는 노래부르기, 깨어있는 산악자전거 타기까지 말이다.

www.shambhalamountain.org

위빠사나 중심, 부모 자녀함께 참여 가능



미국 스피릿록 센터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와 아잔 차에게서 배운 잭 콘필드가 1988년 설립했다.

위빠사나를 주로 하여 광범위한 불교 수행을 가르친다. 참여자를 특별하게 분류한 전문 명상수련회를 열고 있다. 또 월요일 저녁마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스가 있다. 부모들이 한편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은 이야기, 게임, 미술과 공예, 명상과 음악 등으로 꽉 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항상 마지막은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와 다과로 끝이 난다. 부모들은 자녀가 3~4번 참여할 때마다 1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도록 요청받는다. www.spiritrock.org

인터넷 통한 선원격교육 실시



뉴질랜드 마이타이 선원 정신과 의사인 잭쉬 선사가 지도하는 치유명상 그룹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가르침을 시도하는 마이타이에서는 1999년부터 선원격 교육이 시작돼 거리나 직업 등의 여건상 선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1년에 한 번은 꼭 스승과 직접 만나 수련회를 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학생들은 명상 외에도 몸알기(bodywork), 창조적 기술, 자비행을 해야 하는데 지역청소년센터, 환경보호, 국제사면회 등에서의 봉사 등이 자비행에 속한다.

www.zendo.org.nz/pages/maitaizendo.html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지 도 완
신도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033)374-9177~8
FAX 033)374-9176

대한불교조계종
사 리 사
「부처님 진신사리 증과 도량」
주지 덕 운
■ 대구 광역시 동구 송정동 116-1
TEL 053)986-4240

대한불교조계종
삼 보 사
주지 경 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436-3
TEL 054)246-2171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 영험도량'
충 효 사
회주 원감 석혜공
● 부설
생명사랑 자비실천 도량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054)338-8196, 1152
FAX 054)338-6006

대한불교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정길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성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대한불교조계종
보 갑 사
주 지 원 진
신도회장 유영희
거사림대표 박재홍
신농회회장 김정태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747
TEL 054)372-5702

「적멸보궁」
팔공산 반야사
주지 일 정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
TEL 053)983-6421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법 장 사
주지 유 곡
신도일동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75
TEL 054)772-4840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호암 정수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TEL 02)927-1232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봉국사

주 지 월 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2동 637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 성북구사암련회장

삼각산 내원사

주 지 호암 정수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
TEL 02)941-2012~3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보림사

주 지 묵 산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1
TEL 02)914-6187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원로의원 가산 지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2828 / FAX 02)914-4326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대성사

주 지 정 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39-2
TEL 02)914-6532

대한불교조계종·서대문구사암연합회회장

안산광명사·설법대학

주 지 청곡 자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TEL 02)735-1896, 736-1895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회 주 박설산
주 지 박응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02)396-3405, 379-5502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 지 자성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593 TEL 02)923-5362

대한불교조계종

검단산 정심사

주 지 원 영

단청 · 인등불사
정월 아비라기도

사부대중일동

■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9-7
TEL 031)791-7732

대한불교조계종 · 양평사암련회장

용문산 사나사

주 지 화 암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
TEL 031)772-5182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산 용문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
TEL 031)773-3797



대한불교 조계종 도봉산

도봉사

주 지 원 명

신도회장 강호식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494-2 www.dobongsa.org
TEL 02)954-1112~4 / FAX 02)954-774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천마산 보광사

주지 가 산 선 우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419
TEL 031)594-131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흥국사

주지 대 오

주말 템플스테이 운영

사부대중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
TEL 02)381-7970
FAX 02)381-7329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사)천수천안

회원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9-12
동남빌딩 3층
TEL 031)969-0108

대한불교 조동종 사무총장 주석사찰

옥불 금룡사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261-28
TEL 02)383-3346

회주 법공 덕룡

아미타불도량 행천사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43
TEL 02)387-0101

주 지 이룡 행천

회 장 최영륜

상조회 권석조	후원회 최옥림	산악회 김미금	자비회 정재숙
방생회 정옥련	지장회 이동현	보현회 이재정	연화회 김연순
달마회 정하회	홍보부 김경렬	총 무 홍춘교	문수회 박춘희
관음회 김태숙	해외성지 홍경교	행 자 진 오	산신회 곽중호

대한불교 조동종 부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 지 덕 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 FAX 02)2607-6155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 지 지 명(덕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 FAX 02)379-6938

대한불교 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 지 대 은

사부대중일동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 154
TEL 02)938-1405

대한불교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청수산 선불사

주 지 대 운

신도회장 신장호

사부대중일동

■ 경기 오산시 수청동 402
TEL 031)374-3413

대한불교 본원종 사회부장 주석사찰

정토염불 기도도량 본원사

주 지 명 진

총 무 지 광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7 3층
TEL 02)955-3090

대한불교 본원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삼각산 대성사

주 지 대 황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1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주석사찰

양자산 서림사

주 지 무 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 964-1
TEL 031)774-3538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대 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종 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회심
중앙종의회의장 의강 부의장원송 사감원장 법성

서울경인 교구장 지성 부산경남 교구장 혜암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충청전라 교구장 법성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鏡照
總務院長 鏡岩
護法院長 萬昊
布敎院長 惠鏡
宗會議長 石庵
釜山 慶南 宗務院長 法輪

總務部長 惠輪 監察部長 智學
社會部長 惠觀 修敎部長 知雲
譯經部長 慧照 組織部長 相雲
護法部長 法眞 布敎部長 印修

• 總本山 : 忠北 報恩郡 三升面 元南里 389 華光寺
TEL 043)542-6664 FAX 043)543-8887
•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86-4 松華寺
TEL 043)653-4800. 0999 FAX 043)642-6660

대한불교 본원종

종 정 강무구 사서실장 손무공
부종정 최대종 · 김동광

원로의장 유법용
원로의원 변정송 전국당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중앙종회의장 김대운
중앙종회부의장 김대연 조혜원
감찰원장 박대성
포교원장 이대봉

총무원장 이대화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정대련
재무부장 최대황
규정부장 강만공
포교부장 한법성
사회부장 박명진
교화부장 안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FAX 02)379-2746

(사)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감찰원장 장혜운 호법원장 이보운 문화원장 이오현
교육원장 박보산 포교원장 이종성

종회의장 보경
부의장 법우 보원
사서실장 보인
사무국장 보성

총무부장 성우 총무국장 보원
재무부장 지웅 재무국장 보혜
교무부장 보우 교무국장 원정
사회부장 보담 사회국장 보정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정심
규정부장 지명 규정국장 보연

서울종무원장 종성 부산종무원장 지산 경북종무원장 호진 경남종무원장 오현
경기종무원장 법우 강원종무원장 법해 전북종무원장 법경 전남종무원장 법공
인천종무원장 보산 충청종무원장 보현 상벌위원 보경 종성 성우 법우 보산 보운 법진
선관위원 보인 법해 보운 성우 지명 보산 보담 법규위원 지산 보성 지담 법진 오현 보월 지웅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TEL 055)883-7771. 7790 FAX 055)883-7796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종 정 혜봉 사서실장 도은
원로원원장 석봉
원로원위원 법성 승전 법준 정화 백담 원심 효산

총무원장 송산
부원장 대원
부원장 송명
총무겸사회부장 옥용
재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의전부장 덕산
사정부장 혜공
봉사부장 현법
포교부장 진아
국내포교부장 법인
포교사 수월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중앙종회의원 청산 삼자 연각 수월 원광 혜봉 지선 금복
중앙사정원원장 청운
부원장 수산
중앙복지봉사원장 백담
중앙포교원원장 정화
부원장 보단
중앙교육원 원장 송현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392-5
TEL 031)262-1577. 263-1353 FAX 031)265-8386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김봉진
총무원장 김부경

종회의장 황관능
원로원장 석무변
포교원장 최법운
기획원장 강법성
교육원장 김대공
사정원장 이경담
문화원장 유무정
사서실장 성운고

서울종무원장 석지성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대구종무원장 한혜봉
동부경남종무원장 허 준
서부경남종무원장 이경담
경북종무원장 최보해
경주종무원장 지일장
경기종무원장 황약산
충북종무원장 왕상인
충남종무원장 석법성
전북종무원장 박대각
전남종무원장 김법정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TEL 055)521-1236, 1286 사서국 051)852-3707 FAX 051)853-5622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무찰 총무원장 동봉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총무원부원장 혜천 서울교구 총무원직할 호계원장 용암
이 사 장 경원 장로부의장 명종 총 무 국 장 일웅 부산교구 유심 호계부장 용주
상임이사 혜광 장로위원 수암 교 육 부 장 법해 대전교구 도안 교육원장 법운
이 사 무찰 원경 교 육 국 장 법광 인천교구 유정 포교원장 원각
이 사 학암 청송 재 무 부 장 법진 강원교구 보해 감사원장 화엄
이 사 청암 송은 재 무 국 장 일명 대구교구 삼현 선거관리위원장 법성
이 사 동암 원각 사 회 부 장 경운 경기남부 법해
이 사 동봉 사 회 국 장 영우 경기북부 도혜 종회의장 지공
이 사 도기 고시위원장 청송 교 무 부 장 법진 경남교구 정수 종회부의장 정수
이 사 지공 교 무 국 장 동청 경북교구 혜광 사무처장 도안
이 사 일명 규 정 부 장 지성 충남교구 영명 종회의원
이 사 담화 규 정 국 장 도운 충북교구 법청 현암 덕봉 용주 법안 법정
감 사 혜천 홍 보 부 장 성각 전남교구 혜성 삼주 무공 무연 덕산 송암
감 사 혜원 홍 보 국 장 효산 전북교구 혜선 남혜 청표 호암 대호 법경
사 업 부 장 덕화 제주교구 현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엄지빌딩 4층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자비 방생도량 일광사

주 지 보 혜 부주지 우 담

신도회장 김청정심 기 획 박수일
부 회 장 김영애 자비회 회장 고무량화
교 무 이청정심 자비회 부회장 현금강심
포 교 김법보화 총 무 이무애심
관음회 회장 박보현심 봉사부장 어자행심
관음회 부회장 박반야심 재 무 이홍련화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68-18호
총무원 02)2207-7198 / 종무소 02)438-3088 FAX 02)433-1666

대한불교 조계남화육조선종

종 정 명 복
총무원장 명 지

총무국장 서 경
기획국장 운 공
감사국장 상 운
재무국장 월 산
문화국장 도 암
사회국장 무 애
호법국장 도 승
조사국장 민 지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경남 창원시 소답동 130-8번지 (팔만보현사 창원포교당)
TEL 055)256-7017

전통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종 정 진경 대종사
부종정 돈오 대종사
원로의장 청산 대종사
원로의원 무량 대종사. 의성 대종사
정관 대종사. 효담 대종사

사서실장 광덕 법사 중앙연수원장 선행스님 규정부장 혜송스님
중앙종회의장 귀천스님 총무원장 능인스님 호법부장 왕산스님
사정원장 일봉스님 총무부장 호암스님 법사위원장 덕원법사
교육원장 무안스님 재무부장 혜천스님 중앙신도회장 고산 문창열
중앙선원장 해일스님 교육부장 도선스님
포교원장 월봉스님 사회부장 성담스님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 황룡사
TEL 054)972-3174 FAX 054)972-6985

大韓佛教 禪宗

宗 正 曉曇(大願寺)

總務院長 會梵 (永興寺)
元老院長 度圓 (金剛寺)
宗會議長 明峯 (觀音寺)

總務部長 性喆(大王寺) 監察部長 法性(白陽寺)
財務部長 一性(淨土庵) 社會部長 度性(深源寺)
敎務部長 法雲(太平寺) 禮敬室長 一禹(地藏寺)
司書室長 法草(創林寺)
慶州敎區宗務院長 性喆(大王寺) 浦項敎區宗務院長 法性(白陽寺)

■ 總本山 :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七浦里 607 大願寺 TEL 054)261-7777 / FAX 054)261-6119
■ 總務院 : 慶州市 忠孝洞 山199-5 永興寺 TEL 054)745-2731 / FAX 054)773-4326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 제 141호 (한불총 02-44호)
大韓佛教 禪宗 宗徒一同

한국불교 정토종

종 정 덕흥사 지 산 - 종정협의회 대통정(회장) -
총무원장 연화사 회 암

부 원 장 광음사 성일 인천 교구장 구월사 불광
종회의장 광지암 사사 충남 교구장 구금이암 향석
원로원장 일승정 사사 동해 교구장 경불이사 정림
원로부원장 청룡 사사 전남 교구장 용화사사 범조
감찰사정원장 여래 사사 감 찰 국 장 천왕사사 산덕
선 원 장 동국선원 교구포교국장 경덕사사 경원
호법원장 광덕 사사 교구포교국장 구인정사 암화
선관위원장 천황 사사 법사단장 대원사사 정담
총무부장 용운 사사 법사부단장 신도암사 현용
교무부장 도선 사사 법사부단장 세천암사 제묵
사회부장 원효정사 법사단총무 삼용정사 성인
규정부장 덕수 사사 법사단총무 담주사사 묵룬
재무부장 여래 사사 종회의원 법보원사 덕은
감찰부장 금이 암 종회의원 상봉정사 혜
포교부장 금강문포교원 종회의원 향원사사
조직부장 보광 사사 종회의원 도경덕사사
호법부장 천도 사사 종회의원 봉 황사사
교육부장 성현 사사
국제포교부장 만수 사사
서울 교구장 보광 사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2동 926-27(새나드리프라자 4층)
TEL 032) 543-2693-5

제10회 신행수기 수상자

- **대상(유마상)**
  우선주 '내 인생의 참스승'
-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박순서 '어머니와 동자승'
-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김성식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 **특별상(태고종 총무원장상)**
  서경자 '기도에 관한 몇가지 소고'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변숙이 '다시 되찾은 희망'
-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최영숙 '살아있는 부처-달라이라마를 가까이에서 뵈며'
-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이상문 '절망속에서 만난 부처님'
- **특별상(불교진흥원 이사장상)**
  배명호 '몸으로 체득한 삼법인'
- **특별상(신수회장상)**
  민지오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당선 소감


우선주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온통 흑백일 때가 있었다. 빨간 물감을 뿌려도, 파란 붓을 펼쳐도 언제나 꼭 같은 명도의 흑백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 본래의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그 어려움은 말로 다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불교를 만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겐 무한한 색상의 세계가 펼쳐졌다.

사물의 본래색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사물을 비추는 '빛'이었다. 나는 빛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어둠만을 한탄했건만, 사실은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비추는 빛의 형상대로 순간순간 드러날 뿐이었다.

실천으로 나를 다듬어 갈터…

그 빛의 끝에서 맞이하게 된 뜻밖의 행운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부족한 나를 앞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준 공생선원 스님과 도반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가장 고마운 것은 남편과 아들이다. 방황하는 동안 한 치의 흔들림없이 나를 아끼고 격려해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는 실천을 위해 매진하려 한다. 내겐 이미 찌들어 버린 습식이 남아있어 이따금씩 심적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 아직은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보명화로 거듭날 것이다.

■**당선작** (유마상) — **우선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내 인생의 참 스승


그림 · 문병성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산다.

아무리 억만장자의 재력가라도, 커다란 권세의 권력가라도 매일 이틀을 살 수는 없다. 그가 누구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눈을 떴을 때 주어지는 하루는 평등하다. 하지만 그 평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눈을 감을 때에도 시작할 때와 같이 평등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그 하루의 마침도 그러하리라.

벌써 내 인생도 4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오랜 시간의 하루하루를 언제나와 같이 시작했지만 그 마침은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없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내겐 몸서리쳐지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과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이면 어둠이 스며들 듯 내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듦을 나는 몰랐다(자기 자신의 일임에도 말이다).

처음엔 그저 말하기도 싫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더니 소리도 싫어지고 햇빛도 싫어지고 그저 모든 것에서 숨어 버리고만 싶어졌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만 같아 난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웠다. 나라는 존재조차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내 숨소리조차도 나를 괴롭혀왔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아들! 그 아이의 존재가 왜 그리 내게 무겁게 짓눌러 오는 무게였던지.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난 내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김밥을 싸 준 적이 없다. 남편이 이제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소풍 갈 때가 제일 맘 상했단다. 김밥도 없이 털레털레 혼자 일어나서 가방 메고 소풍가는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건설업을 하는 남편은 건축현장을 돌아봐야 겠기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이 일어날 시간이면 전화로 어린 아들을 깨우고 혹시 못 일어날까봐 자명종을 아들 머리맡에 놓아둔다. 아이는 깨면 일어나 밥 먹고 혼자 학교에 간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남편의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뒤로 한 채 나의 우울증은 점점 더해만 가고 한번 시작된 증상은 내 모습을 길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머리칼은 산발이 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핏발이 선 눈과 움푹 패인 볼.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선주'라고 하겠는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끌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 증상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나를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처럼 만들어갔고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힘조차 없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힘겨워 무력감에 빠져 있기만 했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술에 손대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력감도 사라지는 듯 했으며 속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도 잠시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보다는 술의 힘을 빌리는 날들이 많아졌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나를 애타게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결심을 했다. 그것이 마음 아팠던 남편은 시누이가 출가해 있는 해인사 약수암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마침 2박3일짜리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아들을 해인사 수련회에 입회시켰다. 3박4일 동안 나도 같이 약수암에 머물며 너무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평화로움과 따사로움을 맛보았다. 처음 해보는 새벽예불의 발원문을 들으며 왠지 모를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닌 무엇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감정 속에서 부끄럼도 잊은 채 목 놓아 울었다.

쾌활하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믿기 어려웠다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고 점점 무력감에 빠져 들었다

몇 년 전 나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과 신약말씀을 넘나들며 열심히 깨달았고 직분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자부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토록 존경하던 목사님이 변해가는 모습에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우울증은 더 깊게 진행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서에 기록된 섭리를 깨우치게 도와준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시누이 스님의 스승인 보선 스님께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어떻게 해인사 수련회에 아이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 하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내 아이가 부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리 해 줄 겁니다" 하니 "부처는 믿는 게 아니야, 마음이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지!" 하셨다. "그것이 참선입니까?"하니 그저 빙긋이 웃으시는데 참으로 편해 보였다. 스님의 영향이랄까 갑자기 내 마음도 편해지면서 희망이라고나 할까. 기쁨과도 같은 것이 나를 설레이게 했다.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참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도 쾌히 승낙해 주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관악산에는 오래된 사찰인 연주암이 있어 그 주변에 많은 선원이 있었지만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는 조계사로 갔다. 한 달 후에 개강할 불교기본반과 참선입문반을 동시에 수강 신청했다.

한 달 동안 난 집에서 열심히 먹고 치료받고 운동하며 옛날의 모습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다. 한 달 후 조계사로 가는 내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낀다.

다섯 분의 스님이 나란히 서서 소개를 하는데 유난히 돋보이는 맑은 느낌의 스님이 계셨다. 하지만 내가 신청한 불교입문반의 담임스님이 아니라서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참선입문반 첫날의 생소하고 낯선 분위기와 기대감은 나를 긴장시켰고 이어 조용히 들어오신 스님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법상에 돌아앉으셨고 여전히 고요하고 맑아 보이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 그 스님이시다"를 되뇌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 지는 것 같았다. 난 그때 그 첫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빛이 있어 모든 만물을 비춥니다. 빛이 꽃을 비출 땐 꽃이 드러나고, 똥을 비출 땐 똥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똥을 비췄던 빛이 꽃을 비춘다고 해서 그 빛에서 똥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꽃향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똥을 비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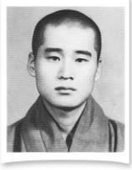
여러분이 내가 비추어진 물질이라 생각하고 이 빛을 신이라 생각하여 각자의 종교대로 부처로, 하나님으로, 알라로 믿고 의지하지만 이 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지 관세음으로 예수로 나투어져 이름을 붙여 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름하여'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조사들도 네가 부처임을 알지 못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그림 · 문병성

병원 입원하기전 여행삼아 찾아간 절에서 눈물이 펑펑
참선·교리공부 시작하니 새 삶…"오로지 믿음입니다"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인 줄로만 알았던 내게 내가 빛이라니….

"여러분이 빛임을 증명할 수 있는것은 나는 한사람인데 엄마도, 아내도, 딸도 되고, 도반도 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추는 빛의 형상이 나타나는 대로 그저 작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한 형상에 머물 수 없음은 수없이 내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형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는 대로 작용하여 놓고 비우기에 이를 공하다 하고 그 빛의 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스님은 빛으로 때론 거울로, 구슬로 호수로, 공기로 물로 비유하시며 우리들을 두드리셨다. 공함의 이치와 모든 것을 그 주인공에게 놓고 지켜봄을 설법하셨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무조건 믿고 의지하듯이 그는 하나님이고, 부처고, 알라이고 우리가 지금껏 의지하고 믿고 매달려왔던 신이고, 절대자라 하셨다. "그런 절대자가 참나인데 왜 밖에다 대고 빌고 구걸합니까? 그것은 거지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주일마다 주시는 법문과 주인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던 우울증으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약물복용도 없이 그렇게 3년 반을 보냈다. 처음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나의 뿌리인 주인공자리를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 이제 나는 확연히 믿는다. 참으로 간절히 사무치게 그를 찾았고 나름대로 나를 놓으며 무엇을 하든 지극히 하려 했고 아직 둘 아닌 하나인 도리를 확연히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그리하려 노력한다.

지난해 비가 몹시 퍼붓던 날 좌선 중 나는 너무도 확실히 체험했다. 눈 하나 깜박임도 나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님을. 어느 것도 나의 것은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을 알았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에게 놓고 맡기고 지켜본다. 아무도 없는 공양간 스피커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수없이 들린 적도 있었다. 물론 나의 내면의 소리이지만.

아직은 지금껏 살아온 나의 찌들어버린 업식이나 습기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 이젠 그 자리를 참으로 확연히 믿기에 고통이 그 옛날 고통과 같지는 않다. 그저 고통을 느끼고 맛 볼 뿐이다.

지금 있는 선원의 주지스님께선 어느 날 죽비를 세우시더니 "시간을 수평이라 생각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 하지만, 시간은 수직이어서 그 셋이 한 줄에 있습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선 미래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순간 찰나의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가 지나간 것이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거의 미래인 지금 내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도 몸서리치게 싫어진 3년 조금 넘은 나의 지옥같은 삶이 이젠 내게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그런 뼈아픈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태어나 윤회의 바퀴에 굴러 다녔을 텐데.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궁금함 따윈 없다. "인과에 대한 응보는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지었던 자신의 업입니다.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또 전생의 업을 지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순응하고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든 공덕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그 곳으로 모입니다. 흐를 수 없는 물은 썩어 버립니다."

나는 선원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봉사를 잘하느냐고 칭찬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들으면 부끄럽다. 누구를 위하기 보담은 나를 위함이 더 크다.

주지스님께서 알려주신 돌아옴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기에 나는 늘상 감사하고 즐겁다.

지난 처절했던 날들을 함께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아준 남편과 밝게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다. 나는 한번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주인공에게 "주인공! 당신이 인연지어준 가족이잖아. 나의 가족이지만 또한 당신의 남편이고 아들이잖아. 당신과 둘이 아니잖아."

그리곤 맡겨놓았다. 지금 나의 아이는 중3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불쌍함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옳지 못함을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정치 사회적인 일들도 논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간 데다 외동아들로 자라 이기적인 데가 있어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는 늘상 친구들이 찾는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학교통지서의 생활면에는, 통솔력있고 협동심이 강하다고 기록돼 있음을 보니 정말 감사하다. 남편사업도, 남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두 번의 사업실패 경험이 있어서인지 직원들도 성실하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나의 숨소리조차 감사하다.

지금도 가끔씩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곤 한다.

꽉 막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과 그래서 숨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복받치는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자리의 고요함을 맛보았으며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아도 의지할 곳은 오직 그 자리 그 곳이란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한 가르침의 한 모습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고요히 앉아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놓는다.

나의 스승이신 스님은 말씀하신다.

"이 세상 무생 유생 만물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스승이라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께선 한번도 당신 공부 자랑이 없으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을 알려 드릴 뿐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그러면 꼭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나의 스승일 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스승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수도 없이 의심할 때마다 체험담을 들려주시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깨우쳐 주신다. 만개의 입이 있어 감사함을 표현한들 족할까?

스님은 밖으로 뻗어있어 나가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항시 말씀하신다.

"남에게 달라고 비는 것은 거지나 하는 말입니다. 관세음도 지장도 문수도 보현도 다 내 속에 있는 자성불 안에 있어 작용에 따라 나툼뿐입니다. 형상들은 내 마음의 표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둘이 아닙니다. 깨달음보다 더 힘든 것은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입니다. 둘 아닌 도리로 실천을 해야만 업식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스승같이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스님이 그립다. 가만히 눈감으면 떠오르는 선원이나 공양간이 그저 그립다.

특히나 언니같고 스승같기도 한 보살님이나 선원의 도반들이 그저 그립고 그립다.

※ 본 당선작은 신행수기 연중모집에 채택되어 본지 481호부터 483호까지 게재됐던 작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평



12월 22일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10회 신행수기 공모 심사 장면.

90여 편에 이르는 응모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총 11편이었다. 10회를 맞이한 신행수기 공모작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된 '신행수기 공모붐'을 반영하듯 기대 이상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주 씨의 <내 인생의 참 스승>과 박순서 씨의 <어머니와 동자승>은 특별히 주목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신행생활의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회 맞아 수준 월등히 높아져

기복·집착보다 신행 잘 묘사

'태고종 총무원장상' 신설

<내 영혼의 참 스승>은 참선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를 진솔하게 풀어낸 것이 돋보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어머니와 동자승>은 어머니와 동자승을 소재로 불심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삶이 담긴 작품 7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복이나 교리에 집착하지 않고 신행생활과 불법을 접목, 잔잔한 필체로 풀어낸 작품들이 뽑혔다. 특히 올해는 태국에서의 명상수행, 달라이라마 친견 등 이색적인 주제로 풀어낸 작품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장 : **법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심사위원 :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오윤희 (본지 편집위원)
이남숙 (신수회장 · 조계종 포교사)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당 하(茉)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갑 사
주지 장 곡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TEL 041)857-8981, 8982
FAX 041)857-9753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선 곡
신도회장 남비로행
■ 경남 통영시 봉평동 404
TEL 055)646-309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 도 일 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대한불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 2동 9번지
TEL 02)444-4321 / 444-7215
FAX 02)454-8177

대한불교조계종
전 등 사
회주 장 윤
주지 계 성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g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산 광륜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401
TEL 02)956-5555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 연
신도일동
법회(음) 1, 18일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18-4
TEL 02)701-7488, 703-5575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박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북한산성 내)
TEL 02)353-5016,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현 불 사
주지 법 우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
신도일동
■ 대전 동구 구도동 150-11
TEL 042)271-3395

기원정사
주지 도 영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대한불교조계종
雉岳山 龜龍寺
原州佛教大學
住持(慈光) 遠 行
■ 우 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3
033)732-1211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종현산 호국범음사
주 지 호 택
신도회장 최현명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106-34
TEL 031)832-0912

대한불교조계종
내 소 사
회주 우 암
주지 진 원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 지 광 우
신도회장 서승만행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운봉산 광운사 · 부설 광운불교대학
서울포교원 광운정사
주지 청 운
홈페이지 : www.kwangwoonsa.com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9-8966 / 033)433-9108
FAX 02)381-8525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 지 김무원
신도회장 이종상 외
신 도 일 동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71-2
TEL 032)873-0747

대한불교총화종
정 은 사
주지 정송 이기태
신도일동
■ 인천시 남구 숭의4동 13-13
TEL 032)875-5280 / 3459

대한불교조계종
현 암 사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39-1
TEL 042)932-2749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주지 세 민
신도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한 성 포 교 원
주지 법 농
불교신행대학
1째, 3째 일요일 정기법회
3째 일요일 월운 큰스님 경전법회
매달 그믐부터 초이틀 참회정진 다라니기도
■ 서울시 중랑구 면목 8동 11-9
TEL 02)2207-8296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신도일동
www.gakwonsa.or.kr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TEL 041)561-3545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금 화 사
주지 수 증
법회(음) 1일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00-2
TEL 02)429-1488

대한불교법상종 본사
쌍미륵사(雙彌勒寺)
주지 해월(海月)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호
TEL 031)672-3353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지 무공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
문화연구원 이사장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4 12호
TEL 02)904-0016, 0081

대한불교선교종
혜 원 사
주지 해 원
■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60-21
TEL 031)736-3734
010-9266-6026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중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 서울시 서초동 1603-67
강남부속상가10동401호
TEL 02)586-652
FAX02)521-9948

사단법인 21세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백련자비원(무료급식소)
임 직 원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TEL 02)303-0024~5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
TEL 02)742-0172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학장 묘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

청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법 수 사
주지 법수
사부대중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303-1
TEL 041)555-3243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031)443-5559

최초[법문가요]보급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법 만 사
주 지 법만 합장
신도회 · 법연회
■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

대한불교조계종
금수산 무암사
주지 황 도
신도일동
법회 1, 18일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1
TEL 043)652-0897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 강 선 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TEL 02)969-2410

대각정사 대각불교대학
(무료불교대학)
주지 해각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35-3
TEL 02)2699-6384

대한불교조계종
옥수동 미암사
주지 문수
대중일동
미타유치원 원장 홍현
교직원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옥수동 395
TEL 02)2297-7548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정사 · 경인불교대학
제 3기 개강
2005년 3월 7일
사부대중일동
www.omnuri.org
■ 인천 남구 문학동 252-3
TEL 032)427-8400 / FAX 032)422-8401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밀
주 지 현 호
고 문 이필상
신도회장 심정구
합창단장 양원각행
사부대중일동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 삼영B/D 7층
TEL 031)444-5935~6 / FAX 031)444-5655

대한불교조계종
석 남 사
주지 정무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부 석 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명 봉 사
주지 희광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
TEL 054)653-1365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용 궁 사
밀양불교대학 불교대학운영위원 일동
신도회장 이연등화 보현회일동
월간 초심후원회 일동
신도회 일동
주지 정무
■ 경남 밀양시 가곡동 692
TEL 055)354-4467, 354-4464
FAX 055)354-4415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산 삼미륵사
주지 이동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여좌동 산75
주지실 055)544-5962
종무소 055)543-2931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연 령 사
주지 도은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276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법 령 사
주지 무연
(총무원 교무부장)
신도일동
■ 경남 창령군 창령읍 외부리 564
TEL 055)533-1350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용 정 사
주 지 혜봉
신도회장 서광명장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3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지선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206
TEL 054)954-2400

대 한 불 교
광 원 사
주지 덕양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466-3
TEL 053)324-0882
FAX 053)325-3187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성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범울동 458-1
TEL 052)298-5965,6623

도 봉 사
주지 서운
■ 경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동 901
TEL 054)973-6455

한국불교태고종
삼각산 보문사
주지 월운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80-1
TEL 02)384-6664
FAX 02)383-7154

한국불교태고종
원 광 사
주지 화경
http://www.sky33.org/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번지
TEL 031)353-2877

한국불교태고종
삼각산 만덕사
주지 백운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80-9
TEL 02)911-9819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수 진 사
주지 정용
신도일동
■ 경북 울진군 평해면 오곡리936
TEL 054)787-5614

(사)한국불교미륵종
약 수 암
주지 해월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17-1
TEL 052)264-9088



머리는 희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髮白非心白
옛 사람 일찍이 말했거니 古人曾漏洩
닭 우는 소리 듣는 찰나 今聽一聲鷄
장부의 할 일 다 마쳤네. 丈夫能事畢

꼬끼오~~ 깨침의 한해를

"차라리 평생 바보가 될지언정 다시 문자법사는 되지 않겠다"며 용맹정진 중이던 휴정 스님(서산대사)이 23세 되던 해 역성촌을 지나다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를 듣고 활연히 마음자리를 깨닫고 지은 오도송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부르는 닭은 선가(禪家)에서 깨침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벽암록> 제16칙에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이야기가 등장한다. 줄탁동시란 병아리가 나올 때가 돼서 안에서 쪼아대고, 밖에서 어미닭도 함께 쪼아줄 때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뜻하는 말.

어느 수행자가 경청 스님(鏡淸, 868~936)에게 말했다. "저는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화상께서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를 들은 경청 스님은 "역시 멍청한 놈이구나"라고 꾸짖는다.

'줄탁동시' 선가(禪家)서는 깨달음에 비유
"마음 공부는 마치 닭이 알 품는 것과 같이"

줄탁동시는 인연이 성숙했을 때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지 병아리가 재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병아리는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자를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에, 이를 도와주는 스승을 어미닭에 비유한 것이 적확하기 이를 데 없다.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의 지극한 정성과 인내는 마음 챙김의 자세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 <선가귀감>은 "참구하는 공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하면 "반드시 꿰뚫는다"고 적고 있다.

닭은 예로부터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만큼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도 빠지지 않는다. 어느 도시에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수탉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수탉이 죽자 이들은 기상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스승의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서 묘지 숲에서 닭 한 마리를 데려다 길렀다.

하지만 한밤중에 장사지내는 불빛 때문에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고 결국 '퇴출'되고 말았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닭에 얽힌 이야기는 천불천탑의 전설이 서린 운주사에도 전해진다. 우리나라 지형을 배의 형상으로 생각한 도선 스님은 동쪽에 산이 많아 그냥 놔두면 일본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천상의 석공을 불러 배 형상의 구심점인 화순에 천개의 석탑과 석불을 조성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려 하면 신통력으로 다시 해를 잡아 당겨 작업을 계속 했다. 그런데 동자승 하나가 밤새 계속된 일에 지쳐 숨어서 닭 우는 소리를 냈고, 순간 석공들은 마지막 석불을 세우지 않은 채 아침이 온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그래서 운주사의 와불 한 쌍은 누워 있게 됐다는 것이다. 만약 거짓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

박익순 기자

전통문화 속의 닭

꼬끼오, 우렁찬 닭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햇님이 기지개를 펴면 온 세상은 광명으로 밝혀진다. 그래서일까? 우리네 설화나 전설을 듣다보면 잡귀들이 결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닭을 벽사초복(辟邪招福 ·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부름)의 가금으로 귀중히 여겨 정초에 대문이나 집안에 닭 그림을 붙여 놓고 새해를 축하하고 행운을 기원했다. 닭은 또 12지신 중 유일하게 날개 달린 동물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던 전령으로 여겼다. 수탉의 볏은 예부터 벽사를 상징한 붉은 색이어서 숭상했으며, 암탉은 왕성한 다산성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았다.

정초 닭 그림 붙이고 새해 축하 '벽사초복'
다산·관직·재물 등 상징, 보현보살로 표현

그 옛날 자명종이 없을 때 수탉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줬다. 암탉은 알을 낳고 부화시켜 병아리를 생산해 우리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혼례를 치를 때도 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른 천에 싸인 수탉은 희망찬 출발의 의미로 푸른 천에 싸인 암탉은 다산을 의미했다.

이런 이미지 탓인지 조상들은 닭 꿈을 길몽으로 여겼다. 꿈속에서 닭은 관직, 재물, 훌륭한 인재 등을 상징한다. 훌륭한 인재 중에는 닭 꿈을 태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 작곡가 홍난파, 서경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십이지 중 열번째인 닭은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내는 방위신이며 불교에서는 보현보살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통도사 십이지번(十二支幡) 중 '닭(酉)'. 절에서 큰 행사를 할때 잡귀의 침범을 막기 위해 내걸었다. (1896년作)

■ 을유년(乙酉年) 불교사
의상 대사 탄생 · 무학 대사 입적

▶ 385년(백제 침류왕 2년): 2월 한산(漢山)에 절을 세우고 10인을 출가시킴
▶ 565년(신라 진흥왕 26년): 진(陳)나라 입학승 명관이 경론 1,700여권을 신라에 들여옴
▶ 625년(신라 진평왕 47년): 신라 의상대사 출생, 5월 고구려 고승 혜관(惠灌)이 일본에 건너가 삼론(三論)을 강설하고 비(雨)오기를 기원함
▶ 685년(신라 신문왕 6년): 3월 봉선사 창건, 4월 봉덕사 창건
▶ 829년(신라 흥덕왕 4년): 증각대사(證覺大師) 홍척(洪陟)의 실상사 창건
▶ 865년(신라 경문왕 5년): 화엄대덕(華嚴大德) 결언(決言)이 해인사에서 5일간 경을 강의, 1월 도피안사 철조 불상 주성(鑄成)
▶ 985년(고려 성종 4년): 10월 집을 버리고 절로 만드는 것을 금지
▶ 1105년(고려): 12월 현화사 덕창(德昌)을 왕사(王師)로 삼음
▶ 1225년(고려 고종 12년): 9월 17일 건원사 준공, 10월 19일 구정에서 승려 3만을 공양, 12월 최충이 왕륜사를 수리케 함
▶ 1405년(조선 태종 5년): 3월 사간원(司諫院), 담선회(談禪會)의 폐지를 왕에게 건의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음, 8월 절을 없애고 토지와 노비를 관공(官公)에 귀속시킴, 9월 11일 무학대사 금강산 금장사에서 입적
1465년(조선 세조 11년): 2월 오대산 상원사 중수에 착수, 4월 7일 원각사 준공을 경축해 승려 2만을 공양함, 3월4일 간경도감에서 <원각경언해>10권을 조판(雕板) 간행
▶ 1765년(조선 영조 41년): 6월 10일 낙암사신(洛庵思信) 입적
▶ 1885년(조선 고종 22년): 10월 21일 혜암 최현문 출생, 12월 수성근헌(壽星謹憲) 및 원암득원(圓菴得圓) 입적
▶ 1945년: 8월 18일 조선불교혁신분비대회결성, 8월 20일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설립, 9월 22~23일 사찰령 및 태고사법 폐지, 조선불교교헌 제정,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 각 도교무원 설치, 교구제(13교구) 실시 등 결의, 10월9일 군정법령에서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케 하는 조령 및 명령은 전부 폐지 규정, 11월 31본말사에 광복사업협조비 1억 8천749만원 배당, 12월 26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창립, 12월 종교연합회 신탁통치 반대시위, 불교청년당 결성으로 교도제 실시요구, 독립 촉성을 목표로 5대종교연합회결성,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총회 개최, 전쟁동포 구제 및 정치활동을 목표로 조선불교청년동맹 삼일당(三一黨) 결성.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1. 3.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신비의 침술 대공개
만성두통, 견항통, 어깨결림, 구안와사, 이명, 해수천식, 아토피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척추측만증, 다리저림, 무릎관절통, 치질, 만성체증 등 비결침술로 단 3회 시술 완치시키는 비방(한국, 중국, 일본, 몽고 등 대침술가에게 30여년 동안 공부한) 비법을 공개함.
※ 중풍, 소아마비, 간경화, 각종 암 등은 별도 상담.
비 법 강 좌
※ 선착순 10명, 숙식제공
● 일 시 : 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 1월 9일 일요일까지 교육
● 보시금 : 50만원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천제 불국사 의성스님
●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 길 13km 오셔서 공수원 3거리 하차
초보자 누구라도 7시간만 배우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전화 016-663-2159, 041-855-7114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법당전용스피커 v-818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 050-5244-0108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 주 사

조 실 효일 범행
회 주 원파 혜정
총지선원장 월복 함주
주 지 도공
부 주 지 무상
총무국장 원장
교무국장 장원
재무국장 원일
사회국장 황도
호법국장 도안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043)543-3615, 8655
원주실 043)543-4755
팩 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주 지 혜승

사부대중 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TEL 054)833-2324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 지 변춘광 스님
총 무 방경혜 스님
재 무 지설혜 스님
부 전 김갈용 스님
신도회장 권영철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TEL 02)3460-5300
FAX 02)3460-5200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성
수석부회장 명 우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TEL 02)3411-8103
02)3411-8106
www.kbiguni.org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포교당
수원서호노인복지회관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주 지 성관
부 주 지 성보
총 무 정명
기획국장 도원
교 무 응초
법 사 혜광
지성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TEL 031)245-9670~2
FAX 031)244-8562

三 會 宗

을유년 새해 각 종단의
무궁한 발전과 사부대중의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총무원장 三會人 합장

대중일동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량리 45-1
三會寺 043-732-9561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경남종무원

종무원장 명주
종무국장 지연
재무국장 혜광
사회국장 혜공
종회부의장 수은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
TEL 055)275-1372
FAX 055)262-0928
휴대폰 019-574-0928

대한불교조계종
제 9 교구

운문사·운문승가대학

회주 명성
주 지 흥륜

학인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대한불교조계종

천등산 봉정사

주 지 문인

사부대중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TEL 054)853-4181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48호

송 덕 암

주 지 고동우

사부대중일동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02번지
TEL 041)688-2913

무 량 사

회주 민성하
주지 효 선

사부대중일동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28번지
TEL 043)851-487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 아기 영가천도 전문도량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사부대중일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011-9002-8523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경 천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일동

포항시 북구 학장동 산20
TEL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전법도량 남장사

주 지 관도

신도회일동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TEL 054) 534-6331
FAX 054) 531-0047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최영해
남 양 성인사
태 하 삼도사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KT
"The Value Networking Company"

희망은
네트워크를 타고…

자신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마라톤에 도전한 "아름다운 철도원"

지치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여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청량리 "천사병원"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려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KT의 "청각 장애아 소리찾기"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인터넷을 타고 퍼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던 지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희망찬 이야기들이 KT의 네트워크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나라
Let's KT

